

PRSRT STD
U.S. Postage
PAID
Elk Grove VLG. IL
Permit #1320



美 京 大 同 窓 會 報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무국 및 편집국
790 Busse R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ynlee@htrdlt.com
website : http://www.snuua.org

발행인 : 李龍洛
편집위원회 총무 : 구경희
편집인 : 김정수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런 동문들

월간 90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 A

2001년 8월 29일



시카고 전경 앞으로 2년간 재미 총동창회 본부가 머무를 미시간 호변의 시카고 전경. <사진 제공 정호 출판국장>

재미 총동창회본부 시카고 이전

동문들의 友情과 母校에 대한 사랑을 결집하는 서울대 동창회

지난 7월 1일부터 출범하여 7,000여 재미 동문들의 우정과 모교에 대한 사랑을 결집하는 서울대 재미 총동창회 6대 집행부(회장 이용락)의 본부 개소식이 7월 28일 토요일 3시부터 5시까지 시카고 지역 동창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하신 이기억선배님(문리대 47졸)부부를 비롯하여 부부 동반한 40여명의 동문가족이 무더운 날씨인 주말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가운데 지난 7월16일 토요일에 이주한 동창회 본부 건물구내(790 Busse Rd. Elk Grove)에서 열렸다.

참석한 동문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재미 동창회를 이끌 임원들을 격려하고, 참석하신 동문 상호간에 정을 돈독히 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용락회장은 참석하신 한국일보의 이형준기자(농대 92년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대학교의 재미 총동창회장으로서 모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이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창회를 이끌어 갈 것"이며 "또, 특히 매월 발간하는 동창회보를 더욱 충실히 하여 동문들의 글과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회장께서는 또한 "시카고 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에 18개의 지역 동창회를 갖고 있는 서울대 총동창회의 재정자립"을 목표로 하나로 삼고, 이를 이루어 차기 회장에게 넘겨줄 포부를 피력하였다.

간단한 다과를 나눈 환담시간에 이어서 참석하신 동문들은 앞으로 발간될 재미 동창회보의 발간계획과 방향 및 인쇄된 시험판의 내용에 관한 진지한 토의를 하였고 연 20여명의 동문들이 발언하였다.

앞으로 재미 동창회보는 미주 전역에 산재한 동문들의 소식을 다양하게 전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지역동창회를 순방하는 특집란을 계획하며, 또 동문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글들을 모아 내용있고, 수준 있는 교양지의 역할을 강화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전 미주 동문 및 외부 전문가 필자들을 발굴하여 넓게 포용하는 재미 동창회보의 시카고 판이 될 것을 여망하였다.

또한 참석한 동문들의 기념촬영이 있었다. 구경희, 이용락, 소진문, 김현옥, 조대현, 이형준, 김일훈, 박영규, 정호, 이승자, 김정주, 이기억, 임이섭, 이윤모, 한의일, 김봉현, 송순영, 장기남, 이소정, 홍하웅, 이재국, 신원태, 김정주, 최일주, 한재은, 김정수 동문과 그 가족들이 참석하였다.

李龍洛 회장 취임사

母校를 고양하는 동창회 知性人의 우정을 나누는 동창회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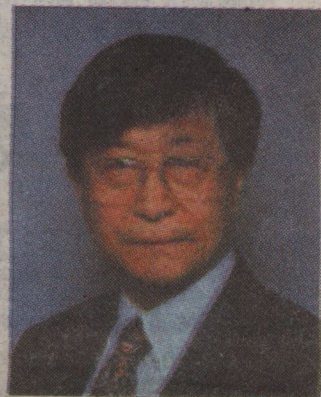
존경하는 全美洲의 7천여 서울 大學校 同門여러분,

유난히도 불순하고 무더운 여름입니다. 동문여러분들의 가정에 두루 건승하심을 바랍니다. 지난 6월초 시카고에서 열린 제 10차 평의원회는, 발족한 이래 어언 11년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날로 성장하고 발전한 재미 총동창회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다음 단계의 도약을 위한 계획들을 점검하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러 지역 동창회의 발전 사업계획을 여러 평의원님들과 토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7월 1일부터 출범한 제 6대 집행부는, 급변하는 변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구성하는 새로운 江川과 地平을 내다보며, 각 지역 동창회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미주 각 지역에서 학자, 전문직 및 일반 실업계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 우리 동문 여러분을 세대와 지역을 뛰어 넘어 두텁게 연결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재미 총동창회는 우리 동문들이 日常의 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누는 형제자매의 精을 교류하며, 뒤로 두고 떠난 조국과 母校를 잊지 않는 반포(反哺)의 誠意를 모으며, 이곳에서의 우리들의 교육과 삶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모교의 발전을 후원하는 뜻깊은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 총동창회는 지난 10여년간 전 미주 동문들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였었고, 또한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 할 구조물을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전이 있기까지의 원



동력은, 무엇보다도 재미 총동창회의 발족 이전부터 각 지역에서 서로 떨어져있지만 여러 동문들께서 삶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近隣의 두터운 정으로 同門들 상호간의 발전을 격려하면서 지역동창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오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동문들의 참여와 성원을 모으는 각 지역동창회의 활동을 이끄시며 수고하신 각 지역 회장님, 평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공사다망한 日常속에서 전미주 동문의 노력과 성의를 결집하여 우리동문들의 力動的인 대화와 교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신 先代 집행부, 초대 박윤수 회장님, 제 2대 강수상 회장님, 제 3대 이병준 회장님, 제 4대 및 5대의 오인석 회장님과, 각 집행부의 任員으로서 참여하여 재미총동창회를 위하여 크게 봉사하신 여러 동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노력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본인과 제 6대 집행부 임원들은 이를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킬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3면에 계속>



재미 서울대 동동창회(6대, 회장 이용락) 및 일찍은 동문가족. 본부 개소식이 지난 7월 28일 790 Busse Rd. Elk Grove, IL.의 본부 사무실에서 열렸다. 개소식 후 임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앞줄 왼쪽부터 김현옥 재무국장, 이승자 동문, 이기억 초대 시카고지역 회장, 이용락 재미 동동창회 회장, 조대현 시카고지역 회장이고 뒷줄 왼쪽부터 임의섭 동문, 구경회 사무총장, 김광선씨(이승자 동문 남편), Mrs. 이기억, Mrs. 이용락, Mr. & Mrs. 장기남 섭외국장, Mr. & Mrs. 박영규 감사, 정호 출판국장이며, 뒷줄 현수막을 잡고 있는 이가 김정주 총무국장과 김정수 회보 편집인.

재미 동동창회 제 6대 집행부 1차 임원회의 및 신문회의 개최

7월 1일부터 출범한 제 6대 집행부(회장 이용락)의 조직 및 사업 계획을 검토하는 첫 집행부 상임 임원회의(구성원은 회장, 수석 부회장, 관악후원회 부회장, 사무총장 및 4개 집행부 국장) 및 재미동창회보의 발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된 신문운영위원회(의장 구경회사무총장)의 첫 회의가 7월 8일 오후 2시부터 7시 30분까지 Naperville에 있는 정호동문(출판국장)주택에서 열렸다. 임원회의는 임원 및 신문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동문들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는 집행부조직안, 뉴욕의 제 5대 집행부(회장 오인석)로부터의 인수 방문단(구경회, 김정수, 홍혜례동문이 6월 28일과 6월 30일에 걸쳐 각각 다른 일정으로 NY본부를 방문하였음)의 보고, 사무실 장비설치, 회칙위원회의 조직 및 지역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재미 동동창회장의 순방계획, 동창회 본부 사무소 개소식 준비 및 최종인쇄 완료단계에 있는 시험판의 점검 및 재미 동동창회의 편집방향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집행부 조직안의 토의의 중점사항은 전 미주지역의 산재한 지역 동창회들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모

고, 동동창회 본부가 있는 시카고 지역동창회 회원들의 노력을 동동창회 집행부의 활동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모을 것인가가 논의되었다.

이용락회장은 전미주에 있는 우리 동문들의 재미동창회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결집하기 위해서는, 시카고 지역동창회의 활발한 참여의 경험들을 살려 재미동동창회 집행부에 참여하신 각 임원들의 책임소관분야를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제 6대 집행부가 될 것을 강조하였다.

인수방문단의 보고에서 구경회 사무총장은 NY의 5대 집행부 임원들과의 신속하고 정확한 인수인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최종 인수인계보고서 작성에는 7월 1일부터 일개월은 소요되리라는 NY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하였다.

김정수 회보편집인은 지금까지 발간된 재미 동동창회보의 23호부터 89호까지를 보존용으로 확보하였으며, 본국 재미 동동창회의 것발 동창회보, 서울대학신문, 재미 동창회비주소록 잔여분(25권), 재미 동동창회보 13Box를 UPS로 수송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또 회보편집인은 재미 동동창회

가 장기적으로 재미 동문들의 삶의 역사이므로 첫호부터 88호까지의 전체를 후일의 역사적 자료로서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초기의 1호부터 22호까지가 보존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더 시간이 가기 전에 그 결본의 소재를 전체 동문들에게서 탐문하여 확보하여야 하고, 신문종이의 자연적 산성화에 따른 파손에 대비하여 micro-film화 등의 보존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年老하신 동문들에 대한 구독료 면제등에 관하여 내년 평의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홍혜례동문은 회보 구독료 및 각종 동문들의 출연료를 관리하는 전산장비운용의 문제점의 해결이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구경회 사무총장은 NY의 5대 집행부로부터 인수받은 장비가 하나도 없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임원회의는 6대 집행부 사무소의 장비로 computer 2대, printer 2대, fax machine, 전화선 넷(본부사무실 3, 회보편집인 주택 별도 선 하나의 설치 필요)과 전화수신기용 녹음기 2대등의 구입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이의 구입을 의결하였다.

<4면에 계속>

재미 동동창회 본부 새살림 밀천

5대 집행부, 5천불 이관

同門들께서 주지하시피 재미 서울대 동동창회의 金庫는 入口보다 出口가 훨씬 넓다.

그리하여 그 금고를 채우는 일도, 한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면 7,000여명의 재미주 동문들의 살림을 결산하여 정산하는 일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5대 집행부(회장 吳仁錫)는 시카고로 새로 이사한 제 6대 집행부(7월 1일

부터 출범)의 이전 초기의 기간동안의 財政의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急錢 \$5,000을 우선적으로 6월 말에 시카고 본부로 이관하였다.

이는 제 6대 집행부 이사철의 어려움을 넘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에 4년 동안 재미 동동창회의 어려운 살림을 이끄신 제 5대 집행부와 명예회장 吳仁錫동문의 배려에 제 6대 집행부는 감사를 드린다.

시카고 지역 동창회

동창회보 발행에 4천불 지원

시카고지역동창회는 지난 7월 28일(토요일) 링컨우드 래디슨 호텔에서 열린 2001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 돕기운동에서 “동동창회보 보조비”로 4천불을 의결하고 당일 시카고 동창회의 조대현 회장은 재미 동동창회의 이용락 회장에게 상기 금액의 수표를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용락 회장은 시카고지역 동창회의 배려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타 지역 동창회에도 이러한 뜻이 전파되어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18개 지역동창회에 소속한 7천여명의 회원을 망라하는 “재미 서울대 동동창회”의 6대 집행부는 7월 1일부터 출범하였는 바, 그 동동창회의 재산(財産)은 지난 10년간의 문서철 4권이고, 한국의 지

성인들인 독자들이 읽을 월간 회보를 만드는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사”의 장비(裝備)란 1호부터 21호까지는 逸失되고 22호부터 89호까지 발행되어 배포되고 남은 신문통치가 전부, 문자 그대로 공수래(空手來)의 새 출발이다. 또 2년후 7대 집행부로 본부가 옮겨 갈 때는 공수거(空手去) 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애교(愛校)심으로 구독을 바랄 일이 아니라 읽을 만한 가치로 구독할 수 있는 회보를 만들자”(서중민 동문·공대 72년졸)는 동문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의 발행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절실한 형편이다. 현재 20%에 불과한 유료구독자들로서는 필요재원의 채 50%도 출당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카고지역 동창회 조대현 회장(오른쪽)이 이용락 재미 동동창회장에 동창회보 발행지원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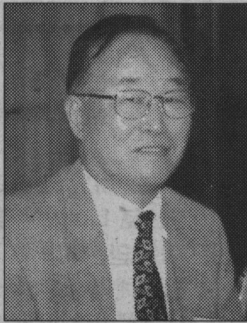
6대 집행부 상임임원...2년간 수고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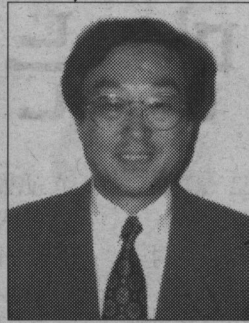
오홍조 수석부회장 (치대 56입)



송순영 관악후원회부회장 (문리대 52입)



구경희 사무총장 (외대 59입)



김정주 총무국장 (문리대 59입)



김현옥 재무국장 (문리대 67입)



정호 출판국장 (공대 62입)



장기남 섭의국장 (문리대 62입)

<1면 '회장 취임사' 서 계속>

재미 총동창회 조직의 존재 목표는 무엇보다도 우리 동문들이 서로 이끌고 밀어붙여 발전을 성원하는 友情의 장이며, 우리들의 학창시절의 꿈과 성숙한 사고력을 함양하던 보금자리인 母校를 전 세계에 어디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고등교육기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한 축매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 6대 집행부는 전미주의 동문여러분들의 노력을 결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재미 총동창회의 기간사업인 동창회보의 활성화입니다. 그간 동창회보는 동창회의 사랑방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습니다. 사랑방에는 동문들의 소식과 德談도 있고, 한국의 실정하는 사색으로서의 우리 동문들이 그 사색의 소산인 글들은 나누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목표의 內實化를 더욱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재미동창회보가 동문 여러분의 文筆과 論考의 장으로 더욱 발전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신춘문예공모와 같은 사업을 재미동창회보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동문들이 어렵고 힘들었던 삶의 순간을 반추(反擧)하는 사색의 장이 될

수도 있으며, 각 전문분야에서 날로 급격히 발전하는 새로운 연구와 문화 동향들을 전문가 동문들의 글을 통하여 서로 나눔으로써 동문들의 마음의 양식이 되는 훌륭한 교양지로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의 추진에 있어 동문 여러분들의 활발하신 제안과 충고를 환영하며 재미동창회보가 한국의 知性인들이 구성하는 論壇의 역할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창회보는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면 우리 재미 동문들의 삶의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지리적으로 散在한 여러 동문들의 크고 작은 활동소식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지역동창회 활동을 다른 지역 동문들과도 긴밀하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재미 동창회의 발전과 조직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문제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모교를 돕기 위한 백만불기금 운동은 여러 동문들의 정성어린 기여로써 많은 성과를 보고 있지만, 이 사업의 성공적인 완결을 위하여 우리 미주의 전 동문들이 모교를 향한 사랑의 精과 誠을 모아 큰 결실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각자의 노력과 성의대로 참여하는 萬人燃燈의 정신으로 완결될 때에 전 미주동문들은 세계를 향하여 조국을 이끄는 지성의 요람으로서의 서울대학교를 밀

고 가는 역할을 自任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미 총동창회의 경상예산의 財源으로서 관악후원회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동문들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속에서도 흔쾌히 참여하신 덕분에 재미 동창회의 활동이 이만큼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동문들의 계속하여 관악후원회 이사로서 참여하시고 성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미주 동문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현재의 재미 총동창회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악후원회 이사회비는 원래 재미 동창회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의 종합적인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현실정은 동창회보의 발간사업을 뒷받침하는 데에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동문들께서 재미동창회보의 유료 구독자로서 참여가 절실히 소망됩니다.

지금까지 재미 총동창회의 발전에는 뜻있는 동문 독지가들의 헌신적인 기여가 컸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서는 앞으로 우리 재미 총동창회의 회원이시며 학계, 연구기관, 전문직 및 실업계에서 활약하시는 基層同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우리 동문 여러분들께서는 제각기 각자의

분야에서 묵묵히 母校를 빛내는 자랑스런 동문들이십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중에서도, 많은 동문들이 유익하고 알찬 재미동창회보의 제작을 위하여 집필자 및 크고 작은 자료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주시고, 동창회보의 유료구독자로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제 6대 집행부는 동문독자들의 참여도를 지금보다 倍加하고자 합니다.

우리 재미 동창회는 회원동문 모두가 한국의 지성인이며, 미주사회의 求心을 향하여 부단한 노력으로서 세계적인 영향력있는 학자와 전문인, 실업인으로 활동하여 서울대인의 긍지(矜持)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미주 동문들이 近隣의 정으로 상부상조하는 매개가 되고 각자 활동분야에서의 성공을 격려하고, 동문들의 값진 삶과 지혜를 공유하는 교류의 장으로서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가 더욱 발전되기를 본인은 모든 동문여러분과 함께 바라는 바입니다. 이에 제 6대 집행부는 跳躍하는 동창회가 되기 위하여 동문여러분과 함께 熱과 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문여러분 가정에 항상 多福하심이 가득하고 하시는 일마다 大成하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 7월 1일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 李龍洛

관악 춘추

재미동창회의 쾌거

우리 동창회는 국내 조직확장뿐만 아니라 국제 조직확장에도 노력해 많은 해외지부를 가지고있다.

세계화, 지구촌화하는 사회, 국경없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생존전략이 기도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동창간의 친목도모와 유대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흐뭇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는 지부로는 재미총동창회를 들 수 있다.

재미 총동창회는 그 회원 수나 활동건수, 재정상태, 지부결성등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해외지부이다.

그 동안 뉴욕의 吳仁錫회장 중심체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6월 9일에 열린 제 10차(2001년)전국 평의원회를 기하여 시카고 지부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 평의원회에는 모국의 金在淳총동창회장 일행이 출석하여 재미총동창회의 발전을 축하하였다.

재미총동창회는 현재 등록회원 수만도 6천 5백22명이며, 재미동창회보도 발행하여 동창간의 친목과 의사소통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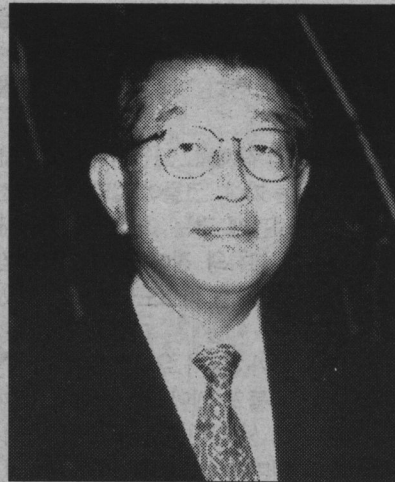
월간으로 발행되는 이 회보는 6월로 88호를 기록하고 있으며, 많은 회원들의 성원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우수한 졸업생들이 미주사회에 동화하면서 지도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모교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어 반갑다.

2000년 6월 10일에 열린 제 9차 전국평의원회에서는 "모교와 후진 돕기 100만달러 기금 모금"을 결의하여 45만 달러를 모금한 바 있다.

이 중 33만 달러를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전달하였고, 1만 3천달러를 간호대학에 기증하였다. 미국에서 생활해 본 사람이면 1천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가를 실감하고 있을텐데 1,000배의 기금을 모으고 있어 감격할 뿐이다.

이 100만 달러 기금모금이 순조로이



4·5대 재미총동창회리이곤 오인석 동문 (명예회장·법대 58입학)

루어져 모교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며, 이 기금마련에 노력하고 있는 재미총동창회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모교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국가재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 액수도 미국 일류대학수준에 따라야 할 것이나 정부재정의 열악으로 사립대학처럼 동창회 모금에 의

존하고 있는 것은 슬픈 사실이다.

서울대학교의 재정 규모로 볼 때, 100만 달러는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니다. 이 기금으로서 우수한 학생에 대한 미국유학을 장려했으면 한다.

과거에는 미국정부나 재단에서 많은 장학금을 주어 왔으나 이제는 그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유학 비용이 없어 유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재미총동창회는 로테이션 원칙에 따라 그 본부가 전국을 순회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더 많은 동문의 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재미 총동창의 획기적인 발전을 바라는 모국 동문들의 뜻을 전하고 싶다. 재미총동창회의 조직과 활동은 타 지역 동창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겠다.

유럽총동창회, 재일본총동창회, 중국동창회 등도 재미총동창회와 같이 회원 친목과 모교발전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란다. 또 외국에 거주하는 동문들에 대한 모국동창회와 모교의 지원도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보 7월15일에서 전재함.>

7천명 동문이 함께 만드는 소식지

논설

서울대학교 재미 총동창회 제6기 집행부가 7월부터 시카고에서 출범하면서 동창회보를 시카고에서 발간하게 되었다.

그간 동창회보를 창간하고 끊이는 달 없이 제작하여 7천여 동문들에게 배포하며 또한 동창회보의 자립 기반을 다지기 위해 쉬임 없이 노력하신 선임 회장단들과 실무자들의 노고에 치하를 보낸다.

이제 총동창회장단의 새 임기를 시카고에서 시작함에 따라 동창회보를 이곳에 이식하여 계속 발간해야 하는 집행부는 회보의 도약을 다짐하는 한편, 불안 심정으로 이 책무를 맡는다.

재미 동창회보는 이제까지 몇 가지로 대별되는 기능을 지녀왔다고 하겠다. 첫째는 총동창회의 공지사항을 전달하며 자원을 동원하여 조직으로서 총동창회의 기틀을 다지는데 뒷받침하는 기능이다.

둘째는 각 지역의 동창회의 활동을 기록하고 소개함으로써 지역 동창회의 활성을 뒷받침하며 지역 동창들 사이에 교류를 도모하는 기능이다.

셋째는 미주 각지에나 본국에 있는 동문들의 소식을 나눔으로써 동문간에 유대를 이어가는 기능이다.

넷째는 동문회원들의 문필 또는 전문적 기고를 게재하여 지식적인 공감대를 연결하고 넓히는 기능과,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정보와 지식을 많은 독자들이 공유하게 하는 기능이다.

새 집행부가 회보 발간을 위해 구성한 새 신문 팀은, 동창회보의 시카고 이식이 일단 정착되면 다음 단계의 발전 구상을 점진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를 기대한다.

우선 이 회보에 대한 동창들의 인식과 기대, 그리고 동창들이 이 매체를 발전시키고 또 각자의 취향과 재능에 맞게 이용하는 데 어느 만큼 관심이나 참여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재미 동문들의 종합적인 "얼굴"과 잠재력을 파악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재미 동창들이 직업면에서 무엇을 성취했는가는 과거 총동창회 명부 작성과 회보를 위한 자료수집에서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

이제는 동창들이 각자 삶의 절정기에서 자녀들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계획과 잠재력이 동창 상호간, 조직으로서의 동창회, 모교, 모국, 나아가서 전지구촌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추가할 수 있을지의 그 가능성을 추정하여 우리회보는 유용한 정보의 결정체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회원독자들의 기대와 잠재력을 파악한 후 회보의 기능과 지면 구성, 그리고 운영전략 등에 반영하게 될 것이다.

첫째, 우리 신문 팀은 회원들의 전문성

기고 발굴과 게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늘어가기에 기대한다.

특히 전문성 기사를 발굴하려는 목적의 하나는 산업화에 성공했으나 국민의 의식과 사회의 제도적 기능이 이를 따르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는 모국에 재미 동문들이 기여할 것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母國이 빈곤국에서 개발된 국가로 30년 사이에 도약하는데는 미주 출신 과학기술자들의 공로가 있었으므로 가능했다.

그러나 그 급격한 경제 발전에 사회개발이 같은 속도로 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모국은 다시 고통 속에 있다.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조명하고 해답을 제시하는데 한줄기 기능을 재미 동창들이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회보가 그 매개체 역할을 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

그것은 전문 지식을 쌓은 수다한 재미 동창들의 삶의 절정을 충실 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미주 동창회보는 모교의 약진적인 변모에 기여할 것도 우리는 기대해 본다.

한국의 최우수 전문교육기관이라고 많은 동문들이 자부하는 모교는 세계의 우수한 대학들의 대열에서 멀리 뒤떨어져 있다. 그 원인은 재원의 뒷받침보다도 대학경영 전문가가 아닌 경선 투표로 선출된 학자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경영하며 일관된 정책지식이 결여된 정부의 통제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 방면에도 재미동창들이 신선한 충격을 가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으며 그 매개 역할을 동창회보가 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우리 재미 1세 동문들의 지식과 경험과 무형적 자산은 차세대, 즉 우리의 자녀들과 모국에서 유학 오는 후배들에게 공유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회생물학적 순리이다.

차세대의 잠재력, 그들의 포부와 1세대에게 거는 기대, 그들이 갈망하면서 스스로 완결하는데 겪는 어려움 등을 1세대 동문들의 교류의 장에 함께 등장시킴으로써 두 세대는 상호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기대에서 우리 신문 팀은 후배들과 자녀들의 개인적인 성취를 소개하고 그들이 성공적으로 가정을 이루어 복지를 누리며 재미 한인사회와 모국의 장래에도 우리 세대를 이어 기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과 결실을 서울대 동문들의 세계 안에 한계 밖으로도 연장해야 할 것이다. 동문들간의 결속만 다짐하며 배타적 엘리트즘으로 빠지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인재들을 키운 모교의 설립취지를 망각하는 일이다.

또한 미주에 어떤 사연으로 정착했든지 우리와 피땀을 같이해 온 우리 세대의 일

반 교민과도 공동 분담하고 그 결과도 공동 향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우리 신문 팀은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희망과 열정을 말하는 "우리 신문 팀"이란, 앞서 책임을 맡았던 선배 실무진에 비해 유별난 특공분대가 결코 아니다. 단지 앞선 분들의 경험과 실적을 연장하려는 책임을 느끼는 소수일 뿐이다.

이 소수인 신문 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겨울 잔디밭의 불처럼 스스로서 만든 오래 탈 수 없는 불씨일 뿐이다. 이 공동 목적의식에 감응하여 개인의 지식과 재능, 혹은 물질적이거나 무형적인 자원의 한 부분을 나누어 투입하겠다는 동문들의 수에 비례해서 이 기대하는 열매의 빛과 향취와 맛과 영양가는 달라질 것이다.

어느 조직이든 초기에는 독지가들의 헌신적 참여없이 시작할 수 없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동문회 조직 운영을 독지가에게만 의존할 수도 없다. 그런 개인들의 희생적 부담은 지속되기 어려우며 일반 회원들의 참여의식의 확보없이 재미동창회의 새 강기를 여는 일도 동창회의跳槽도 기대할 수 없다.

우리의 속담에 "종이 한 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다.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어 미주 동창회원 명부에 있는 회원의 3분의 1이 매년 회보 비용을 부담한다면, 유료 구독자가 현재의 두 배로 늘어 회보발간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위에서 펼쳐본 동창회보 도약에 관한 기대도, 오로지 회원들이 회보를 통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입력함으로써, 즉 동문들의 취미생활, 문학과 예술활동 등 개인 주변의 일상사와, 지역 동문들의 소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전문성있는 정보에 이르는 제보와 기고 등이 실린다면, 그 종잇장을 함께 들어 올려 단견하여 펼쳐 보이는 일의 시월이다.

7천명 동문 독자들이 각기 자원하여 정보원의 발굴자, 집필자, 회보 제작의 자문이라는 의식에서 역할을 분담하며 신문 팀과 막힘 없이 교류할 때, 동창회보는 기대하는 바를 달성하게 되며 또 새로운 기대를 도출하여 원대한 비전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결과는 모든 회원들이 회보에 대해, 각자가 주인이라는 긍지와 자아 발전의 한 수단이라는 실천적 관심으로 공조함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다.

우리 신문 팀은 그러한 결과를 일방적으로 미리 약속하거나 다짐할 능력을 갖지는 못했다.

다만 이 모든 구상들은 동문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기여로써만이 가능할 것임을 조망하며 기대함으로써 새 출발을 하고자 한다.

<2면 임원회의서 계속>

李회장은 지역동창회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하여 지역동창회 순방계획을 발표하였는데, 9월 29일에는 하트랜드 지역동창회를 방문하며, 동남부지역동창회의 결성준비를 10월 중순경에 순방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지역동창회와 연락 및 준비사항을 장기남(섭외국장)동문이 점검하기로 하였다.

임원회의에 이어서, 제 1차 신문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려, 전 미주 동창회의 동문들의 교류의 매개체인 재미서울대 동창회보가 8월 1일부터 시카고에서 발간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준비해온 사항들을 점검하였고, 이를 위하여 발간되는 16면 타블로이드로 제작된 시험판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재미동창회보 시카고판을 보다 다양한 내용들로 체계적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3부(제 1부. 총동창회 사업 및 활동의 공지사항판, 제 2부는 동문 및 전문적 식견을 가진 외부기고자들의 글을 모은 문필과 논고의 장이며, 제 3부는 각 지역에 산재한 개별동문들과 지역동창회의 소식들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수록함)로 분류하여 편집함으로써, 다양한 동문들의 동창회보에 대한 기대와 독서경향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방향으로 제작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을 모았다.

회보편집인(김정수동문)이 제안한 제 2부의 지면을 대표하는 이름인 "The Great Lakes Journal" (江湖諸賢의 文筆과 論考의 場)에 대하여는 보다 포용적인 동문들의 기고 지면이 되기 위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이윤모 및 한재은 동문), 전 미주 동문들의 대체적인 제안을 기다리기로 의견을 모으고 당분간 3부로의 구분편집하기로 결정하였다.

각 지역 동창회의 활동사항과 개별동문들의 동정을 내용있고 풍부하게 보도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지역동창회를 특집으로 하여 순방하자는 제안이 있었고(구경회 사무총장), 참석자들은 이에 동의를 표하였다.

신문운영위원회의 회의가 끝난후 참석하신 임원 및 동문들의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들과 정호동문 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써 Potluck으로 회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저녁식사가 있었고, 식사후에는 정호동문의 부인(정명희 교수, University of Wisconsin at White Water)이 연주한 피아노의 선율이 장시간의 토론의 끝을 和音으로 이끌었다.

<회의참석자> 이윤락회장, 구경회 사무총장, 박영규감사, 정호출판국장, 장기남섭외국장, 김현욱재무국장, 한재은 시카고 지역동창회 차기회장, 이윤모는섭외위원, 신석균실행편집위원, 홍해례/김정수편집인 (송순영관악후원회 부회장, 김정주총무국장, 조대현 시카고지역 동창회장, 이승자실행편집위원께서는 다른일정과의 중복으로 참석치 못하였음)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에 바람

이 기억 <47년 문리대 졸업>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사무국을 New York에서 Chicago로 이전하는 기회에 이 사업의 획기적인 개혁과 아울러 활성화를 기대 요망한다.

총동창회는 창립 이래 본래의 목적달성과 발전을 위하여 회장과 임원들이 수년간 수고하여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성공한 것을 대성 치하한다.

총동창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그 후생복지의 증진을 도모 추진하는 동시에 모교발전에 협조 기여하도록 전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충분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며, 그 목적을 위하여 회장 및 임원과 회원이 대동 단결해서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동창회는 모교 발전계획을 방관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년 전 조완규 전 총장이 "동창에게 고한다"는 논설을 동창회보에 발표하여 모교 발전에 대한 동창들의 적극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또 최주호 전 회장도, 동창회보에 발표한 일본 동경대학 방문 시찰기에서 모교와 동경대학을 비교하여 각성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모교가 개교한지 반세기가 넘었으니 이제 세계 일류대학의 서열에 들어야 마땅할 것이다. 지금 모교에서는 세계 40개 대학중의 하나가 될 것을 지향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참으로 가

상할 만한 목표라고 생각된다. 물론 미국만 해도 큰 대학이 40개가 될 것이며, 서구나 일본 중국 등의 일류대학을 합하면 40번째 권에 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짐작된다.

이는 5共때 한국이 개발선진 7대 국회의의 회원국이 될 것을 목표로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한 것과 흡사한 느낌이다.

지난 3월 20일자 동아일보는 社說인 "서울대학의 위기, 교육의 위기"에서 모교의 실패한 일면을 기술한 바 있었다. 즉 모교의 발전계획에 이상이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대학 교수 채용의 선호조건이 영어로 강의 능력이 있고, 또 장래 외국인 교수 다수를 채용하여 모교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한다는 것이다.

또 이는 외국인 학생 유치의 방안의 일환인 듯 하다.

그러나 영어 사용은 진리습득 전달의 한 방법일 뿐이며, 한국어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우수한 자국 학생을 양성하는 것이 모교의 교육 목적의 근본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일부 지방대학에서는 학생 정원을 채우기 위하여 외국학생을 유치한다는데, 외국인 교수채용의 경우에도, 그 소기의 목적달성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BK 21案을 추진할 때, 당시 교육부 장관이, 그 후에 자기 모교의



대학에 귀임하여 총장이 다시 되었을 때, 학생들로부터 배적받았다는 웃지 못할 사건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신학기에 "선진국의 교육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적용 실시한다고 하는데, 나는 가장 선진국의 하나인 미국에도 합의가 표출된 가장 적합한 교육 모델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대학은 학문을 가르치고 자유롭게 진리 탐구하는 곳이다. 미국 대학에서 외치는 학문의 자유(Academic Freedom)와 종신교수(Tenure)제도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는, 여러 동문들이 적극 참여하여 토론할 의무와 책임과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서울대학교 총 동창회가 새로 출발하는 시점에서, 동창회보와 동창회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동문들이 서로 토론하고 서로 조언할 수 있는 기회와 문화를 함양할 수 있도록 총 동창회 본부가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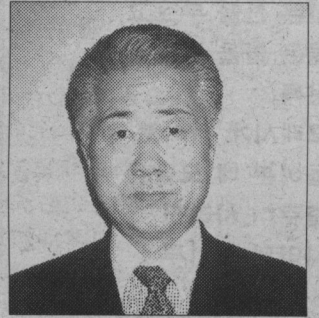
동창회보 시카고 발간에 즈음하여

서승환 <61년 치과대학 졸업·치과의사>

同窓會紙를 시카고에서 發刊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生覺합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新印刷術을 구비한 中央日報社에서 이를 출판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美洲版 同窓會紙가 百科辭典의 한 면을 보는 듯이 훌륭한 紙面을 구성하여, 우리 同窓 貴한 先輩님들과 後輩님들의 학문과 知識과 智慧를 發揮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寶貨를 아낌없이 살려서 이 偉大한 美國發展에 이바지하며 앞으로 다가오는 새 千年 時代에 한 알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는 役割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으로 지난날을 생각하면 가슴 뿌듯하게 하는 것은, 고이에게 한 나라를 물려줘서 강력한 四方나라에 바치지 아니하고 六百年이란 기간동안 이 地球歷史上 由來가 없는 것이죠. 아! 위대한 우리 조상들이 아니겠어요.

행여라도 조상들을 흠집 잡지 말고 후손들에게 위대한 "道"와 글을 배워서 행동으로 옮기고 마음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敎訓(賢明君子 體



而行之)을 새기면서, 우리 모두 새 千年의 主人이 됩시다. 여기에 李朝 明宗朝에 쓰여 四百五十年 뒤에 發見된 우리 祖上의 豫言의 一片을 紹介하면서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鷄鳴聲

三鳥之聲 들어온다 잠깨어라 役事하세. 鳥鳴聲數數聲에 일할 生覺 걱정이다. 玄武鳥初聲 時에 鳥頭白이 未容髮이요 靑龍馬再鳴하니 江川留支 壯觀이다. 朱雀之鳥三次鳴에 昏衡長夜開東來라 鷄鳴無時未久開 日竿三되었네 夢覺時라 인민들이 農事일이 不失하여야하니 日語 저저 田耕하고 英學하게 播種하고 支學하세 除草하여 霜雪時에 秋收하소 馬枋兒技 나오신다 蔑視 말고 잘 모셔라. <남사고(南史古)의 격암유록(格庵遺錄)에서>

祝 發 展

在美서울大同窓會報의 發展을 祝賀하며, 모든 同門들은 새로운 會報를 기다립니다.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 고 문 박윤수(朴允洙)
- 강수상(姜洙祥)
- 이병준(李丙俊)
- 명예회장 오인석(吳仁錫)
- 6대 회장 이용락(李龍洛)
- 수석부회장 오흥조(吳興祚)
- 미주권역위원회 송순영(宋舜英)
- 사무총장 구경희(具璟會)
- 총무국장 김정주(金正周)
- 출판국장 정호(丁浩)
- 섭외국장 장기남(張基南)
- 감사 박영규(朴泳圭), 김재영

<전국평의회>

의원 66명 (명예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미주권역후원회 부회장 - 김용학, 김기태, 각지역 회장, 차기회장, 선출직의 명단은 지역동창회란 참조)

<인선위원회>

박윤수, 강수상, 이병준, 오인석, 이용락, 오흥조

<편집위원회>

오흥조, 방석훈, 이재덕, 이진구, 백 순, 박경민, 소진문, 구경회(총무)

<종신이사>

이병준, 이세열, 박병기, 이기영, 이진구, 정 태, 강영빈, 박경민, 오흥조, 심상은, 오인석, 이청광, 이교락, 윤선홍, 서영석, 방은호

<백만불기금 위원회>

방은호, 윤정옥, 이병준, 오인석(위원장), 김병수, 임낙균, 이용락(총동창회장)

<기타지역 백만불기금 후원회>

이희백, 한광수

음악에게

이소정

<음대 88년졸, Ph D., Illinois Judson College 조교수>

너는
넘어야 할 산
건너야 할 물
산은 산을 부르고
물은 물을 낳는데
문득
모래시계 너머로
돌아본 네 모습은
춤추다 사라진
사막의 신기루

너는 또한
완성하고픈 상아궁
그 속에 조각될
순금의 이상
그러나
기다려도 숨쉬지 않는
너에게
나의 기원은
날리는 흙먼지가 되고,

너는 날마다
흔들리는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
슬잔
비워지고 채워지는
무형의 환상들
울음과 웃음을
함께 마셔
걸을 힘을 얻는가.



너는 때때로
유리 선물 상자
추억을 담으면 보랏빛
소원을 담으면 초록빛
사랑을 담으면
아
부서진 마음을 담으면.

너는 내게
영원히 아름다운 옥합
내 모습 태워져서
네 안에 채워지면
우리
이 들판을 에우는
향기 진한 바람되어
추수의 낮에
기쁨을 입히고
저녁 종 울리면
동산에 올라
재 아닌 별로
환히 빛나리.

호랑할머니

황진수 <김용우 동문(공대·1962졸업) 부인>

“할머니! 손가락을 꼽아가며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세어보세요.”

다 큰 처녀가 된 후에도 나는 가끔씩 팔십이 넘으신 나의 외할머니를 웃길 수 있다는 게 즐겁기만 했다. 할머니의 새끼손가락은 그 허다한 세월을 끌고 있는 우리 집 살림살이와 우리 형제들의 뒤치다꺼리를 사시는 동안 맨 끝마디가 구부릴 수가 없게 뻣어져 있었다.

“할머니, 암만 해도 할머니 손가락은 넷까지밖에 셀 수가 없네요.”

할머니는 여기서 더 이상 웃음을 참을 수가 없다는 듯이 입을 손등으로 가리고 웃으신다. 흐흐-흠 하며....

“할머니 턱에 웬 수염 하나가 이렇게 길게 났지요? 웬지! 우리 할머니는 호랑 할머니이니까 호랑이 수염이 턱에도 난 게지요?” 하하하. 할머니도 나를 따라서 웃으셨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낮에 집을 비우셨고 집안 살림과 우리들의 양육은 할머니 몫이 되었다. 할머니는 그의 유난히도 정결한 성격 때문에 한결 힘들 수밖에 없는 살림살이와 분주한 교회 활동을 하시면서 서도 틈나는 대로 맛있는 서울 음식을 만들어서 이웃에 사는 여러 사람들을 대접하곤 하셨다. 그럴 때면 우리 집 당 안으로 들어서는 손님마다 “어머니! 이 대청마루는 어쩔 이렇게 노랗고 반질반질하지?” 하며 탄성을 발하기가 일쑤였다. 반질반질한 것이 고

작 대청 마루 뿐이라. 부엌의 솥뚜껑이며 부뚜막. 그리고 안방에 깔린 장판, 어디나 할머니 손이 닿은 곳마다 윤이 나고 반질거렸다.

할머니는 우리들에게 늘 엄하셨지만 정작 ‘호랑 할머니’란 별명은 동네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께 붙인 것이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나의 발걸음은 종종 무겁기만 했다. 엄마가 아직 안 오신 시간에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였다. 집에 가면 할머니가 “너 아무 개야! 발 깨끗이 씻고 대청에 올라가라. 그리고 대청마루를 물걸레로 깨끗이 청소해라. 콩나물도 다듬어라! 일 안하는 사람은 밥 먹지 말아야 한다!” 이런 불호령 때문에 나는 다른 애들처럼 밖에 나가 놀거나 학교에서 준 숙제를 일찍 할 수도 없이 할머니를 도와서 집안 일부터 해야만 했다. 그때 만일 우리가 할머니 말씀을 거역하면 필경 우리는 광속에 오랫동안 갇히거나 밥을 굶는 벌을 받기 때문에 할머니 말을 안 듣는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겨울이 오고 긴 겨울방학이 되어도 할머니의 가정교육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그러나 호랑 할머니가 두려워서 바느질하시는 할머니 곁에 앉아서 저고리 동정 다는 법이며 예쁜 천으로 골무를 만들거나 옷에다는 노리개 만드는 법을 배워야 했다. 여자는 바느질하는 법과 살림살이하는 법을 필히 익혀야 한다는 것이 할머니의 지론이기 때문이다. 간혹 내가 해 놓은 바느집에

할머니 눈에 안 들면 할머니는 제대로 될 때까지 뜯고 고치는 일을 되풀이하도록 하셨다. 이런 내 사정을 동네 아이들이 모를 리가 없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그런 우리 할머니를 어려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존경해 마지않는 눈치였다.

세월이 흘러서 할머니의 연세가 많아지고 우리들은 말처럼 큰 처녀가 되었다. 자연히 할머니는 체력도 많이 줄어들고 그분의 대외성이 같은 성격도 차츰 누그러졌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계절에 맞추어 장단을 때가 되면 손수 메주를 쑤어서 장을 담으시고 김장철이 오면 무 배추를 산더미만큼 사다 마당 한구석에 쌓아놓고 우리 식구의 김장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에게 맛보기로 보내줄 것까지 그 많은 김장을 모두 담그시는 것이었다. 그때 할머니가 플라주신 커다란 배추 꼬랑이 맛은 지금까지도 그리운 고향의 맛으로 내 가슴속 깊이 남아 있다. <7면에 계속>

◇ 필자 황진수(Munster IN 소아과 개업의)씨는 1964년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동년 도미하여 Phila General Hospital에서 소아과 수련의 과정을 밟았다. 1967년 서울공대 동문 김용우(1962년 졸업, Univ of Penn Ph.D) 와 결혼하여 슬하에 두 남매를 두고 있다. 근래에 시카고에 있는 Garrett 신학교에서 신학석사(1995년, MTS)를 받았다. 이 수필을 회보에 게재토록 추천하신 송순영 실행편집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祝 發 展

在美서울大 총동창회와 在美서울大同窓會報의 發展을 祝賀하며, 모든 同門들은
알차고 격조있는 會報를 기다립니다.

워싱턴 DC 지역 동창회

회 장: 문성길
차기회장: 진금섭 평 의 원: 방은호, 박 흥, 백 순

<백만불 기금회원>

박윤수, 박용걸, 오인환, 김창호, 장병균, 이선명, 방은호, 이규섭

<2000. 7. 1 ~ 2001.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방은호, 권철수, 이태영, 문성길, 진금섭, 박 흥, 나수섭, 오혜현, 김부근, 장효강, 주 일, 고무환, 오인환

<2001. 7. 1 ~ 2002.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박윤수

서울대를 평준화하려는 자세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이 글은 김재순(金在淳) 서울대 총동창회장의 월간조선 금년 7월호에 수록된 기저와의 대담 기사를 임이섭동문(미대 59졸)이 간추려 정리한 것임. 월간조선의 필자인 이홍(李泓)기자는 월간조선 6월호에 실린 서울대 위기론의 필자임. 본국에서 있는 서울대 개혁 방향에 관한 논쟁과 관련하여 동문들의 일독을 권한다. 또한 재미동창회보에 편집되는 서울대 개혁방향에 대한 재미동문들의 의견을 담은 많은 투고가 있기를 바라며, 또한 김재순(金在淳)동문의 견해에 대한 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며, 편집지는 이를 재미동창회보의 논단에 수록하여, 서울대 개혁론에 관한 재미동문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원문소재는 월간조선 2001년 7월호 253-59면이며, 편집지는 월간조선 이홍기자에게 감사드립니다)
〈편집지주〉

김재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 상대 46년 입학>

여명 중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여론을 장악하고 있는 언론계의 간부급에서도 과반수를 훨씬 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대에 우수한 인적자원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면서도 전체 한국대학 졸업자의 0.5% ~ 0.6% 정도 밖에 안 되는 서울대 출신이 한 국가의 핵심자리를 독식하는 현상에 대한 거부감을 증가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판은 1990년 후반부터 서울대 폐교론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국민대 김동훈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학벌과 학연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를 통탄하면서 "서울대 신화는 아직 관존민비적인 봉건적 사고에서 수도 소재의 국가 직영 대학이라는 조건에 의한 지위의 先占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가 독점 관리하의 입시제도가 성적 최상위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서 나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모임" (약칭 학사모)이라는 조직이 형성되어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토론과 논의가 열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하면 서울대 내에서도 교수들을 중심으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5월말에는 인문대등 기초과학분야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기준 총장의 지도방식에 반기를 들고나섰고 사범대 교수들도 가세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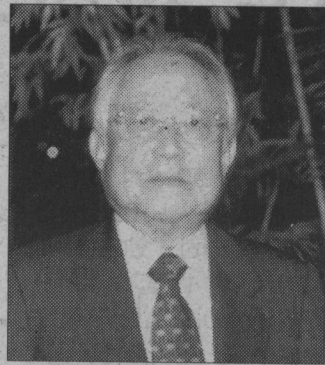
내부 동요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서울대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서울대 교수들의 위기의식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서울대의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이 전체교수의 8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서울대 안팎으로 걸친 동요 때문에 서울대 동문들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으며 현재의 상황이 서울대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을 위기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와 같은 분위기가 지속 될 경우에 장기적으로는 서울대의 침체와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7년 넘게 총동창회장으로 동문들의 존경과 흠모를 받으며 열심히 일하시는 김재순 회장의 견해를 들어 본 것이다.

2. 김재순 회장의 "서울대 위기론"에 대한 견해

<서울대 출신의 한국사회 독주에 대하여 >

어느 나라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학교가 있게 마련이다. 미국은 하버드를 중심으로 아이비리그와 스탠퍼드등이 있고 영국은 옥스퍼드와 케임 브리지가 있고, 일본도 동경대, 경도대와 와세다대등 여러 명문 대학이 있다. 한국에선 서울대가 독주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서울대를 비판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상황



이 나왔는지 교육전반에 걸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서울대 위기론"에 대하여 >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그의 취임연설에서 "영국의 문제는 하나도 교육이고,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이라고 했다. 일본 역시 "교육 정책 국민회의"의 구성하여 "21세기 교육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지난해 마련하여 총리에게 보고한 상황이다. 미국도 부시 정권이 들어선 후 교육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 각국에서도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공통적 현상이다.

서울대 위기론은 이런 교육에 대한 비전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서울대부터 제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본다. 그동안 서울대가 해야 할 구실을 제대로 해왔는지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볼 때이다.

그러나 교육 정책 당국이 비전을 갖지 못한 채 표류하면서 서울대의 立地만 계속 약화시켰다는데 문제가 있다.

<16면에 계속>

<6면 호랑할머니서 계속>

연세가 더할수록 할머니가 전보다 좀 달라진 점은 근엄하기만 하고 전혀 웃음이 없던 얼굴에서 가끔씩 웃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것도 우리들이 웃기는 소리를 하면 할머니는 그의 엄한 얼굴표정을 흐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다가 할 수 없이 참지 못하고 웃는 야릇하고 재미있는 웃음이었다.

내가 도미하고 일년이 좀 지나서 서울 집으로부터 호랑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내가 늘 높은 산처럼 바라보며 살던 할머니가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다는 소식이 나를 아주 슬프게 했다. 생각해 보면 나의 삶에 간직된 모든 기본원칙은 거의 다 할머니가 들려주고 보여주신 것들이었다. 근면하고 철저하고 정직하게 사시고 엄격하면서도 한편 마음속 깊은 곳을 흐르는 은은한 사랑을 지니고 우리를 키우셨던 나의 할머니는 내가 도미하고 없는 동안 점점 더 병약해지셔서 말년에는 방안에서 많은 시간을 성경책 읽고 당신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소천하셨다고 한다.

며칠 전 나는 잔주름이 하나씩 늘어가는 내 얼굴을 눈여겨보다가 턱밑에 솟털 사이에 유별나게 빼쪽 나온 검고 긴 수염 하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 이건 호랑 할머니의 턱수염이 아닌가 말이다. 나도 장차 호랑 할머니가 되려나?

애 할머니가 정녕 보고싶다.
< 신인상 당선작, 한국수필 2001년 3/4월호 163-6면에서 전재 >

祝 發 展

在美서울大 총동창회와 在美서울大同窓會報의 發展을 祝賀하며, 모든 同門들은
알차고 있는 會報를 기다립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동창회

회 장 김은중

<백만불 기금후원>
김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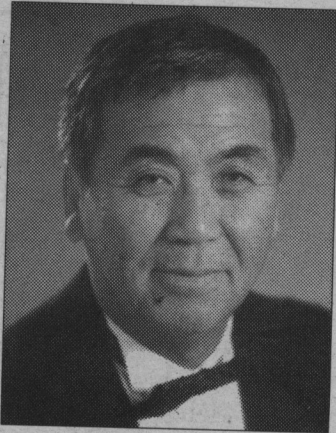
평 의 원 정지선, 임승쾌

<2000. 7. 1 ~ 2001.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정유석, 윤두섭, 심영춘

<2001. 7. 1 ~ 2002.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에베레스트 정상에의 盲人

정정수 <의대 62년 졸업, 하위외과대학 임상교수>



전세계의 인구중에서 1% 밖에 안 되는 美國이 세계 에너지의 20%를 쓰고, 지구를 온상으로 만들면서, 도로의 반 이상이 큰 스포츠 유틸리티 차가 메우고, 지뢰협정, 교포 대기오염 방지협정에 반대하고, 탄도물의 공격을 방위하는 방위미사일체제 구축을 위해, 北韓과 이라크등의 국가 위협을 들면서 큰 돈을 쓰려고 한다. 이 지구를 몇 번 파괴하고도 남을 핵탄도탄들이 미국과 소련의 평야, 항공모함, 잠수함 등에서 녹아 들어 있는데도, 중국, 인도 및 파키스탄 등에서는 정신없이 새로 만들고 있다. 수백만의 지구상의 인구가 AIDS로, 내란으로, 흉년으로 굶어죽고 있는데도, 강대국들의 무기판매수입은 해마다 늘고 있고, 약소국들은 내란으로 국민들은 굶어죽는데 무기 사들이기에 광분하고 있다.

우리는 요즘도 태생의 장애를 딛고 일어난 인간 승리의 역사를 가끔 접하게 된다.

ERIC WEIHENMAYER(33살)라는 맹인이 에베레스트산의 정상을 올랐다는 특집이 TIME紙의 표지를 장식했었다. 13살 때失明하고도 자기의 불구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레슬링에 열중하여 고등학교 아이오주의 고등학교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제패했다.

다음은 암벽등반에 열중했다. 맹인 특유의 손과 몸의 발달된 감각으로 바위틈새와 다음 못 박을 곳들을, 레슬링 선수가 상대 다음동작을 미리 감지하듯이 잘 알아내어 험난한 YOSEMITE의 EL CAPTAIN 절벽을 오른 조장이 되었다.

알라스카의 다날리 맥킨리산, 아프리카의 KILIMANJARO, 알젠틴의 ACONCAGUA 산을 정복하고, 이번에는 드디어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해서 미국 맹인 협회에서는 HELEN KELLER는 100년전에 살았던 맹인의 영웅이지만, ERIC은 오늘날의 현대 맹인의 영웅이라고 칭찬했다.

또, 내가 지금 개업하고 있는 병원에 살레노 박사라는 맹인의사가 있는데, 그는 의과대학때에 약성당뇨병으로失明하고서도 "못하는 것보다도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는 일생의 집념으로써 精進하여 우리병원의 노인 내과가 전국제일의 우수전문의과로 몇 년째 상을

받고있는데 기여하였으며, 살레노 박사는 주지사등 각 곳으로부터 무수한 상을 수상하고 있다.

20세기 초의 西洋의 철학자 WHITEHEAD는 人間의 理性(REASON)을 서구의 계몽주의의 허상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사변이성과 실천이성의 연계 속에서 욕망(APPETITION)이라는 몸의 충동 속에서 재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우주밖에 인간의 몸 밖에 매달려 있던 理性을 몸 안으로 끌어들이 理性이 몸 속으로부터 자내적으로 출현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한다.

인간은 생겨날 때부터 우리 피부가 둘러싸고 있는 인간 난로 속에서 외부의 온도차이와 저항하면서 서서히 생물 반응 연소를 통해서 일정 체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열역학적 법칙을 거부해보려는 생물체이므로, 그 언젠가는 이 기계의 고장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는 한 방울의 잉크를 병 속에 떨어뜨렸을 때 처음에는 잉크방울이 서서히 흩어지다가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어 간다는 법칙(ENTROPY)에 비유된다. 즉 熱은 언젠까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되어간다. 이러한 熱力學的 현상인 THERMO-DILUTION이란 무엇일까? 이는 단순한 자연법칙에 순응하면 죽음이요. 섭씨 36.5도의 체온이 저항을 포기하고 주위대기의 온도와 같아질 때 물리적인 죽음이 오는 것이다. 종교란 인간 삶의 본체에 영원

히 내재되어있는 이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물리적 죽음의 不安을 승화하고 순화하고 永生으로 바꾸려고 한 노력들이고, 인류두뇌의 무게가 늘어나면서 理性이라는 두뇌현상이 생겼을 때부터 해 온 끊임없는 노력들의 많은 사례들을 文明史에서 보고 있다.

種의 기원론을 부르짖었던 CHARLES DARWIN에 의하면, 모든 생물체는 억만년 전에 단세포가 구성되어 200만년 전에 直立人間(HOMO ERECTUS), 약 10만년 전에 현대인의 조상(HOMO SAPIENS) 까지 진화되어 왔다고 한다.

종교의 힘을 빌은 新創造論者들은, 절대로 아메바나 바퀴동물이 인간진화의 중간단계가 아니고, 人間은 하느님이 人間으로 처음부터 새로 창조해내서 萬物을 다스리게 했다고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해서 순화강연을 하고 있다. 교과서에도 進化論대신 創造論을 가르쳐야 한다고 정치적 법정투쟁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또 철학자 WHITEHEAD는 이러한 어떤 생물체의 두뇌세포가 늘어나서 단순히 생존을 유지하다가 열역학적 현상인 THERMO-DILUTION에 굴복해서 고장이 가속화되어 주위의 대기온도와 같아지는 물리적인 죽음을 맞는 생물체의 숙명적인 반복리듬에 피로와 권태를 느끼기 시작하여, 上向의 리듬으로 역행하려는 노력, 연어가 다음세대를 산란하는 장소를

찾아 그 험한 역류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정신현상도 理性이라고 규정한다.

또, 理性은 새것을 강조하고 단순한 존재의 자체를 넘어서서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정신현상이다.

또, 理性은 욕망을 조절하는 욕망이다 (REASON IS APPE-TITION OF APPETITION). 위의 上向적인 이성의 좋은 본보기로서, 위기를 치달리고 있는 지구푸른구슬들의 문제를 어떻게 上向적으로 끌어올려 파멸을 면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과학과 기술이 결합하여 지난 200년 현대사에는 무섭고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루하루 편리하고 크고 좋은 기구와 기계가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많은 유아 사망률은 줄어들고, 양로원은 치매병 환자로 만원을 이루고 있고, 현대 주택들은 푸른 농장을 허물어 파헤치고 성냥갑들처럼 들어선다.

하여 이 편리하고 좋은 것들을 추구하려고 동분서주하는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가, 스트레스에 시달려 행복보다 불안조조와 같은 정신병에 시달린다.

지구 化石을 보면 바퀴벌레는 수 억만년을 지구의 터주대감 행세를 해왔고, 공룡도 2억 년 동안 살다가 멸망했다. 이제 겨우 10만년의 역사를 가지고도 하늘같이 큰 자존심과 자만심과 교만심으로 가득 찬 人間들은 터주대감인 바퀴벌레를 영원히 지구상에서 회원권을 뺏어버리겠다고 오만을 피우는가 하면, 2억 년을 잘 살다가 간공룡의 멸망을 두고 알가알부하고 있다.

禱이란 무엇인가? 언젠가 읽은 누군가의 책에서 읽은 한 구절을 인용한다. 그것은 停滯를 거부하는 끊임없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요. 이성의 오만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이요. 초월의 고매한 精神이 저지르기 쉬운 허구에 대한 반역이다.

<9면에 계속>

祝 發 展

在美서울大 總동창회와 在美서울大同窓會報의 發展을 祝賀하며, 모든 同門들은
알차고 격조있는 會報를 기다립니다.

중부 펜실바니아 지역 동창회

회 장 : 이수경
차기회장 : 송재훈

<백만불 기금회 원>

<2000. 7. 1 ~ 2001.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강석찬

<2001. 7. 1 ~ 2002.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민중자유화(自由化) 역사와 방해 조건들

유희길 <고대 68년 추, Ph. D, MD>

현재 과학자들은 고고학적 증거로 추정하기를 현대인(Homo sapiens)은 적어도 이 지구상에 10 만년 이상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언어로 확실하게 기록된 인간 역사는 약 5000-7000 년 정도밖에 안 된다.

언어로 기술된 가장 오래된 청동기 인간 문명권을 든다면, 아마도 이집트, 유대인, 메소포타미아, 황해 연변의 중국등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동물계와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인간은 서로간의 관계와 사회성을 가장 중요시했고, 서로 경쟁하면서도 서로 돕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단결하는 문화 형태를 조성했다는 점이다.

이런 극단적인 사회와 개인의 갈등 속에 살아가면서, 적어도 지난 수 천년동안 지배자와 피지배자 또한 부유층과 가난한 층 사이에 끊임없는 피나는 투쟁이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인간의 역사는 거시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사회적인 안전과 협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가운데서 그 成員의 個人의 自由와 人間으로서의 기본권(Fundamental Human Rights and Needs)의 증진을 위해서 전진해온 살아있는 실험실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인류의 역사적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18 가지를 든다면 그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으리라.

- 1) 함무라비 법전 성문화, 2) 유대인의 유일신(唯一神) 사상 및 노예 해방 체험, 3) 희랍의 논리적 철학과 민주 사상, 4) 예수의 희생적 사랑 실천과 이방인간에 대한 화해정신, 5) 로마 제국의 정치적 문화적 제도 발전, 6) 영국의 지속적 대의 정치체제, 7) 네덜란드의 해상 상업 활동, 8) 문예부흥(Renaissance)과 종교개혁 운동(Reformation), 9) 산업혁명과 자동화, 10) 미국의 독립 선언, 11) 불란서 혁명, 12) 미국 남북전쟁과 농예해방, 13) 사회주의/공산주의 민주혁명 사상 자체 (역사적인 제도로서가 아니고), 14) 세계 제 2 차 전쟁과 독재에서 정권 파탄, 15) 미국의 1960년대의 Martin Luther King이 주도한 시민권 운동(Civil Rights Movement), 16) 석가모니의 해탈 사상의 재발견, 17) 19-20 세기의 자연과학 발전과 유전인자학 발전과 생명 복제 성공, 18) 電算化와 Internet 通信網의 발전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몇 가지의 잘 알려지고 기록된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신들의 개인 권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민주화와 자유화 운동을 위해서 투쟁했던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우리 선조 인간 투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짧은 삶을 통하여, 극히 조그마한 사회

적 변화나 기존 사상에 변화를 미소하게 가져다주었고 그저 이름 없이 사라져 갔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역사는 어떤 때는 후퇴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옆길로 잘못 갈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사람들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모두 역사라는 큰 강의 흐름에 다같이 합류하여, 종국적으로는 21세기를 민중적 사회적 선(善)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가장 풍부하게 확보된 자유시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덕택에 장애자와 돈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서럽게 지내던 우리 한국인도, 수 천년간 외톨이로 살던 유대인도, 노예로 짓밟히면서 살아왔던 흑인도, 다 같이 풍부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이젠 그 덕택에 우리 사람뿐이 아니고 동물들까지 “개” 까지도 “개”로서의 당당한 권익과 존엄을 취득하게 된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아직도 많은 反市民, 反自由, 反民衆의 사상이 허다하고 강하게 우리를 휩싸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집불통, 고정개념, 잘 못된 습관, 부조리에 찬 사회 제도, 미신적인 종교, 결핍된 인간성과 폭발적 행동, 과도한 욕심, 권력 남용, 조직 자체에 몰두하는 군대와 경찰, 게으름, 빈곤(貧困), 무지(無知), 편견, 집투, 정신 병, 등이 아직도 우리를 자유에서 속박하려 한다.



그러나 “죄 만”을 고백하려는 종교 체제, 물질적인 평균 분배만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물질 만능만을 극도로 주장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사상, 강압적인 사회 제도, 미신적이거나 정신병자와 같은 愚信者 등은, 현대에 존재하는 “인본적인 민중 자유”의 실현에 가장 무서운 방해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는 인간의 자유화를 위해 노력해온 많은 선배들을 다는 기억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즐기는 자유의 원천이 정말 깊고 오랜 많은 희생의 역사적 결과였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다.

우리 아직도 많은 일을 해야할 과제를 갖고 있다.

우리가 받은 자유의 역사적 유산을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더 넓고 고상하게 발전시키고 확장시킨 다음, 우리들 후손들에게 그리고 이 지구촌에 살고있는 모든 인간과 생명체, 그리고 자연 자체에게 이런 유산을 흠 없이 잘 물려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진보적인 “민중자유” 운동과 적극적인 역사관 안에 하나님 의 참 뜻이 있지 않을까?

<8면 에베레스트서 계속>

열반의 꿈마저 거부하는 HAM-LET처럼, 이 땅의 현실을 저기 저 드높은 하늘의 푸르름으로 연결시키는 한 줄기의 은빛 실처럼, 끊임없이 인간을 高揚시키는 깨달음, 그 깨달음 자체인 것이다. 삶과 죽음의 二重奏에서 나오는 한 줄기의 승화된 깨달음에서 오는 생명찬가의 和音이다하여 파블로 카잘즈는 자기는 나이가 들수록 사물에 대해서 전보다 더욱 강렬하게 느끼며, 깊이 있게 인생을 관조해 가면서 매혹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우리 인류도 이 급박한 현대 세계의 위기를 제각기 더욱 강렬하게 느끼고 관조하고 상황적인 이성의 힘으로 정치인, 종교인, 과학자, 철학자와 일반세계 시민들이 협심하여 살기 좋은 앞으로 오랫동안 살만한 지구푸른구슬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自然을 정복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서양사상의 한계를 느끼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동양사상의 부흥이 하나의 도움되는 해결책인 지도 모르겠다.

근작 타임지에 뉴욕시의 켄즈킬 산맥에 禪불교의 사찰들이 굉장히 번성해서, 이대로 지구가 500년만 더 계속되면 켄즈킬산맥이 세계불교의 성지가 될 것이라고 하니 두고 볼 일이다.

여기 16세기의 宋純의 시조가 생각난다.

“십 년을 경영하여 초가 삼 칸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틀 일대 없으니 둘러보고 보리라.”

祝 發 展

在美서울大 총동창회와 在美서울大同窓會報의 發展을 祝賀하며, 모든 同門들은 알차고
적조있는 會報를 기다립니다.

필라델피아 지역 동창회

- 회 장 강영배
- 평 의 원 이해원
- 서중민
- 김용식
- 수석부회장 김용식
- 부 회 장 김국간
- 조영일
- 회 계 윤석희
- 총 무 주기복

<단과대학별 대표>
손재옥(가정대), 김금자(간호대), 정규병(공 대), 이신삼(농 대), 이지영(문리대), 엄종렬(미 대), 황규명(법 대)
강준철(사 대), 전방남(상 대), 김현영(수의대), 최유섭(약 대), 윤정나(음 대), 김용국(의 대), 오진석(치 대)

<백만불 기금회원>
서중민, 이정필, 정정수, 한혜원, 현재원, 정홍택, 강형진, 윤경숙, 정구영, 정정수

<2000. 7. 1 ~ 2001.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이만택, 김세경, 정구영, 정홍택, 강형진, 이신삼, 정정수, 이상봉, 한혜원, 현재원, 이정필

<2001. 7. 1 ~ 2002.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정정수

컴퓨터가 이사한 날

강영국 <67년 수의과대학 입학·현재 수의사>

어제(10월 9일, 2000년)는 큰 용기를 내어 집의 컴퓨터를 내 직장 사무실로 옮겼다. 그리고 보니 어제가 바로 한글날이기도 해서 몰랐던 의미를 새로이 가미할 만다 하다. 세종대왕은 선견지명이 있었기에 500년 뒤의 컴퓨터 세대를 가능하여 한글을 24자로 창제 하였음이라. 한글을 아는 사람은 영어의 26자 알파벳을 아는 사람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컴퓨터를 정복하리라 믿어진다. 그러나, 미국에 와서 오래 산 우리 세대는 영어 26자와 한글 24자를 모두 터득해야 하기 때문인지 컴퓨터 독해에는 굼벵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이민역사가 긴 사람일수록, 대부분이 영어 컴퓨터 사용능력은 같은 또래의 미국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고 또한 한글 컴퓨터 기술도 같은 또래의 한국 친구들에 비해 어눌하기 짝이 없는 듯하다. 어쨌거나 나이가 들어 추진력이 없다함이 그 이유가 될 법도 하지만, 이중언어 생활권의 어정쩡함이 예고 없이 들이닥친 컴퓨터혁명의 세대 현대사회에도 적응하기에 무척이나 어정쩡한 생활태도를 만든다. 활동 말동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컴퓨터 지식을 기어 이 익혀야 할 이유가 없기에 이 핑계 저 핑계하면서 몇 개월을 끌어오다 대대적인 집수리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는, 짐 하나라도 거추장스럽다고 눈치를 주는 아내의

등쌀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팔뚝에 힘 한 번 쓰는 셈치고 컴퓨터 덩어리들을 사무실 내 방으로 옮겼다.

그 보다 더 큰 이유는 집에서든 가물에 콩나듯 어찌다 한 번씩 컴퓨터 앞에 앉아 한글 워드 프로세서나 치다가 약간이라도 뭐가 제대로 안되면 아직도 집에 있는 늣둥이 작은 녀석에게 소리소리 질러 마치 그 녀석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곤 했는데..., 만약 내 사무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지우개로 지우고 새로 쓸 수 없는 것이 이 녀의 컴퓨터라,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살아야 할지 겁부터 나던 노처녀의 그 심경이었기에 핑거적 거림이 그 첫째 이유요, 그놈의 컴퓨터에 빨려들어 갔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귀가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 규칙적 생활에 불화가 생길까 함이 둘째 이유였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용단을 못내려 핑거적 거림이 그 셋째다. 정든 부모 형제와 집이 못내 아쉬워 시집을 가지 못하던 노처녀가 동생들의 순서에 떠밀려 눈물 머금고 시집을 가는 심정을 조금은 이해를 한 듯하다.

나이가 들어 꼬부라지고 주글어들은 노인들을 경로잔치에 모아 놓고 꼭 같은 제복을 입혀 놓으면 그 노인이 그 노인이라, 겉보기로는 어찌 그들이 젊은 시절에 힘차거나 장대했거나 왜소했던 품모의 차이를 가려 내리오? 누가 보든 래도 꼭 같이 갈 날이 멀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생각만 줄 다름이다. 그러나 아직도 내 나인 양 로원에 들어 있는 노인 쪽엔 설 수 없는, 부득이 동생들이 가는 시집이란 것을 쫓겨서라도 가야하는 형편의 나이인지라, 앉아서 컴퓨터 세대를 씹어 돌리지 말고 그들의 숨소리라도 이해를 하다 죽기 위해선 어려운 도전을 시도할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인터넷도 들어 있고 새 전화번호도 설치되어 있어 여태는 쓰지도 않으면서 전화비와 인터넷 비용을 매달 꼬박꼬박 물어내고 있었던 셈이다.

모든 것이 시작이 반이라지만 마라톤을 시작해서 숨소리 고르는 정도의 어려움이사 이력이 나 있지만 이놈의 컴퓨터는 수도 없이 주렁주렁 달린 줄들을 연결하는 것부터 공포로 시작해서 막상 전선이 켜졌는데도 커서인 마우스의 화살표가 화면 중간에서 '날 잡아 잡수소' 하고 닥 버티고 서서 탐비는 데는 학을 떼 셈이다. 마우스 두 개를 이리저리 움직이다 그 예민한 기계를 손으로 광채 쳐보기도 하고 (폼폼한 성질이 아닌 나는 대부분의 기계를 두들겨 고친다. 고쳐지거나 부서지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두들김의 결과는 아뵤튼 좋다. 가끔은 큰 손해가 나서 탈이간 하지만), 그러다가 화가 나서 전원을 콕 꺾다가 다시 켜더니 스크린에서는 정당한 순서를 밟지 않고 전원을 부당하게 켜니 소프트웨어가 상처가 났을 거라고 경고 사인이 올라붙어 사람



겁주고 있다.

다시 집에 전화를 해서 죄없는 작은 녀석에게 큰 죄를 뒤집어 쉬우며 한바탕 하고는 몇 시간 버틴 컴퓨터 매치에선 TKO로 패한 뒤, 결국 마우스 두 개를 뽑아 작은 녀석의 진단을 받기 위해 집으로 들고 가는 수밖에 없었다. 진단 결과는 마우스 자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이 작동을 잘 한다는 것이다.

그 녀석도 왜 화살표가 버티고 있는지에 대해선 잘 알 수가 없었다. "The computer doesn't like you, dad! Maybe, that's it"라고 또 한 번 예비의 기를 꺾어 놓는다.

기가 막힐 지경이지만 젊은 시절처럼 억척스레 늘어붙지 않고 "What the heck!" 오늘 안되면 내일이, 내일도 안되면 다음날 하고, 그래도 안되면 그만 뒤버리지 뭐, 컴퓨터 없이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것 몰라도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음은 글자 하나 몰라도 노인 경로잔치에 초대받아 하루 즐기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과 같지 않은가? 꼭 박사 학위 몇 개 가졌거나, 또 대기업의 사장이나 대의원 관록에 올랐던 사람들만 그 잔치

를 즐기는가?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다시 피곤하신 컴퓨터도 밤새 폭 잘 쉬었으니 새로 전원을 켜기만 하면 고놈의 화살표가 마음을 바꾸어 살살살살 강아지 꼬리처럼 움직여 주리라는 허망한 기대에 부풀어 조심스레 스위치를 켜다. 두두두두 작동이 시작된다. 입학시험 합격소식 청취하듯 조바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었다. 두두두두 독 부스과정이 끝나고 화살표가 중간에 딱 나타난다. 마우스를 잡기조차 손이 떨린다. 조심스레 손을 얹어 사르살살 움직여 본다. 역시 꼼짝 않는다. 팔에 힘이 가해지다 마우스 밑에 붙은 공을 손바닥으로 힘껏 굴러본다. 마우스를 잡고 책상 위에도 내린 친다. 그래도 막무가내다.

'날 잡아 잡수소.'

이 정도에서 포기할 수는 없어 결국 일하는 직원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도 프론트 데스크에선 업무용 컴퓨터는 늘상 만지지만, 요놈의 버티고 선 화살표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어 나이가 좀 든 Shay 와 Elaine은 몇 번 해보다 기권하고 제자리로 돌아 가버리고, 컴퓨터 세대인 19살 박이 Dawn은 차분히 앉아 요것 조것 두들겨 맞추고 없애고 한참이나 하다가 스크린이 지시하는 대로 전원을 끄고는 마우스의 port를 바꾸어 꼽아 보도록 주문한다.

푸른색을 회색에다 회색을 푸른색에다 터무니없는 연결을 시도해 보았다. 나도 어저께 수도 없이 해본 작업이지만, 이번엔 일순간에 고놈의 화살표가 사리살살 꼬리를 치며 움직인다.

<14면에 계속>

祝 發 展

在美서울大 총동창회와 在美서울大同窓會報의 發展을 祝賀하며, 모든 同門들은
알차고 격조있는 會報를 기다립니다.

미네소타 지역 동창회

회 장 : 김필주
평 의 원 : 이창재

<백만불 기금후원>

김태환, 양규현, 변우진, 남세현

<2000. 7. 1 ~ 2001.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김필주, 이창재, 김태환, 권승립

<2001. 7. 1 ~ 2002.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나의 고궁 박물관 - 나의 책 출판 Odyssey -

김 일 훈 <57년 의과대학 졸업·의사>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이듯이 꼭 필요해야만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이기성(利己性)이다. 더구나 필요가 자기의 목전의 이해득실과 관계될 경우 배우려는 욕망은 다급해진다. 나는 컴퓨터(다음 PC라 약함)에 의한 워드프로세서를 다급하게 습득해야만 필 일이 생겼다. 어느 지방 신문에서 칼럼 연재를 시작할 때 조건이 처음 한 달은 봐줄 테니 그 사이 한글 타이프에 익숙해서 원고를 꼭 전자우편(e-mail)로 보내달라는 요구였다. 비용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기고자에게 타자부담을 맡기는 의도다. 컴퓨터 만지면서 기껏 한국에 편지 쓸 때나 한글타자를 서툴게 써왔는데 이제 칼럼 원고도 이-메일 아니면 받아주지 않는다는 ‘공갈’에 모처럼의 황금 기회를 포기할 수도 없어, 노력한 것이 이젠 내 자신 서툰 비서 정도의 한글 타자수가 돼버렸다. 자음과 모음으로 잘 배합된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장차 워드프로세서와 PC시대에 대비해서 창안한 듯, 한글타자는 배우기 쉽고 사용에 아주 편리하여 영어타자보다 못할 것 없다. 나중에 배운 일본글타자의 복잡한 것과 비교할 때 세종대왕의 고마움은 더욱 절실해진다.

우리는 참으로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겠다. 10년 전에 썼던 복사기(copy machine), 팩스, 워드프로세서 기구들은 내버린 아깝다고 해서 참고 연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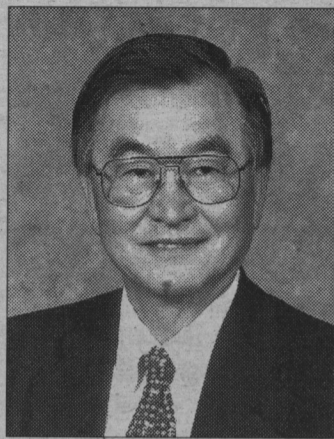
에 진열해 버려졌으며, 이젠 PC 하나로 모든 것이 척척 해결되어 가니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 PC의 기본 3대 기둥이라 할 주소록과 전자우편, 인터넷 이용, 그리고 워드프로세서 사용을 만각한다지만, 다른 분야의 사용엔 나는 아직도 어둡고 더구나 기술부문에 초보자 실력도 없다. 컴퓨터 학습용 책이나 ‘Teach yourself’ CD-ROM세트 등은 형식상 갖추고 있을 뿐 손발 시간이 아깝고, 여가 있으면 필요한 타이프나 인터넷만 물고 늘어지니 말이다. 그래서 PC 실력으로 따지면 내가하는 분야는 대학원 학생쯤 된다고 하겠으나 그 외는 유치원생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겠으며, 그러므로 나로서는 시간을 유용하게 쓴다고 자부한다. 또 의문이 있을 때면 옆치 불구하고 이웃이나 LA친구 등 컴퓨터 공짜 선생을 전화로 괴롭힌다.

아무튼 필요에 의해서 한글 타자수가 되고, 전자우편이나 편집자 측에서도 일하기 쉬워, 글 내용이 좀 부족해도 편리상 받아주는 인상을 받을 때도 있다.

한번은 동창회신문(서울대) 편집인에게 “전자로 원고 보내는 동문이 몇이나 됩니까?” 하고 참고로 물어본 적이 있는데 “김선배 한 분뿐입니다”라는 답은 너무나 의외였다. 서울의 의학신문에 연재 글(미국의료문제)을 허락해준 이 유종의 하나도 나의 전자기고 덕분일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있

다. ‘이슈투데이’에는 거의 매주 1건씩 전자기고하여 그 결과 지난 1년간 60여 편의 칼럼이 내 PC에 수록되었다.

이 글을 말전으로 작년 가을부터 책 계획을 하여 파일을 찾아 정리를 해가며 철자법과 띄어쓰기 그리고 글다듬기에 유의 해가면서 책 출판준비를 해나갔다. 책을 실을 글 내용에 따라 그룹을 짜서 6부로 분류하고, 글 제목을 수정하거나 부제목을 달기도 하며 바쁘게 시간을 보내자니, 아내의 말을 빌리자면 갑자기 부지런한 사람이 돼버렸다. 그 결과 이번에 책이 발간되어 “생활속의 역사탐구”란 이름으로 나의 “제2 칼럼 집”이 나오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 자신 책의 저자일 뿐 아니라 PC로 책 만드는 과정에서 편집자였고, 출판사에서 한 일은 페이지 숫자 맞추는 일과 책 모양새 가다듬는 정도에 불과했다. 출판사에서 나의 조잡한 표현을 고치려 했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교정할 때는 일일이 사전에 내 허가 받고서하라고 부탁했더니 전혀 소대지 않게 되어, 결국 책은 편집과 인쇄(타자)면에서도 순수한 내 개인의 작품이 되어버린 셈이다. 5년전 첫 번 책 만들 때 원고지에 약필로 써서 지우고 다시 쓰며, 교정해서 찢고 다시 쓰고 거기에다 펜으로 2고 3고를 거치면서 작은 분량은 팩스로 긴 것은 속달우편으로 출판사를 왕래하던 시기를 돌이키면 격세(隔世)의 감이 있



다. 첫 번째 책 출판이 20세기의 것이라면, 지금 내가 1인3역의 PC로 책을 완성한 이 시점은 틀림없는 21세기이다.

한 생애에 우리는 3개 문명을 거쳤으니 이만 하면 옛 사람에 비해 10배 이상 장수하는 것이라고 만족해 본다.

자랄 때의 기차여행 문명을 거쳐, 성인기의 비행기시대에 주유 천하(周遊天下)하다가, 이제 21세기 전자우주 시대에 손가락 하나 까딱(click)함으로써 순간 순간마다 강충강충 세계를 무대로 뛰어다니는 격이니 말이다. 그러하오니 70평생에 2-3세기를 살아온 느낌이라, 언제 죽어도 한이 없겠으나 좋은 세상 만났기로 더 오래 살고 싶음은 나만의 욕심이 아닐 것이다.

이상과 같이 내가 손수 만든 나의 새책이 순조롭게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책 편집의 절정기에 내 PC는 임진왜란에 비할만한 환란을 겪었으니, 바이러스의 침략을 받았던 것이다.

하루 밤은 컴퓨터와 대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혀 예기치 못한 이변이 생겼다. 들어온 이-메일을

무심코 열면서 바이러스 감염이 되 버린 것이다. 태평세월 속에서 ‘유비무환’ 한다는 선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임진왜란을 겪은 사태와 같이, 바이러스 운운하는 말에 무관심했던 결과 내 인생의 일대 불행을 낳게 할 뻔했다. 이 대란을 맞는 순간 내가 울음을 터뜨렸다고 훗날 아내가 홍보지만, 물론 과장된 표현이다.

나는 정신 바짝 차려 비상을 걸어(국가 총동원하는 격으로) 급한 대로 외국원조를 청하자니 시간이 밤 12시라 누구도 부를 수 없던 차에, LA 시간은 아직 10시이니 컴퓨터에 밝은 그곳 친구에게 전화 연락했다. 그의 말은 컴퓨터가 파괴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우선 저장한 파일을 찾아보고 손상 안된 것 있으면 빨리 디스켓으로 피난시키라는 충고다.

천만다행으로 한글 파일은 바이러스가 앓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을 가깝스로 면한 기쁨은 한량없었다. 그래도 공포에 질린 나는 바이러스 감염 후유증을 염려한 나머지 한글 파일을 디스켓에 옮기는 작업, 그것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같은 파일을 2번이나 되풀이해서 하나하나 옮기는 밤일을 끝내고 나니, 동창이 밝아왔다. 나의 국보 제1호의 야간철수 작업은 이렇게 수행되고 성공리에 끝났다.

날이 밝아지자 나의 컴퓨터 기술고문관인 젊은 친구 김군(데이비드 김)에게 연락했다. 그가 와서 2-3분간 기계를 만지작거리더니 “원상 회복됐습니다”고 말한다. 감염된 조그만 것 하나를 제거해 버렸으니 아무 일 없다고 한다.

<12면에 계속>

祝 發 展

在美 서울 大同窓會報의 發展을 祝賀하며, 모든 同門들은 새로운 會報를 기다립니다.

달라스 지역 동창회

회 장 : 최근자
평 의 원 : 김옥균

<백만불 기금회원>
김인호

<2000. 7. 1 ~ 2001. 6. 30 미주
관악후원회 이사>
김옥균

<2001. 7. 1 ~ 2002. 6. 30 미주
관악후원회 이사>

컴퓨터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오늘날 누구나 1대씩 두고 씌고 있는 컴퓨터는 그 성이 남자일까 여자일까?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 이에 대한 판결이 미국연방 1심 법원 법정에서 나왔다. 뉴욕타임즈 기사내용을 여기 소개한다.

(Wed., Nov. 18, 1998)

A Little Judicial Humor on the Computer's Gender

The Microsoft trial is not all fireworks by any means. There are long stretches of tedium and droning testimony on the dry technical details of computing. To lighten up, United States District Judge Thomas Penfield Jackson before the afternoon session

here today, by saying that the court is on "some E-mail humor list."

He then read the computer humor entry he thought amusing.

Both women and men, it seems, were asked what gender would be most appropriate for computers.

The women the E-mail message said, agreed that computers should be **masculine** for the following four reasons: ▶In order to get their attention, you have to turn them on. ▶They have a lot of data, but they are still clueless. ▶Most of the time, they are the problem. ▶As

soon as you commit to one, you realize that if you waited a little longer you could have had a better model.

The men, according to the E-mail message, agreed that computers should be **feminine** for the following four reasons: ▶No one but the creator understands their internal logic. ▶The native language they use to communicate with other computers is incomprehensible to everyone else. ▶Even your smallest mistakes are stored in long-term memory for later retrieval. ▶As soon as you make a commitment to one, you find yourself spending half your paycheck on accessories.

<11면 나의 고궁박물관서 계속>

김군 말에 의하면 바이러스에도 3종류가 있으며 쉽게 말해서 살인 강도와 큰 도둑 그리고 좀도둑의 3가지인데, 불행 중 다행으로 나의 피해는 좀도둑이 저지른 경미한 손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위기의식에 쫓긴 나는 한밤중 수다를 떨었던 것이니, 남이 들으면 웃을 일이지만, 나 자신에겐 애지중지하던 나의 보물이 국가의 보물만큼이나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로서는 건방지게도 위기직전의 나의 보물소개(寶物疏開)작업을 중일(中日)전쟁직전 중국 '고궁박물관'의 문물소개(文物疏開)계획과 비유해보았다. 1937년 7월7일 베이징 근교에서 일어난 중국과 일본군간의 총격전을 시발점으로 중일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장개석 중국정부는 일본의 노골적인 중국침략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내다보고서 전면전쟁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전투 준비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적 계획이 '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역사적 보물들을 안전지대로 소개시키는 일이었다. 그 결과 수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고궁박물관의 보물을 16,655상자 속에 완전무결하게 포장하여, 육로와 양자강을 거쳐 폭격을 모면할 수 있는 중경(重慶)근처의 깊숙한 오지(奧地)에 운반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보물들 19,555상자(중경서 갖고 온 2,900상자 포함)는 안순(安順) 낙산(樂山) 아미산(峨眉山)의 3곳에 분산수용해서 보전했으며, 그 중 아미산에 가장 많이수용했었다.

2차전이 끝나자 이 보물들은 마

땅히 베이징의 고궁박물관에 복귀해야 했으나 이번에는 중국내전으로 인해서, 장개석정부에서는 보물을 놓칠세라 그 알짜를 방향을 바꾸어 대만으로 옮겨갔으며 그곳에 간 문물은 2,927상자에 23만8,951점이라 기록되었다.

대만수도 대북(臺北)교외에 화려한 '고궁박물관건물'이 건설되어 여기에 5천년 중국의 알짜문물이 잘 진열되어, 1964년 11월12일 문선생 100년 탄생일을 기해서 개관되었다(물론 대부분의 나머지 보물들은 베이징으로 되돌아가서 옛날보다 못한 내용이지만 다시 전시되었으며, 입구의 간판 '故宮博物院'이라 쓴 중국의 석학 곽갈약(郭沫若)선생의 명필은 본래 대로다).

대만에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곳 박물관건물 후면은 바위산(岩山)의 거대한 동굴에 이어져 있어 어떠한 공습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보호되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대전쟁을 치르면서, 또는 장차 올지도 모를 내전에 대비해서 생명 못지 않게 문물을 보호하려는 중국인의 역사적 사명감을 엿볼 수가 있다.

일본서도 문물과 기록보존의 철저함은 유명하다. 그런데 한국의 문물은 외침으로 많이 불타고 외국에 도난 당한 불행도 있지만, 배불송유(排佛崇儒)와 위정척사(衛正斥邪) 자기와 다른 주장은 무조건 배격하는 주자학사상)라는 배타사상으로 반대파의 문물과 파괴로 인한 분실이 많았다는 것이다. 일본에 산재해있는 조선종(鐘)과 옛 조선의 벽화를 찾아 책으로 엮은 강건영(姜健榮, 일본 오사카의 내과의)박사는 얼마 전 시카고 방문했을 때 말하기를 "일본은 훔쳐

간 죄가 있지만, 파괴됐을지도 모를 우리문화재를 잘 보존한 공도 있다"고 했을 정도다.

바이러스 홍역을 치른 나는 앞으로 또 다가올지도 모를 병자호란 같은 외적(바이러스)의 침략에서 내 PC 파일을 철저히 보호하고자, 남에겐 보잘것없지만 "나의 고궁 박물관"이기도 한 PC 파일 1부씩을 수다스럽게 3곳에 저장하였다.

손가락 클릭 몇 번 되풀이해서 1부는 큰 침실(아내 방)에 아내 전용으로 설치해둔 PC(나의 전번 PC)에 저장했으며, 그곳을 내 마음속으로 "강화도 사고(史庫)"라 부른다.

내 서재의 PC는 내 파일의 본고장인리라 이를 서울의 "춘추관(春秋館)"이라 불러본다. 지금 서울과 강화도는 육로로 연결되어 내가 침실에 드나드는 만큼 왕래가 편리하다고 듣고있다. 여기에 더하여 만일 내집(서울과 경기도)에 이번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1부는 나의 PC 기술고문인 데이비드 김의 PC 에 저장했으니, 그곳을 나는 김군의 고향(경북)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태백산(太白山)사고"라 부른다.

이렇듯 나의 피해망상적인 문물 보관은 임진왜란을 전후한 "조선 이조실록"보존을 위한 고사(故事)를 모방한 처사였다.

조선조의 가장 귀한 문물 "이조실록"은 초기에 두벌을 만들어 서울의 춘추관과 충주(忠州)의 사고(史庫)에 봉안했다. 그 후(1445년) 세종대왕께서는 두벌만 가지 고서는 마음이 놓이지 아니함으로 다시 2부를 등사하여 전주(全州)와 성주(星州)에 새로 사고를 설치하고 각각 1부씩 간직하게 했

니, 모두 4곳에 봉안해서 관리했다. 그러나 선조 때(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3곳의 실록은 모두 병화에 타버리고 전주의 실록만 남게되었다.

전주에서는 용감한 두 선비에 의해 사고의 모든 서적을 전화가 미치지 못한 정읍(井邑)의 내장산(內藏山)에 운반하여 다음해 정부에 인계할 때까지 지켰던 것이다. 전쟁 중 선조는 내장산의 실록을 여러 곳을 거쳐 평북 영변의 묘향산에 옮겨다가 왜란이 평정된 후(1599년) 나라살림이 비참한데도 불구하고 실록출판사업을 일으켰다.

그 결과 다섯 부의 실록이 성립되어 5곳(춘추관, 강화도, 경북의 태백산, 강원도의 오대산, 평북 영변의 묘향산)에 사고를 건축하고 1부씩 봉안했으며, 다음실록이 나올 때마다 그곳에 추가되었다.

여기서 묘향산 실록은 훗날 후금(여진족)을 의식하여, 전북의 적상산으로 옮겨졌다. 그런 다음 병자호란을 비롯한 여러 난리를 치르고 일본침략과 6.25를 겪으면서 많이 소실되어, 현재 남아있는 실록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있는 강화도의 정족산(鼎足山)과 경북의 태백산 원본 2개 뿐이라 한다. 그러하자 내가 따로 저장시킨 두 곳, 강화도(아내의 PC)와 태백산(데이비드 김 PC)은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명칭이라 하겠다.

책이 나왔으니 강화도나 태백산은 물론 나의 춘추관도 불일 끝난 곳이 됐지만, 아직 미련이 남아 문물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담고 있다. 만일 재판이나 개정판이 나오게되면 그때 가서 다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이유보다는 "나의 고궁 박물관"속의 나의 소중한 문물이라는 애착 때문에 그대로 간직하고있는 것이다.

현재 대학명예교수이며 국회의 원경력도 있는 서울의 한 친구는 책 내용을 평가기를 "많은 지식을 나열했는데 도대체 그 사료(史料), 재료(材料)와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었나?"고 묻는다.

나는 건방지게도 한마디로 "나의 고궁 박물관"에서 얻었노라고 얼버무리버린다. 구태여 말한다면 나의 박물관은 내 머리속에 있으며, 정보의 출처는 다음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영어로 된 영어문화권내의 정보는 인터넷과 가까운 도서관에서 90%는 얻어진다. 그것을 이용하는데는 본인의 기억력과 추리, 그리고 판단력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첫 번 책에서 "내가 만난 박정희 소장" 글을 쓸 때, 내가 본 그의 인상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기사를 5.16 혁명 후(40년 전) TIME 잡지에서 읽은 기억이 있다. 5.16 나던 해(1961년)와 그가 미국방문 하던 달(1961년 11월)은 문헌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타임지 기사를 도서관의 Microfilm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고 그 보도를 보면 박장군 인상을 "검은 색안경을 쓰고 굳은 표정의 뺨뺨하고 차그마한 사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 갱 영화에 나오는 악역배우 같다"고 평했다.

특수한 정보는 대학이나 의학도서관에서 얻어지지만, 시일이 넉넉하면 이웃 도서관을 경유해서 얼마든지 구득 가능하다.

<13면에 계속>

祝 發 展

在美서울大 총동창회와 在美서울大同窓會報의 發展을 祝賀하며, 모든 同門들은
알차고 격조있는 會報를 기다립니다.

아리조나 지역 동창회

회 장: 최윤근

평 의 원: 오윤환

<백만불 기금회원>

박양세

<2000. 7. 1 ~ 2001.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오덕겸

<2001. 7. 1 ~ 2002.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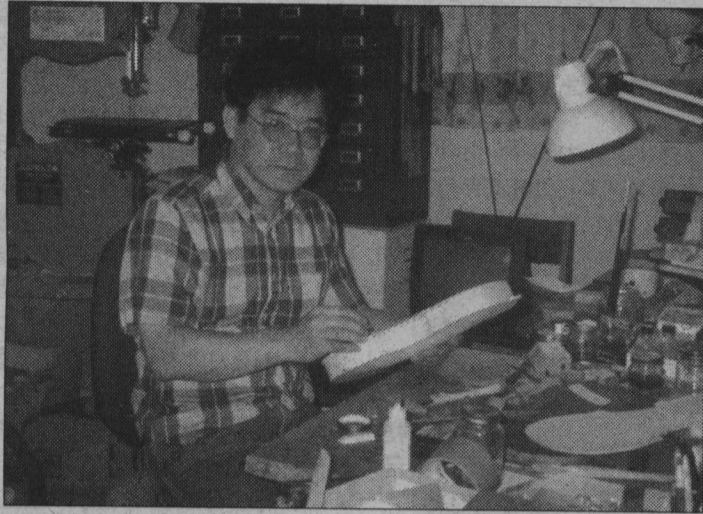
물리학도에서 바이올린 제작가로

鄭求英 <문리대 73입학, 바이올린 제작가>

한국문화의 유산(遺産) 중에 다시 생각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있다. 사변적인 문사(文士)를 존경하고 실제적인 생산(生産)을 담당하는 이를 “쟁이”라 불러 무언중에 하대하는 일이다. 여기 소개하고자 하는 정구영 동문은 이러한 한국적 편견에 도전하는 삶을 가고 있다. 정에 엘리트로서의 길, 즉 학위를 받고 연구실에서 연구를 계속하거나 후학(後學)을 가르치는 대신 본인이 하고싶은 일을, 상식대로라면 취미생활에 그쳐야 할 일을 천직으로 삼아 장인(匠人)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카고에서 바이올린 제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정구영 동문은 73년도 문리대 물리학과를 입학하여, 정해진 수순대로 졸업 후, 79년도에 펜실베이니아대학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왔다. 그러다가, 공부가 거의 끝나갈 무렵, 어릴 때부터 관심을 기울이던 악기와 클래식 음악때문에, 특히 이웃으로 둔 장민수(음대졸 74입학)동문과 이명준(음대졸 75입학)동문 부부(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리스트 사리張양의 부모)와의 교류로 바이올린 쪽에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독일에서 匠人 자격을 인정받은 이주호씨가 설립한 바이올린학교 소개 기사(이주호 바이올린 학교 - 이주호씨는 홍익대 미대 조각가 출신으로서 독일의 미텐발트에 있는 국립 바이올린 제작학교 3년 반과



정을 졸업하여 바이올린 제작의 장인이 되었고 시카고에서 바이올린 학교를 설립하였으며 독일학교와 거의 같은 체제로 후진을 양성하고 있음. 현재 미국에는 시카고와, 또 다른 미텐발트 출신이 설립한 유타주 소재의 바이올린 학교가 있음)를 읽고, 인생항로를 전환기로 결심하고, 84년도에 시카고로 옮겨 왔다.

여태까지 일부 생활비까지 지급되던 학교 장학금과, 진로전환 결정에 반대하여大怒하신 아버님으로부터의 항토장학금 지원조차 끊어지고 고학을 해야 했다. 본인의 막일도 불사한 아르바이트와 부인의 내조로 3년 반의 바이올린 제작과정을 연마하는 힘든 과정을 이수하였다. 그후 한때는 그 학교에서 바이올린제작을 가르쳤고 현재는 시카고 시내 유명 현악기상인 A440에서 기사(技士)로 근무하면서

서 틈틈이 바이올린 제작에 몰두하고 있다.

정 동문은 타고난 장인기질과 솜씨, 그리고 物理學 전공학도로서의 과학적인 접근으로 제작된 우수한 바이올린이 점점 명성을 얻어가고 있다. 특히 그가 제작한 바이올린의 장점은 고르고 큰 소리를 내는 것이다(정구영 제작의 바이올린의 특징 - 보통은 나무의 첫수 위주로 제작하나 그는 첫수 외에 끊임없는 진동실험으로 최적의 소리를 얻는데 주력). 그 결과 88년 미국 바이올린협회가 주최한 국제 제작 경연에서 바이올린과 첼로의 소리부문에서, 90년도엔 바이올린 소리부문에서 1등 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리고 타고난 탐구정신으로 수리를 할 때도 허술히 하는 법이 없이 철저히 분해하여 완벽하게 수리해 내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어릴 때 이웃에서 같이 지냈고,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바이올린리스트가 된 사리張 양도 바쁜 일정에도 시카고를 지날때면 O'Hare 공항에서 만나 수리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정 동문이 직접 연주장소까지 출장하여 바이올린을 손봐 줄 정도이다.

또 시카고 근교(Glenview, IL)에 위치한 정동문의 집은 미국 내에서는 물론 멀리 한국에서까지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악을 전공한 부인 정경애 여사는 남편의 하는 일을 이해하고, 자랑스러워하며 그 손님들의 공항영접, 숙식제공 등을 기꺼이 하고 있다.

우리의 삶의 도정은 사회와 관습의 굴레에 매인 他我로부터自我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길이다. 安住者로부터 開拓者의 길은 고독한 결단이다. 匠人은 묵묵히 完成을 향하여 앞을 갈 뿐이다. 그는 이른바 청운(靑雲)의 뜻을 품고 온 美洲대륙 新天地에서 새로운 自我를 발견하여 진정한 그의 길을 가고 있다. 오늘도 그는 밤늦도록 지하실에 마련된 연구실이자 작업실에서 나무를 깎고, 칠하며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에 여념이 없다. 부인 정경애씨의 말처럼 그야말로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鄭求英으로 落款된 바이올린이 먼 후 대에까지 연주자들에게 애용되는 스트라디바리우스와 버금가는 名器가 될 것을 기대한다. 아니 나는 우리의 훌륭한 전통 현악기 소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음악을 가진 그의 바이올린을 기다린다.

(정구영 동문 연락처: 847-486-0639)

<기고 홍혜례 동문>

<12면 나의 고궁박물관서 계속>

두 번째: 동양권 또는 한자권 문화에 대해 영어정보(책 또는 인터넷)는 극히 제한되었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한국이나 일본 도서관접근도 불가능하다. 여기서 나의 경우는 50%는 내 서재에 보관된 책에 의존하며 다행히 재료를 얻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 20% 정도는 일본과 한국인터넷 등에서 얻으니 합쳐서 기껏 70% 정도다.

예를 들어 이 글에서 중일전쟁시 “문물소개(文物疏開)”는 일본 책에서, 그리고 “이조실록”에 관한 내용은 “한국의 고전 시리즈”에서 인용했다.

원래 나는 글쓰다기보다는 읽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유익한 글이 있으면 장차 재탕해서 읽으려고 꼭 필요한 책이나 극히 일부의 잡지를 보관하는 습성을 붙였다. 그러기 위해선 부피가 작은 문고(文庫)나 Paperback 책을 나는 선호한다.

부자들 집에 흔히 있는 전시용의 부피 큰 책들은 질색이니, 저장에 힘들기 때문이다. 최근 글쓰는데 “나의 고궁박물관”의 일부라 할 내 서재에 엄선(嚴選)해서 보관한 2천권 미만의 값싼 책들을 이용할 기회가 많다.

서울친구(學者)를 통해 재료나 정보를 얻는 일도 있지만 몇 달에 한번정도에 불과하며, 그것도 자주 협조해줄 만한 성의 있는 친구가 드물다.

이번에 출판된 나의 제2 문화칼럼 집 “생활속의 역사탐구” 책에 얽힌 마음의 갈등 이야기, 즉 긴 방랑의 여정(Odyssey)을 적어보았다.

祝 發 展

在美서울大 총동창회와 在美서울大同窓會報의 發展을 祝賀하며, 모든 同門들은 알차고
적조있는 會報를 기다립니다.

오레곤 지역 동창회

회 장 : 박창성
평 의 원 : 조충훈

<백만불 기금회원>
이태호, (의 명)

<2000. 7. 1 ~ 2001.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김성열, 김상순, 정태훈

<2001. 7. 1 ~ 2002.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조충훈

<10면 컴퓨터가 이사한 날서 계속>

젠-장 그놈의 컴퓨터 속엔 총각이 들어있나? 나도 개와 똑 같은 짓을 어제 수도 없이 해 보았는데... "Hay, Dawn! It likes you."

그래서 나는 이 글을 쓴다.

順天命, 耳順하는 나이는 어느 나라에서건 모든 면에서 권위의 상징이었는데 이 컴퓨터라는 물건이 등장하여 우리 세대는 완전히 10대 어린 이들에게 나가 떨어져 하루이침에 "컴맹"이 되어 버렸다.

어른이라든가, 인품이라든가 관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유식이라든가 하는 모든 것이 하루 아침에 곤두박질 하였다.

우리는 부모세대에 벌벌 기던 그 어린 시절의 설익은 권위도 -완숙의 단계로 접어들어 보지도 못한 설익은 권위-로, 다시 회복할 기회조차도 없이 무덤까지 벌벌 기어 가야하는 인류역사에서 가장 불쌍한 세대로 전락하고 만 셈이다. 기면서 와서 기면서 가는 소위 말해 인류역사에서 "유일한 <기는 세대>로 명명 지워 지는 세대이다. 어쩌면 因果應報인지도 모른다. 지금 順天命하는 나이 이상의 살아 있는 세대 (나이 50-100)만큼 인류에 끔찍한 일을 한 세대도 없을 것이다.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고, 가장 많은 짐승을 죽였고, 가장 많은 자연을 파괴했고, 가장 많은 공해를 일구었다.

인류사에서 가장 큰 빈부차이를 형성했고, 가장 긴 인류 수명을 일구어 냈고, 그 소산으로 인류 최고의 문명을 일구었다고 자랑하던 세대들이다.

결국은 그 세대가 판 무덤에 그 세대가 들어가 늙는 꼴이 되고 만 셈이다. 지금 내가 온 정력을 다하여 컴퓨터를 배워봐야 유치원도 듣기 전부터 컴퓨터가 생활화 된 신세대를 따라 잡을 순 없다.

기껏 초등학교 졸업반 정도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면 결국은 뛰어보지 못하고 기어서 무덤에 드는 세대임에는 마찬가지이지만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못한 수 없는 나의 세대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셈이라고 자부하면서 경로회 파티에선 사회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알차고 격조 있어 동문들이 기다리며 읽는 재미 동창회보의 원고 및 자료 투고요령과 편집원칙

재미 서울대학교 동창회보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여러 同門들의 반가운 만남의 場이며 한국의 지성인들인 재미주 동문들의 전체의 노력으로써 만들어지는, 쓰고, 생각하며 토론하는 場입니다.

본 편집위원회는 보다 유용하고 알찬 내용이 담긴 회보를 만들기 위하여 그 편집목표를 **알차고 격조있어 동문들이 매달 기다리며 읽는 회보**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목표는 여러 동문들의 정성어린 투고로써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인적, 물적, 시간적인 제약 아래 제작되는 만큼, 모든 동문여러분들께서 취재기자가 되셔서 크고 작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자료공급원으로서 도와주시는 만큼, 우리 동창회보 수준이 올라 갈 것입니다.

모든 동문들께서는 각자 열심히 노력하시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성공과 좌절의 순간과 특별한 경험들**을 담은 글의 훌륭한 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각 전문분야에서 활약하시는 동문 여러분, **당신의 분야에서 초보적인 사항들은 타분야에 종사하는 일반동문들에게는 유용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에서 접하시는 크고 작은, 흥미있고 유용한 자료들(article, news snippet, photo, picture, joke..)을 본 편집위원회로 훌쩍 e-mail 하거나 전

송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편집자는 여러 동문들이 읽으시는 유용한 지면을 구성하고, 그 자료를 제공하신 동문을 기명하고자 합니다.

1. 원칙적으로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자발적으로 투고하신 원고로 이루어집니다.

2. 또한 본보 편집위원회는, 특별기획기사 연재 계획에 따라 전문가 동문들에게 회보집필자로서 초대장을 보내어 해당 분야의 학술연구 논문이나 학술연구와 관련된 글을 실어, 일반 상업언론과는 다른 깊이 있는 지면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여러 동문독자들의 특별기획기사에 관한 주제 및 초청될 전문 집필자의 추천에 관한 제안을 환영합니다).

3. 회보에 수록된 글들에 대하여, 전체 동문들은 읽으신 소감(독후소감, 찬성과 반대 의견 등)을 편집자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달 회보에 그 의견을 기명 게재하여, 회보를 보다 수준 높은 동문들이 **쓰고, 생각하며 상호 토론**하는 論壇으로 만들고자합니다.

4. 지역동창회에 바랍니다. 개별동문의 동정 및 지역동창회의 활동계획과 결과에 대하여 내실있는 보도자료를 보내 주시면 전 미주 동문들이 읽는 참신한 새 소식통을 만들고자 합니다.(개별동문의 활동 및 동정, 길흥사, 자녀의 자랑 및 소개).

<투고 요령>

- ◇주제 및 내용: 동문들이 쓰고 싶은 어떤 주제나 장르
 - 시, 소설, 산문
 - 전문분야 연구논문, 평론, 서평
 - 시사문제 평론
 -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 게재기사나 글에 대한 독자의 평가 및 의견
 - 각종 자료원이나 취재원에 대한 정보제공
- ◇원고 길이: 제한 없음
- ◇투고요령(편집 편의 우선 순위)
 - ▶e-mail with attachment(한글 또는 외국어)
 - e-mail 주소 : ynlee@htrdLtd.com
 - ▶fax : 원고 (육필원고 혹은 타자된 원고) 및 편집자료 제출물(사진, 글, 독자의견) fax) 847-981-1465
 - ▶우송 : SNUAAUS
 - 790 Busse Rd., Suit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편집자 직통전화 : (847)981-1464

◇원고 마감일: 제한 없음(월간지임으로 다음달에 게재될 원고의 마감 일은 매월 25일임).

<편집원칙>

- ◇편집자는 저자와 함께 상의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인 한글을 사용하여 발전시키고 참신한 용어 개발하여, 이를 고양하는 場이 되고자 합니다. (초고는 자유롭게 집필하십시오.)
- ◇모든 원고는 기명기사로 하고, 저자 저작권을 존중합니다.
- ◇편집에 있어 편집자는 투고된 초고를 존중하여, 게재 전 저자와의 상의를 거쳐 수준 높은 내용을 만들고자 하고, 그 판권은 저자의 소유임을 명시합니다.
- 편집위원회는 동문들과 그 가족들께서 분주하신 가운데도 시간 내어 투고하신 귀중한 글과 특정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의 글로써 文筆과 論考의 場을 재미동창회보의 속에서 만들고자 합니다.

祝 發 展

在美서울大 총동창회와 在美서울大同窓會報의 發展을 祝賀하며, 모든 同門들은 알차고 격조있는 會報를 기다립니다.

하트랜드 지역 동창회

- 회 장 : 김호원
- 평 의 원 : 이교락
- 명예회장 : 이교락
- 차기회장 : 이상문
- 부 회 장 : 박옥동, 김현철, 김계윤, 조동우, 조의환, 오태요, 민경환, 정동학, 윤경진
- 사무총장 : 배규태
- 사무차장 : 오명순
- 재무부장 : 구명순
- 홍보 및 편집부장 : 배규영
- 섭외부장 : 함완균
- 청년 및 학생부장 : 이치현
- 이 사 장 : 김용환

- 간사 : 전선옥, 이교락, 김백년, 광노환, 이재명, 송필순, 이상문, 오계숙, 박봉수, 민중식, 황학주, 이상강, 최원용, 송요셉, 김호원
- 감사 : 이재명
- 장학위원회 위원장 : 김호원
- 감사 : 이재명
- 총무 및 재무 : 전선옥, 이상문, 이교락, 박옥동, 김현철, 이재명, 배규태, 김명자, 황학주, 이호신, 조세진, 조의환, 김백년, 윤경진
- 명예회원 : 배 영, 장대홍, 장원호

<백만불 기금회원>

- 오태요, 김명자, 이상문, 배한홍

<2000. 7. 1 ~ 2001.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 김호원, 이교락, 김용환, 이상문

<2001. 7. 1 ~ 2002.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남가주 소식

상대 동창회 7월 골프대회 성료

챔피언 김은중 동문

금년도 2번째 상대 동창 골프대회가 지난 7월 14일(토)에 Mountain Meadows G. C.에서 열렸다.

비로 인하여 2월 대회가 순연된 것인데, 총 37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가하는 대 성황을 이루었다.

남가주의 7월달지 않게 시원하 비림이 불어 별로 더운지 모르로 골프를 즐길 수 있었다.

이번대회에는 박원경(60입) 동문이 처음 참가하였고 곽성재(56입) 동문이 5년여만에 다시 참가하였으며, 여성이 9명이나 참가하는 이번 아닌 이번도 있었다.

이번 대회를 위해 Sponsor를 서주신 김은중(59입)동문께 감사드린다. 이날 대회 결과에 따른 시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Champion : 김은중(59입), Medalist : 임종국(70입), 1st : 최운화(78입), 2nd : 유태호(64입)

▶Lady Champion : Mrs. 김석기(56입), Lady 1st : Mrs. 유병원(76입)

▶Couples Champion : Mr. & Mrs. 김은중 (59입)

▶Longest Drive : 김석기 (56입)

▶Closest to the pin : 임문빈 (58입)



남가주 서울법대 동문회 आयु회

남가주 서울법대 동문회(회장 이창신)는 지난 6월17일 Father's Day에 동문 19명 가족 포함 40여명이 Fullerton에 있는 RALPH B. CLARK PARK에 모여 시종 화기애애한 오후 한때를 보냈다. <투고자 이창신 동문>

남가주 서울법대 동문회(회장 이창신)는 지난 6월17일 Father's Day에 동문 19명 가족 포함 40여명이 Fullerton에 있는 RALPH B. CLARK PARK에 모여 시종 화기애애한 오후 한때를 보냈다. <투고자 이창신 동문>

샌프란시스코 소식

북가주 동문회 친선 골프대회

북가주 서울대 동문회 (회장 : 김은중)는 오는 10월 20일(토) 올해의 마지막 동문 친선 골프대회를 갖기로 했다. 장소는 헤이워드에 위치한 Sky-west Golf Course이고 Tee Off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이다. 연락은 김은중 (310) 631-7000 임승쾌 (510) 444-8777, 박 용 (415) 276-2110

의 60회 생일잔치가 이지역 많은 동문들이 참여한 가운데 18일 정조웅 동문 자택에서 열렸다. 연락 (408) 972-4026

정조웅 동문 회갑연

정조웅(공대 60년도 입학) 동문

아시아나은행 초대행장 정원훈 동문 은퇴

순수 교포들의 자본으로 설립된 Asiana(아시아나)은행의 초대 행장을 맡으셨던 정원훈 (상대 38년 입학) 행장이 지난달 은퇴했다.

신용석·박용 동문 지부 부총무 임명

샌프란시스코 지부는 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신용석(상대 85년 입학) 동문과 박 용(인문대학 89년 입학) 동문을 부총무로 임명했다. <투고자 임승쾌 동문 >

오레곤지역 소식

오레곤 지역 동창회 부회장에 정성국 동문

오레곤 지역 동창회는 부회장으로 정성국동문(문리대 언어학과 73년 입학하여 인문대를 77년에 졸업)을 선출하였다.

정동문은 현재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Kaplan Sports를 운영하

고 있다. 정동문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Sung Kook Chung 11834 SW wilton Ave, Tigard, OR 97223 전화 503-524-7741(H) , 226-6467(W)

祝 發 展

在美서울大 총동창회와 在美서울大同窓會報의 發展을 祝賀하며, 모든 同門들은 알차고 격조있는 會報를 기다립니다.

남가주 지역 동창회

- 회 장 이청광
- 차기회장 임낙균
- 평 의 원 서영석, 오홍조, 이명상, 방석훈, 전희택

<백만불 기금회원>

한상철, 이병준, 심상은, 조용명, 임낙균, 이명선, 박취서, 이종열, 이강훈, 임택선, 김옥권, 권기상, 이정재, 신동국, 김일영, 유병원, 도영미, 황석우, 정인환, 권길상

<2000. 7. 1 ~ 2001.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강경수, 박세록, 이기준, 조만연, 서동영, 김성복, 김상호, 이상훈, 김옥자, 김영배, 노영호, 김남철, 박노희, 김원호, 제영혜, 이종열, 이명선, 김동석, 유병원, 박익순, 이사균, 신동국, 김종표, 김일영, 조한원, 이현녕, 김성희, 오재인

<2001. 7. 1 ~ 2002.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이병준, 정인환

유타지역 소식

孫洪鏞 동문 (공대 62년 졸) 국제 학술 심포지엄 개최

유타주 지역동창회의 회장을 역임한 손홍용 동문(공대 62년 졸 사진)의 60세 생일을 축하하는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在職중인 유타대학에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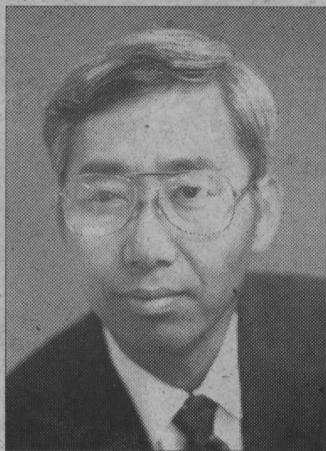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옛 제자 및 동료의 사계의 석학들이 40-50명씩 참석하여 17개의 학술논문이 발표되고 토론하며 성황리에 끝났

다. 자세한 진행경과는 9월호에 보도될 예정이다.

재미 동동창회는 손 동문의 업적을 기리는 이 심포지엄에 깊은 축하의 뜻을 표합니다.

심포지엄의 내용에 관한 웹사이트 : <http://myprofile.cos.com/sohnh18>

손홍용 동문의 연락처는 Prof



H.Y. Sohn, 135 S. 1460 E. Rm. 412 Salt Lake City, UT 84112-0114.

전화 801-581-5491(O) , 271-7457(H)

<투고자 한성양 회장>

"To laugh often and much;
to win the respect of intelligent people
and the affection of children;
to earn the appreciation of honest critics
and endure the betrayal of false friends;
to appreciate beauty, to find the best in
others;
to leave the world a bit better, whether by
a healthy child, a garden,
or a redeemed social condition;
to know even one life has breathed easier
because you have lived.
This is to have succeeded."

- Ralph Waldo Emerson -

<7면 서울대 평준화서 계속>

한국교육의 수준 향상은 서울대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리면서 다른 대학의 수준도 역시 상향조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정책 당국의 태도는 거꾸로이다.

서울대의 수준을 끌어내려 平準化시키겠다는 자세로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고 본다.

<서울대인의 한국 사회에 대한 책임과 비판의 초점에 대하여>

어느 나라든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은 그 만큼 책임을 지게 된다. 이들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은 소위 "Noble Oblige" (지체가 높을수록 책임이 크다)라는 모럴을 가져야 한다.

우리 동문들에게 "서울대인은 조

국에 대해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자세를 갖기를 강조하고 싶다.

굳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서울대인의 긍지를 갖고 나름대로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고 본다.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는 핵심 요직에서의 서울대 출신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은 우수한 인재가 모이다 보니 考試같은 경쟁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서울대에 재정등 각종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하여>

서울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연간 1,500억원 수준인데 서울대가 국립대이기 때문에 사립대 보다 공납금이 싼 편이므로 그 차이에 해당하는 돈이다.

게다가 기여 입학제를 실시하면 사립대는 추가의 재원을 확보 할

수 있지만 서울대는 그것이 실현될 수 없는 입장이다.

서울대가 현재 받고 있는 지원은 재벌등 재계에서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는 그들의 성장에 서울대 출신의 노력이 대단함을 인정하고 또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해선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대 교수들의 同種交配 현상 비판에 대하여>

(최근 자료에 서울대 출신의 모교 교수 비율이 95%이상 된다는 여론에 대하여) 평소부터 그 점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다.

하버드 학부 출신이 곧바로 하버드 교수로 임용 되는 경우가 드문데 앞으로 그런 현상은 줄어들어

된다고 본다. 외국인 유능 교수들을 많이 기용하고 타 대학 출신들도 과감히 기용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서울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기준 총장의 지도 방식에 대한 불신에 대하여>

(특히 이총장의 실용적 사고가 인문대등 기초학문분야 교수들의 감정을 자극했다는 평이 있는데) 이 총장은 기초학문에 관심이 많은 분이다.

그런데도 그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총장의 개성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으로는 교수 특히 노교수들의 사기를 높여 줘야한다고 본다. 대학이 학문 뿐 아니라 인격을 형성하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모범이 되는 노교수가 필요하고

존중해 드려야 한다.

노교수는 1,2학년을 지도하며 학문의 기본방향과 인생사를 논하고 고학년 학생은 젊은 교수들이 책임져 새학문 조류를 가르치는 기능의 分化가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모양이다. 요즘은 총장을 교수들이 선출하는데 동문들이 개입할 수는 없다.

다만 식사등을 하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모난 부분을 깎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초록 임이섭 동문>

서울대 대학신문을

직접 읽으시렵니까?

<http://www.snu.ac.kr>

祝 發 展

在美서울大 동동창회와 在美서울大同窓會報의 發展을 祝賀하며, 모든 同門들은 알차고 격조있는 會報를 기다립니다.

유타 지역 동창회

회 장 : 한성양

평 의 원 : 손홍용

<백만불 기금회원>

<2000. 7. 1 ~ 2001.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김성완

<2001. 7. 1 ~ 2002.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시카고지역 소식

햇빛은 화창하고, 바람은 시원하고, 소풍가기에는 더 바랄 것이 없도록 좋은 토요일 아침, 늦잠의 유혹을 물리치고 일찍 일어나 서둘러 문을 나섰다. 오늘 (6월 23일)은 서울대학교 시카고 및 중서부 지부 동창회가 있는 날. 시카고 북서쪽에 위치한 Elk Grove 소재 South Busse라는 숲에서 연례 피크닉이 열리는 것이다. 밥과 음료는 동창회에서 제공하고, 우리는 가서 동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되는 날이다.

피크닉 장소에 도착하니 조대현(공·61졸) 회장님께서 벌써부터 오셔서 준비를 하고 계셨다. 테이블을 정리하고 음식을 펼쳐 놓고 동창회 주소록을 꺼내 등록 준비를 하고 나니 저쪽 주차장에서 가족들과 손에 손을 잡고 걸어오는 동문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다. 정오로 정해진 약속시간이 되자 70여명의 동문들과 동문 가족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는 제 1회 졸업생인 이기억선배님도 계셨고, 48회 졸업생인 후배들도 참석하였다.

50년 가까운 서울대 역사가 눈앞에 펼쳐진 셈이다.

불고기와 고등어를 구워서 배추김치, 오이소박이와 함께 푸짐한 점심식사를 하며 선배들의 옛날 이야기와 후배들의 요새 이야기를 나누며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실감하며, 그러나 그 긴 시간속에서도 한 모교를 공유하는 동문들간의 유대가 굳건히 존속함을 느낄 수 있었다. 맛있는 도넛을 후식으

로 즐기며 동창회를 시작하니 먼저 각 지역/학교/연구소 별로 동문들의 소개가 있었다. 시카고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동문들이 제일 먼저 소개되었는데 한 동문(김광표·화학 86입)의 4살된 아들(김기환)이 '칭찬하늘'을 부르며 기선을 잡자 그 뒤를 잇는 동문들도 질세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가무를 사랑하는 배달 민족의 기상을 손색없이 발휘했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서도 분단의 아픔은 잊혀질 수 없는 것. 북에 가족을 남겨둔 이산가족 동문들의 방북을 위한 연판장이 좌석을 돌아 전후 세대에 속하는 후배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서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차기회장을 맡으실 한재은/한경희 선배님부부의 취임사와 단체사진을 끝으로 공식행사가 끝나자 조대현 회장님께서 산더미 같은 선물을 들고 동문들을 발야구장으로 모시고 가셨다.

다른 약속이 있는 동문들이 아쉬워하며 발걸음을 돌린후에도 30여명의 동문들이 남아 답소를 나누며 남은 음식으로 저녁을 해 먹고 나자 벌써 6시, 인대어나에서 먼 길을 온 동문들은 4-5시간의 여행을 앞두고 있는 터라 자리를 접어야만 할 시간이 다가왔다. 다음 해 꼭 다시 모여서 동문예를 다지기 위해 약속하며 먼 곳으로 가까운 곳으로 모두 마음만은 뒤로 남겨둔 채 주차장을 빠져 나갔다.

<투고자 오정아 동문>



하계 야유회에 나온 시카고 지역동창회 동문들과 가족들.

2001년 제 2차 이사회 개최

시카고 지역 동창회 2001년도 제 2차 이사회가 시카고 Lincolnwood에 소재한 Radisson Hotel (배건재 동문경영)에서 지난 7월 28일(토요일) 개최되었다. 총 30여명의 이사가 부부동반 참석하여 화기에애한 분위기의 만찬이 있던 후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교가제창으로 시작된 이사회는 강영국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조대현 회장의 인사에 이어 참석한 이사들의 소개가 있었다. 이어 전반기 행사에 관하여, 배중면 편집간사로부터 1차 이사회 회의록 낭독이 있었고, 장기남 간사로부터 춘계 골프대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었고 또 하계 야유회에 관하여 최순분 간사의 보고가 있었다. 차차기 회장이 될 차기 수석부회장 선출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위원장으로는 2000년도 회장을 역임

한 김정주 동문이 선임되었고, 현 조대현 회장이 전임 회장 중 배영섭, 서승환, 박창만 등 세 동문을 선임 위촉하고 또 현 이사중 회장직을 역임치 않은 동문 중에서 이윤모, 장기남, 이철주 세 동문이 선출되었다. 박영규 장학기금 관리위원장으로부터 장학기금 관리현황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이홍미 간사의 장학생 선발요강 설명이 있었고 총동창회보 및 언론기관 등에 보도자료로 이를 배포키로 하였다. 하반기 행사계획으로는 제 3호 뉴스레터 발간 및 계획이고, 유학생동문들과의 대화모임(9월 15일 오후 6시 가든부페)을 갖고 "American Dream and Experience"를 주제로 토론하기로 하였으며, 9-10월중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연로자에게 감기 예방주사를 제공키로 하였고, 11월

24일 총회 및 연말파티를 갖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9월 9일에 4차 임원회, 11월 4일에 5차 임원회 및 10월 13일 3차 이사회를 갖기로 하였다. 한재은 수석부회장으로부터 제 10차 평의원회 참석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특히 총동창회의 정관변경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어 조대현 회장이 미주 총동창회비 보조비를 기존에 제안했던 2천불에서 4천불로 증액할 것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총동창회의 구경회 사무총장은 미주 총동창회의 재정자립 제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조대현 회장은 전현일 재무간사가 그 자리에서 작성한 4천불의 수표를 이용락 재미 총동창회장에게 전달하였다. 기타 토의사항에서 이사회의 모임시에 부부가 같이 앉자는 제안이 나왔고, 새 동문들의 주소 발굴, 시카고 동창회의 지리적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투고자 배중면 동문>

祝 發 展

在美서울大 총동창회와 在美서울大同窓會報의 發展을 祝賀하며, 모든 同門들은
알차고 격조있는 會報를 기다립니다.

시카고 지역 동창회

회 장
차기회장
부 회장
부 회장
총 무
재 무
편 집

조대현
한재은
박 숙
강영국
장영수
전현일
배중면

홍 보
Webmaster
감 사
특별감사
학생간사
고 문
평 의원

장기남
유희두
송순영, 김현욱
최순분, 양홍미, 한의일
전현영(UIC) 원종인(NWU) 이대기(UC)
문병훈, 최일수, 박영규, 박창만, 구경희, 김정주
조대현, 한재은, 문병훈, 최일주, 소진문

<백만불 기금회원>

정 태, 최호승, 배영섭, 전영자, 임춘수, 강영국, 박종수, 구자원, 이기춘, 김윤태, 문병훈, 이용락, 조영재, 이용락, 조영재

<2000. 7. 1 ~ 2001.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이용락, 임춘수, 노재욱, 성흥환, 조대현, 소진문, 민영기, 김정주, 정승규, 최호승, 송순영, 박영규, 한재은, 문병훈, 최희수

<2001. 7. 1 ~ 2002.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지역동창회, 송순영, 이용락, 한재은, 구경희, 조중행, 박영규, 전현일, 김현욱

시카고 지역동창회 2001년도 장학생 모집

본 동창회에서는 성적이 우수하고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찾아 그들의 향학열을 고취시키고 도움을 주고자 하기 요강에 따라 장학생을 모집하오니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5-7명
- ◇장학금 지정액일인당 : \$1,000
- ◇응모자격시카고 및 인접지역에 거주(permanent address)하는 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유학생 포함)에 한함
- ◇응모마감2001년 9월 25일 까지

◇구비서류

1. 원서 1통(원서 용지는 www.snuaachicago.org에서 download할수 있음)
2. 추천서 2통 (한 통은 반드시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의 2000년도 회비를 납부한 동창 회원으로부터 받아야 함)
3. 성적증명서
4. Essay

- 원서제출처 -

Hongmee Lee
 419 Ridgemoore Dr.
 Willowbrook IL 60521
 (Tel) 630-323-9011
 (Fax) 773-427-8873
 (email) hongmeelee@cs.com

비고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장학위원회 위원장 조대현

22 S. Stough St. Hinsdale, IL 60521
 Tel : (630) 920 - 2201

꿈나무 장학재단

젊은 예술가와 학자들을 위한 獎學財團(Young Artists and Scholars' Fund)가 창립 3주년을 맞아 지난 7월 28일 (토요일 저녁 7시) 시카고 근교의 Aurora에 위치한 Stone Bridge Country Club에서 기념행사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동 장학재단은 28세의 젊은 나이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젊은 영화인 스티브 쉘을 추모하기 위하여 부친 강수상동문과 모친 김정희 여사를 비롯한 여러 가족 및 지인들이 설립한 것이다. 姜洙祥 동문(의대 53년 졸)은 제 2대 재미 총동창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Rush Medical School의 유전인자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영화감독 김대실씨를 비롯한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故인인 누나인 매리 강씨는 환영사에서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 기금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 주 시카고 총영사관의 김봉주 부총영사(사대 72년 입학)는 "재능은 있으나 재정능력이 없는 학생들을 돕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축사를 하였다.

이날 김대실씨는 "한 젊은 예술가가 못다 이룬 꿈을 다른 젊은이들이 이를 계승하여 완성하기를 바라는 부모와 친구들의 뜻은 진정으로 스티브의 삶을 기리는 것"이라며 이 장학재단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예술가와 학자의 길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 김대실씨가 감독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소재로 한 영화(Broken Silence, the Comfort Women)와 재단 출신 영화감독인 아드리안 아서씨의 작품인 "Motorcycle"이 상영되었고, 또 제니 정씨의 발라드 #4의 피아노 연주 등으로 수준 높게 진행된 행사였다. 이어 조안 지리카 박사는 28세의 아까운 나이로 이 생을 다한 미완의 예술가였던 스티브 강씨에 대해 "그는 친절하고 영리하며 완벽한 미래를 촉망받던 인물"이었다고 회상하였다. 동 재단 설립자인 모친 김정희씨와 부친 강수상 동문은 이날 "그 동안 재단을 위해 도와준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하였다.

이 재단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시작하였지만 이미 18만 달러의 기금을 모아 이제는 한인사회에 큰 꿈나무를 키우는 장학재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금년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올가 아나 줄라우스카(USC) 5천달러, 피터 석구유(로올라 법대) 2천 5백달러, 제니(에일 음대) 2천 5백달러, 제랄드 박(UIC 치대) 2천달러, 제니퍼 김 (UIC 의대) 2천달러, 한미나(UIC) 천달러, 엘리자베스 조이(줄리아드 음대) 1천달러, 줄리아나 최 (UIC) 1천달러, 중서부한국학교 협의회 1천달러. <재단연락처 : 603-572-9232> 자료제공 중앙일보 및 한국일보

祝 發 展

在美서울大 총동창회와 在美서울大同窓會報의 發展을 祝賀하며, 모든 同門들은
 알차고 격조있는 會報를 기다립니다.

조지아 지역 동창회

회 장 : 김재철
 차기회장 : 조덕성

<백만불 기금회원>

장병건

<2000. 7. 1 ~ 2001.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박희창, 이흥열, 김용건, 임수암, 김예순, 김준휘, 임한웅

<2001. 7. 1 ~ 2002.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뉴욕지역 소식

골든 클럽 월례 골프대회 성황리에 개최

서울대학교 동문으로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는 골프 동우회인 골든클럽(SNU Golden Club 회장 정택수, 문리대 50년 졸업)은 지난 7월 26일 뉴욕시 근교에 있는 필립 로텔라 골프장에서 7월 월례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18명이 참가하여 그간에 연마한 기량을 발휘하였으며 1등상에는 네트 70을 친 정택수 회장이 차지하였고, 2등에는 잠시 뉴욕을 방문중인 뉴욕 총영사를 역임한 이현홍 전대사에게로 돌아갔다.

이대사는 네트 72를 쳤으며 명예

회원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이날 시상식과 저녁은 골프장 부근에 있는 이태리안 식당에서 있었으며 참가한 전원이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8월 대회는 30일에 있을 예정이다.

창립 3년이 된 골든 클럽은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골프 모임을 가지며 그 달에 생일은 맞는 회원들에게는 생일 케이크와 선물로 축하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세우고 있다.

대체로 20명 내지 30명이 골프대회에 참가한다. (투고자 한창섭 회장)

Young Professionals Party

11월 18일 저녁6시, Palisadium Restaurant

2세들을 위한 Young Professional Party가 11월 18일 뉴저지 Cliffside Park에 있는 Palisadium Restaurant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의대 뉴욕 지부 동창회는 같은 날, 같은 식당 MAIN HALL에서 연말 파티를 가질 예정이니, 다른 지부의 동문들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파티에서 동문들을 만나는 기쁨 뿐 아니라, 온 가족들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 함께 여행하는 즐거움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부모님 말씀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끈게 성장해온 우리2세들에게 이제는 좋은 친구/배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데에 있습니다.

물론 Young Professional Party에 참석했다고 해서, 백마탄 왕자나 선화공주 같은 규수를 단번에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바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한국 친구 뿐 아니라 미국인 친구조차 만날 시간이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통해 좋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어느 함춘회원 딸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엄마, 아빠, 저는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할 거예요. 제가 만약 미국 남자한테 시집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집안이 서로 자주 왕래해야

할텐데, 같은 자리에 모일 때마다 영어로 대화를 하시려고 안간힘을 쓰실 엄마 아빠가 눈에 선하네요. 차마 그렇게 헤드릴 수는 없어요. (지극한 효녀입니다)

미국 남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엄마 아빠가 하시는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 아무리 처음에는 좋다고 해도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될테니 그것도 못할 일이 아니겠어요?"

한국인 배필을 만나다라는 것이 외국인 배필을 만나는 것보다 반드시 더 낫다는 말은 아닙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의 결혼이라고 보다 두 집안끼리의 결혼이라고 한 지혜로운 옛말을 생각해 봄직도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정신연령, 같은 교육배경과 취미, 같은 종교와 종족의 남녀들끼리 만난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서로를 찾을 수 있는 의미있는 만남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호응이 좋으면 이런 모임을 자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당일 등록해도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미리 등록해 주면 주최측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혼자 오기가 속스럽게 생각되면, 주위의 사촌이나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참석하기 바랍니다.

<함춘회 회장>

Young Professionals Party등록서

Name
Address
Telephone
e-mail
Remarks

Payable to Ham Choon Club:\$ 45

보내실 곳: Mrs. Young Chul Kim
10 Takolusa Dr.,
Holmdel, NJ 07733

파티장 가까이 있는 호텔 :

Best Western Fort Lee 201-461-7000
Fort Lee Hilton 201-462-9000
The Glenpoint Marriot 201-836-0600
Holiday Inn 201-944-5000
Radisson Hotel Englewood 201-871-2020

하트랜드지역 소식

하트랜드 지역동창회 소식

9/29일 하트랜드 지역 동창회 (회장 김호원, 치대 55년 입학)가 열릴예정이다.

여기에는 재미 총동창회 이용락

회장이 하트랜드 지역동창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연락처 : 김호원 913-451-4999(B)>

祝 發 展

在美서울大 총동창회와 在美서울大同窓會報의 發展을 祝賀하며, 모든 同門들은
알차고 격조있는 會報를 기다립니다.

뉴욕 지역 동창회

회 장 최철용
차기 회장 한창섭
평 의 원 김영덕
최수용
권태전
윤정옥
이전구

<백만불 기금회원>

진성호, 추재옥, 오인석, 김병수, 최수용, 김영덕, 윤정옥, 이전구, 유창남, 황관일, 김진승, 허리훈, 허선행, 이준행, 강영선, 김용재, 이기범, 이재진, 변찬의, 김상각, 홍선경, 이경림, 방준재, 주의돈, 남상래, 조성준, 김기훈, 박승서, 이기형, 김연석, 동형근, 라준국, 황진환, 조대영, 허병렬, 심기련, 유진형, 오인환

<2000. 7. 1 ~ 2001.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박학일, 오인석, 김기태, 김태자, 윤정옥, 김정화, 선준영, 최영태, 정인식, 이준행, 이홍승, 김상각, 이기형, 조성준, 채일희, 오태희, 김영덕, 주의돈, 최형무, 장상길, 이문휘, 이재택, 변찬의, 정수일, 방준재, 양문석, 정인용, 이재원, 이경림, 이인길, 김제철, 이명희, 김용화, 송관호, 나연수, 이법선, 김택수, 이유관, 한창섭, 김중권, 이대영, 유무영, 조대영, 이운순, 정현진, 허리훈, 남상래, 박경원, 노용면, 이재진, 최철용, 이준무

<2001. 7. 1 ~ 2002.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이재덕

재미서울대 동문

남혜정 동문

<음대 95년 졸>

서울음대를 '95년에 졸업하고 현재 Boston University 에 수학중인 남혜정동문은 Boston Pop Orchestra와 2차에 걸쳐 초청협연을 하여 화려한 음악계의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5월 22일 Boston Symphony Hall에서 열린 제 116회 Boston Pops Orchestra 정기연주회에서 남혜정동문은 Mozart의 flute와 Harp를 위한 Concert 연주중 flute 독주자로 나서서 우아한 무대매너와 정교한 연주실력으로 관중들을 사로잡았다. 5월 22일의 연주는 지난 5월 19일 Boston University의 밤행사에서도 같은곡을 훌륭히 연주해낸 남동문을 Boston Pop Orchestra 지휘자인 Keith Lockhart씨가 특별히 지목하여 정기연주회에 특별초청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2천5백여명이나 넘는 관중들은 연상 남동문의 연주에 기립 박수로 환호하였다. Boston Symphony Orchestra 멤버들로 구성된 Boston Pop Orchestra는 지난 85년, 여름 콘서트 1백회를 돌파했으며 그 유명한 Arthur Fiedler, John William등이 상임 지휘자로 역임하였다. 남혜정(음대 91입)동문은 현재 Boston University 음대에서 박사과정을 마치는 중이며 동창회 행사며 특히 자선음악회에도 언제나 솔선하여 참여하는 참으로 자랑스런 뉴잉글랜드지부의 보배의 한 사람이다.

뉴잉글랜드지역 소식

뉴잉글랜드 지부 동정

뉴잉글랜드 지부 동창회(회장 이재신, 공대 57입)는 지난 2001년 6월 30일 Fitchburg에 있는 윤상래 전 총무의 사무실에서 3대 회장단의 첫 번째 모임을 갖고, 새로운 임원선출을 확정하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재신 신임회장은 강경식회장과 윤상래 총무 등 뉴잉글랜드 2대 회장단의 노고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지도와 도움을 부탁하였다.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새로운 임원진과 2001~2002년도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임원진>

회 장 : 이재신 (공 57입)

부회장 : 정정욱 (문 55입)
 총 무 : 변종원 (공 70입)
 재 무 : 윤용훈 (공 입), 홍지복 (간 70입)
 기 획 : 윤상래 (수 62입), 권이덕 (공 68입)
 장 학 : 김성빈
 지역사회발전 : 김동희
 음 악 : 황보엽 (음 65입)
 편 집 : 조한준
 학 생 : 강명구 (공 89입)

<2001 ~ 2002 사업 계획>

- 1) 친선 및 장학기금 마련 골프 대회
- 2) 연례 야유회
- 3) 자선 음악회
- 4) 연 총회
- 5) "Silk Road" 지원 사업

재미 동창회 회보는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면 재미 동문들의 삶의 역사이리라. 동문개인들의 활동의 동정과 지역동창회 활동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는 일은, 역사의 기록을 진리와 정의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던 우리 선조들의 밝은 유산은 되살리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역동창회 중에서도 5년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이 가장 활발한 뉴잉글랜드 지역동창회의 이사회와 임원회 회의록을 원문 그대로 게재하여 재미동창회 활동 기록의 자료로 남기 고자 합니다.

다른 지역 동창회에서도 이러한 기록을 보내주시면 재미 동창회보의 지역소식란에 게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서울대 동창회 보를 직접 읽으시겠습니까?
<http://www.snua.or.kr>

뉴잉글랜드 지역동창회 금년도 사업계획

< 뉴잉글랜드 지역 동창회 6월 이사회 / 임원회 회의록 >

일시 : 2001년 6월 30일, 토요일 6시 30분
 장소 : 윤상래 회원 사무실,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참석자 : 이재신 회장, 정정욱 부회장, 윤상래 기획, 변종원 총무, 조한준 편집, 김일영 (이상 6명)
 기록 : 조한준
 개최 : 이재신 회장

주요안건 및 내용

1. 임원구성
 회장 : 이재신, 부회장 : 정정욱, 장학 : 김성빈, 지역사회발전 : 김동희, 음악 : 황보엽, 회원간사 : 안효태, 기획 : 윤상래, 권이덕, 재무 : 윤용훈, 홍지복, 총무 : 변종원
2. 사업내용
 1) 한글학교 후원
 2) 노인대학 / 노인회 후원
 3) "Silk Road" 사업추진
 4) 2세 komico 행사 — 회장 과 기획담당
 5) 연말총회 : 2002년 1월 3째 주 — 회장과 기획담당
 6) 광고 : 총무와 편집이 추진
 7) 음악회
3. 사업계획
 1) 2001년 9월 : Golf 대회 (서울대 및 6개 대학)
 2) 10월 : "Domestic Violation"
 3) 11월 : 음악회
 4) 1월 : 연 총회
 5) 2002년 4월 : Golf 대회
4. 기타
 1) 기획과 장학기금 통합 고려
 2) 총무 및 편집 전 윤상래 총무로부터 관련 서류 전달받음.

< 뉴잉글랜드 지역 동창회 7월 이사회 / 임원회 회의록 >

일시 : 2001년 7월 7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 : 이재신 회장 자택
 참석자 : 이재신 회장, 정정욱 부회장, 윤용훈 재무, 변종원 총무, 조한준 편집
 기록 : 조한준
 개최 : 이재신 회장

주요안건 및 내용

1. 매번 회의 내용 모든 임원에게 우편으로 발송 할 것임.
2. 위촉장과 감사장 7월 8일부로 발송될 것임.
3. 회장단/이사회 명단 및 사업계획이 발송될 것임
4. 금년 사업계획
 1) 친선 및 장학기금 기부 마련 골프대회 : 9월 중순예정, MA 과 RI 중간지점
 2) 연례야유회
 3) 자선음악회 : - 부회장 총괄하여 황보엽 음악담당과 준비 - 11월중으로 예정 - 장소 : 수준 높은 음악감상을 위한 장소 탐색 (NEC 고려)
 4) 연 총회 : 2002년 1월 3째 주
 5) "Silk Road" 지원사업
 6. 예산안 : 구체적 내용은 윤용훈 재무 담당이 설계
6. 회비 결정 : 이사임원 : 년 \$200
 일반회원 : 년 \$60
 학생회원 : 년 \$30
 cf) 회비 미납자에게는 추가 우편이 발송될 것임. 참고로 작년 납부자는 이사 17명, 회원 15명
7. 음악회 광고를 여러 번 한다. - 총무/편집 담당,
8. 음악회 관계로 이재신 회장 황보엽 음악담당 contact.
9. 정정욱 부회장은 음악회와 Golf 대회를 총괄한다.
10. 강명구 회원을 학생간사로 임명한다.
11. 이월금 : \$8,760.53(\$7,000을 먼저 받았음)

祝 發 展

在美서울대 총동창회와 在美서울大同窓會報의 發展을 祝賀하며, 모든 同門들은 알차고 격조있는 會報를 기다립니다.

뉴잉글랜드 지역 동창회

회 장 : 이재신
 부회 장 : 정정욱
 총 무 : 변종원
 재 무 : 윤용훈, 홍지복
 기 획 : 윤상래, 권이덕
 장 학 : 김성빈
 지역사회발전 : 김동희
 음 악 : 황보엽
 편 집 : 조한준
 학 생 : 강명구
 평 의 원 : 강경식, 박경민, 윤상래

<백만불 기금회원>

이재신, 이금하, 정태진, 김제호

<2000. 7. 1 ~ 2001.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변화경, 정태진, 윤상래, 윤용훈, 김인수, 김문소

<2001. 7. 1 ~ 2002.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변화경

휴스턴지역 소식

휴스턴 지부 연례 장학기금 모금 음악회

미주 서울대학교 동창회 휴스턴 지부는 오는 8월 23일 7시, Adams Mark Hotel에서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한다. 휴스턴 지부 동창회는 올해로 제 11회를 맞이하는 이 음악회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지난 19년간 총 52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장학금 대상자는 다섯 분야에서 선정되는데, PSAT, SAT, 또는 학교 졸업 성적이 뛰어난 자(Academic Scholarship), 학생회장 및 임원 또는 학교를 대표한 Girl State or Boy State 등에 뽑힌 자(Leadership Scholarship), 음악, 미술, 운동에 특별한 상을 받은 자(Music, Fine Arts, and Ath-

letic Scholarship), 영어에 특출한 자 (고임성주 추모 장학금), 텍사스주 안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자 (ANACON 장학금)등으로 구성된다. 그 동안 음악회에는 동창 및 동창 자녀, Music scholarship 수혜자, 그리고 전문 음악인들이 출연해왔다.

금년에는 전문 국악인 이다희씨의 창, 박소영씨(Rice University)와 신정양씨 (Rice University)의 피아노 연주, 조순희씨(Rice University)와 신향숙씨(University of Houston)의 성악 연주, 그리고 Julie Kim (University of Texas)의 Flute 연주로 화려하게 진행 될 예정이다.

<변중무 동문>

이진수 동문(의대 68입)

20년간 M.D. Anderson Cancer Center에서 일해온 이진수 동문(의대 68입)이 신설된 국립 암센터 병원장으로 발탁되어 귀국 예정이다.

특히 이진수 동문 자녀들은 장학금 모금 음악회에 여러번 출연진으로 수고하였으며 이진수 동문과 부인 최영균 동문(간호대 70입) 또한 다년간 장학위원과 재무담당으로 애써 주셨다.

<변중무 동문>

워싱턴 DC지역 소식

소프라노 조수미 초청음악회

워싱턴 지역 동창회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동문을 초청한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그 음악회는 8월 25일(토)오후 8시 George Mason University의 Center for the Arts, Concert Hall에서 열렸다. 이 음악회는 워싱턴 지역 동창회가 소프라노 조수미 초청 음악

회 준비위원회(위원장 문성길, 수석부위원장 진금섭, 총무 송상희동문)를 구성하여 조수미 동문의 음악적 재능을 워싱턴지역에 선보이는 기회이기도 하고 지역동창회의 중요사업으로 DC지역 전임원 동문들이 성공적인 행사를 위하여 수고하셨다. 연락 703-914-2000, 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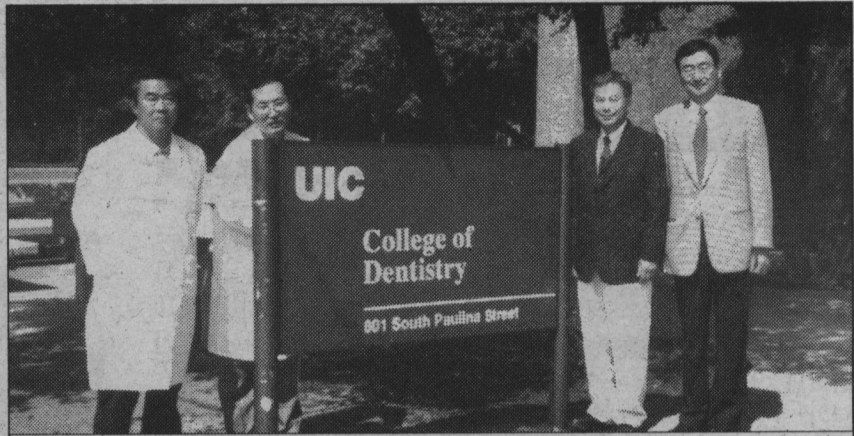


사진 좌로부터 김종철, 하청윤, 소진문, 고재승교수

치과대학 동문동정

시카고에 있는 UIC (The University of Illinois of Chicago)의 치과대학은 모교의 치과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양교의 학생과 교수의 교환방문 연구 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 방학 중에도 세 동문들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바 그 동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蘇鐵文 (치대 62년 졸업, 現在 UIC 치과대학교수)동문은 2001년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의 Paris에서 열릴 제 18차 세계 소아치과학회 (The 1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ediatric Dentistry)에서 연구논문 (The Efficacy of dual cure: dental sealant with bonding primer)를 발표할 예정이다.

高在丞 (치대 67년 졸업, 서울대학교수) 동문은 지난해 12월초 모교 치대학장의 임기를 마치고, NY주립대학(SUNY at Buffalo)에 치과대학의 교환교수로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달째 근무중인데, 지난 8월 1일에는 자매대학인 UIC에 부인 차혜영동문

(치과대학 67년 졸업)과 함께 방문하여 교환학생 및 연구 Program과 치과교육의 혁신(현재 한국에는 치과의사의 공급과잉상태이며 미국의 치과의사의 배출 숫자의 격감을 보이고 있는 상태임)등에 관하여 UIC당국자들과 깊이 있는 의견교환을 하였다.

金鍾喆 (치대 77년 졸업 서울대학교수) 동문은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UIC에 교환교수로 연구 활동하였으며, 모교이 발전을 위하여 1) 교과과정 2) 學制 3) 미국 치과학회의 연구 방향등의 구상에 전념하였다.

河清潤 (치대 87년 졸업)동문은 UIC 치과대학 General Residency Program에서 7월 1일부터 가정치과 수련 의로서 수학중이다.

김미영 (치대 88년 졸업)동문은 UIC 치대 소아치과에서 지난 1월부터 International Fellow로 공부하고 있다.

<투고자 하청윤 동문>

祝 發 展

在美서울大 총동창회와 在美서울大同窓會報의 發展을 祝賀하며, 모든 同門들은 알차고
격조있는 會報를 기다립니다.

휴스톤 지역 동창회

회 장 : 이육배
 명예원 : 박태우

<백만불 기금회원>

박승균, 유금용, 김종열, 박민자

<2000. 7. 1 ~ 2001.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조시호, 김정훈, 탁순덕

<2001. 7. 1 ~ 2002.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1 동 정

수 상

▲吳鉉明(48년 音大卒·성악가)
=지난 6월 13일 세종예술음악 협회와 아름다운 우리 가곡 부르기 운동 중앙회가 수여하는 한국 가곡 성악가 대상을 수상함.

▲朴英子(50년 師大卒·세계시인 시낭송 문학연구회장)=최근 미국 International Writers and Poets Association & the University of Toledo로부터 「Meritorious Achievement賞」을 받음.

▲金性洙(52년 法大卒·오양수산 회장)=지난 5월 31일 제6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 산업훈장을 받음.

▲金在權(53년 文理大入·美브라운대 석좌교수)=지난 6월 8일 故 崔載喜교수를 기리기 위해 유족과 제자 등이 제정한 제13회 曙宇 철학상을 수상함.

▲金環東(59년 文理大卒·모교 사회학과 교수)=지난 7월 13일 성곡학술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16회 성곡학술문화상(인문사회과학 부문)을 수상함.

▲朴椿浩(59년 文理大卒·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지난 5월 31일 제6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 산업훈장을 받음.

▲李東寧(61년 工大卒·모교 재료공학부 교수)=지난 6월 1일 호암재단이 수여하는 2001년도 호암상(공학상)을 받음.

▲朴龍安(61년 文理大卒·모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지난 5월 31일 제6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음.

▲張會翼(61년 文理大卒·모교 물리학부 교수)=지난 5월 28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심산사상연구회가 수여하는

제14회 심산상(心山賞)을 수상함.

▲孫吉丞(63년 商大卒·SK그룹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6월 12일 한국 경제신문사가 수여하는 제10회 다산경영상(전문경영인 부문)을 수상함.

▲李海揆(64년 法大卒·삼성중공업 부회장)=지난 6월 20일 투룰프 로 노르웨이대사로부터 노르웨이 왕실이 주는 「커멘더」 훈장을 수상함.

▲金貴坤(67년 農大卒·모교 조경학과 교수)=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비무장지대의 생태가치를 집중 연구해온 공로로 녹조근정훈장을 받음.

▲安輝濤(67년 文理大卒·모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지난 6월 23일 예술원 대회의실에서 제4회 한국미술저작상을 수상함.

▲崔仁壽(70년 美大卒·모교 조소과 교수)=지난 6월 23일 예술원 대회의실에서 제15회 「김세중 조각상」을 수상함.

▲黃映愛(71년 美大卒·조각가)=최근 월간 미술시대가 제정한 제11회 미술작가상을 수상함.

▲金京林(73년 文理大卒·연세대 교수·서울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장)=최근 제5회 서울시 환경상을 수상함.

▲辛鍾桂(77년 工大卒·모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지난 6월 13일 미국 미시건주립대에서 미국 조선학회가 수여하는 최우수 논문상인 「앨머 한」 상을 수상함.

▲權鐘元(97년 醫大卒·모교 병원 방사선과 전공의)=지난 6월 22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제1회 청년슈바이처상 봉사상을 받음.

▲최윤신(47기 AMP·동양고속건설 대표)=지난 5월 31일 제6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 산업훈장을 받음.

▲金永大(49기 AMP·한국전기안전공사 이사장)=지난 6월 4일 가스안전사고를 현저히 감소시킨 공로로 국민훈장 모

란장을 받음.

이동·선임

▲朴東緒(53년 法大卒·모교 행대원 명예교수)=5월 24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명예음부즈맨에 위촉됨.

▲徐廷旭(57년 工大卒·前과학기술부 장관)=지난 6월 14일 출범한 세계 인터넷 청소년 연맹(www.wiffy.org)의 한국연맹 총재에 추대됨.

▲康賢斗(61년 文理大卒·한국 디지털위성방송 사장)=지난 6월 15일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중국 베이징 방송대학 석좌교수에 임명됨.

▲孫鳳鎬(61년 文理大卒·모교 사회교육과 교수)=5월 24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명예음부즈맨에 위촉됨.

▲愼平宰(61년 商大卒·교보증권 이사회 의장)=지난 6월 10일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 제3대 이사장에 취임함.

▲洪昌基(61년 醫大卒·서울중앙병원장)=지난 6월 25일 한국 의과대학 인정평가위원회 제3대 위원장에 선출됨.

▲孔鍾源(62년 文理大卒·시니어저널 주필)=지난 6월 12일 한국불교언론인회 회장에 선임됨.

▲羅根炯(62년 師大卒·인천시 교육청 교육국장)=지난 6월 21일 민선 3대 인천시 교육감에 선출됨.

▲辛國煥(63년 法大卒·前산업자원부 장관)=지난 6월 2일 한국유통정보센터 상임고문에 위촉됨.

▲鄭東潤(63년 法大卒·고려대 법과대학장)=지난 6월 19일 서귀포 KAL호텔에서 열린 전국 법과대학장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金永珪(64년 法大卒·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지난 6월 7일 중앙일보 임시 주주총

알림

서울대 동창회보를 직접 읽으시렵니까?

<http://www.snua.or.kr>

서울대학교의 대학신문을 직접 읽으시렵니까?

<http://www.snu.ac.kr>

JOKES

There are four advantages to Getting old and forgetful:
One, you meet new friends Every day; two, every joke You hear is new; three, you Can hide your own Easter Eggs; and I don't remember The other one.



Girl: I'm sorry but I don't Kiss on the first date.
Boy: Then how about on the Last one?

회에서 초대 사외이사에 선임됨.

▲金鍾河(64년 文理大卒·국회의원)=지난 6월 12일 국회 부의장에 선출됨.

▲孫善奎(64년 法大卒·前건설교통부 차관)=지난 6월 4일 한국감정평가연구원 초대 원장에 취임함.

▲卞柱仙(64년 師大卒·세계 걸스카우트 아태지역 의장·本會 副會長)=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걸스카우트 아태지역 대회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의장에 재선임됨.

▲司空晝(64년 商大卒·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지난 6월 7일 중앙일보 임시 주주총회에서 초대 사외이사에 선임됨.

▲崔國鎭(64년 醫大卒·모교 외과학교실 교수)=최근 열린 대한암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임됨.

▲趙容直(65년 文理大卒·삼영

화학그룹 부회장·新大院同窓會長)=지난 6월 8일 열린 국민건강보험동우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됨.



▲崔熙善(65년 師大卒·인천교대 교수)=지난 6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에 임명됨.

▲金慶漢(66년 法大卒·법무부 차관)=지난 5월 27일 서울 고검장에 임명됨.

▲金源治(66년 法大卒·대검 감찰부장)=지난 5월 27일 대검 형사부장에 임명됨.

▲朴滄烈(66년 法大卒·법무부 보호국장)=지난 5월 27일 대검 공안부장에 임명됨.

▲金鶴在(67년 法大卒·법무부 검찰국장)=지난 5월 27일 법무부 차관에 임명됨.

▲金秀哲(67년 保大院卒·성형외과의원장·保大院同窓會長)=최근 「2001년 미스코리아 부산 선발대회」 심사위원에 위촉됨.

▲趙容直(65년 文理大卒·삼영

▲崔永煥(67년 行大院卒·세종대 부총장)=지난 5월 10일 세종사이버대 초대 총장에 취임함.

▲韓竣皓(68년 農大卒·前중소기업청장)=지난 5월 25일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에 취임함.

▲金大雄(68년 法大卒·대검 중수부장)=지난 5월 27일 서울지검장에 임명됨.

▲金昇圭(68년 法大卒·대검 공판송무부장)=지난 5월 27일 광주고검장에 임명됨.

▲金永喆(68년 法大卒·대구고검장)=지난 5월 27일 법무연수원장에 임명됨.

▲安載奎(68년 商大卒·前의환은행 남대문지점장)=지난 5월 25일 외환코메르츠투자신탁운용(주) 사장에 선임됨.

▲全義進(69년 工大卒·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지난 6월 8일 제6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에 위촉됨.

▲明魯昇(69년 法大卒·법무부 법무실장)=지난 5월 27일 부산지검장에 임명됨.

▲柳昌宗(69년 法大卒·대검 강력부장)=지난 5월 27일 대검 중수부장에 임명됨.

▲鄭鎮圭(69년 法大卒·울산지검장)=지난 5월 27일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임명됨.

▲金毅宗(70년 文理大卒·한국증권금융 상무)=지난 6월 12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에 선임됨.

▲朴丁三(70년 文理大卒·前국민일보 부사장)=지난 6월 22일 경향미디어그룹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崔聖載(70년 文理大卒·모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지난 6월 8일 개최된 한국노년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취임함.

▲黃善泰(70년 法大卒·청주지검장)=지난 5월 27일 대검 검찰부장에 임명됨.

▲金德洙(70년 商大卒·한국산업은행 이사)=지난 7월 1일 중앙메이저 상임고문에 선임됨.

▲朴鍾秀(70년 商大卒·대우증권 사장)=지난 6월 15일 증권협회 부회장에 선임됨.

▲高永宙(71년 工大卒·서울지검 1차장)=지난 6월 7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장에 임명됨.

▲金昊植(71년 工大卒·前관세청장)=지난 6월 8일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됨.

▲朴武(71년 文理大卒·신한생명 고문)=지난 6월 6일 (주)머니투데이금융신문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郭永哲(71년 法大卒·서울고검 차장)=지난 5월 27일 울산지검장에 임명됨.

▲宋光洙(71년 法大卒·부산지검장)=지난 5월 27일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됨.

▲趙圭政(71년 法大卒·제주지검장)=지난 5월 27일 청주지검장에 임명됨.

▲蔡秀哲(71년 法大卒·춘천지검장)=지난 5월 27일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에 임명됨.

▲金仁竣(71년 商大卒·모교 경제학부 교수)=최근 열린 한국금융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1대 회장에 선출됨.

▲孟廷柱(71년 商大卒·국무조정실 경제정책조정관)=지난 6월 12일 한국증권금융 사장에 선임됨.

▲郭贊浩(71년 新大院卒·민주평통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고려대 교우회 정기총회에서 제25대 상임이사로 재선임됨.

▲洪錫炫(72년 工大卒·중앙일보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6월 6일 홍콩에서 열린 세계신문협회(WAN)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에 선출됨.

▲河沅(72년 文理大卒·조선일보 총무국장)=지난 6월 1일 조선일보 출판국장에 선임됨.

▲金永珍(72년 法大卒·창원지검장)=지난 5월 27일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됨.

▲金在琪(72년 法大卒·대전고검 차장)=지난 5월 27일 춘천지검장에 임명됨.

▲張倫碩(72년 法大卒·법무부 기획관리실장)=지난 5월 27일 창원지검장에 임명됨.

▲鄭相明(72년 法大卒·서울지검 동부지청장)=지난 5월 27일 대구고검 차장에 임명됨.

▲俞香淑(72년 藥大卒·인간유전체 연구사업 단장)=지난 6월 8일 제6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에 위촉됨.

▲金相喜(73년 法大卒·서울고검 형사부장)=지난 5월 27일 부산고검 차장에 임명됨.

▲陳大濟(74년 工大卒·삼성전자 사장)=지난 6월 8일 제6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에 위촉됨.

▲姜敬熙(74년 農大卒·前현대투신운용 대표)=지난 6월 14일 굿모닝투신운용 대표이사에 선임됨.

▲申彥茸(74년 法大卒·부산지검 1차장)=지난 6월 7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장에 임명됨.

▲李鍾伯(74년 法大卒·서울지검 서부지청장)=지난 5월 27일 대전고검 차장에 임명됨.

▲林承寬(74년 法大卒·서울지검 의정부지청장)=지난 6월 7일 서울지검 동부지청장에 임명됨.

▲洪景植(74년 法大卒·수원지검 성남지청장)=지난 6월 7일 서울지검 북부지청장에 임명됨.

▲柳錫烈(74년 商大卒·삼성증권 사장)=지난 6월 4일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朴煥圭(75년 文理大卒·前동양카드 부사장)=지난 5월 24일 우리금융지주회사 전무에 선임됨.

▲邊龍植(75년 文理大卒·조선일보 사장실장)=지난 6월 1일

조선일보 편집국장에 선임됨.

▲金英薰(75년 法大卒·대구도시가스 회장·한몽경제위원장)=지난 6월 26일 대구 파크호텔에서 몽골 명예영사에 취임함.

▲李棋培(75년 法大卒·서울지검 3차장)=지난 5월 27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임명됨.

▲林梁云(75년 法大卒·서울지검 북부지청장)=지난 5월 27일 광주고검 차장에 임명됨.

▲林采珍(75년 法大卒·수원지검 2차장)=지난 6월 7일 서울지검 2차장에 임명됨.

▲洪錫肇(75년 法大卒·서울지검 2차장)=지난 6월 7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장에 임명됨.

▲方在旭(75년 師大卒·충남대학교 교수)=지난 5월 19일 전북대에서 열린 한국약용작물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朴重鎭(75년 商大卒·동양증권 사장)=지난 6월 2일 동양증권 사장에 선임됨.

▲黃永基(75년 商大卒·삼성투신운용 사장)=지난 6월 2일 삼성증권 사장에 선임됨.

▲姜天錫(76년 社會大卒·조선일보 편집국장·本報 論說委員)=지난 6월 1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에 선임됨.

▲朴相吉(76년 法大卒·대검 수

사기획관)=지난 6월 7일 서울지검 3차장에 임명됨.

▲安永昱(77년 法大卒·부산지검 2차장)=지난 6월 7일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에 임명됨.

▲林來玄(77년 法大卒·광주고검 차장)=지난 5월 27일 대검 공판송무부장에 임명됨.

▲黃禹錫(77년 獸醫大卒·모교 수의학과 교수)=지난 6월 8일 제6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에 위촉됨.

▲宋熙永(78년 人文大卒·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지난 6월 1일 조선일보 사장실장에 선임됨.

▲趙大宇(79년 大學院卒·충남대학교 교수)=최근 충남대 경창대학장에 취임했으며, 충남대 경영대학원장과 경영경제연구소장을 겸임함.

▲姜炳國(82년 人文大卒·변호사)=지난 6월 18일 경향신문 정기주총에서 감사에 선임됨.

▲柳哲基(83년 社會大卒·서울경제신문 정경부장)=지난 6월 6일 머니투데이 금융신문 편집국장에 선임됨.

▲朴竣孝(85년 法大卒·대통령 민정수석실 행정관)=지난 6월 7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에 임명됨.

▲趙應天(85년 法大卒·대통령 민정수석실 행정관)=지난 6월 7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에 임명됨.

祝 發 展

在美서울大 동동창회와 在美서울大同窓會報의
發展을 祝賀하며, 모든 同門들은
알차고 격조있는 會報를 기다립니다.

하와이 지역 동창회

회 장 : 정재훈
평 의 원 : 구해근

<백만불 기금회원>

<2000. 7. 1 ~ 200.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2000. 7. 1 ~ 2002.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李俊鎬(24기 AMP·前대신투 자신타운용 사장)=지난 5월 29일 하나로증권 대표이사 부사장에 선임됨.

▲徐淸源(26기 AMP·국회의원)=지난 6월 2일 중앙대 총동창회 제11대 회장에 선출됨.

▲南相默(32기 AMP·한국공인 회계사회 전무이사)=지난 6월 25일 열린 제2회 공인회계사회 평의원회에서 상근부회장에 선임됨.

▲李範觀(24기 ACAD·대검 공안부장)=지난 5월 27일 인천지검장에 임명됨.

▲朴永淳(43기 ACAD·현대시멘트 상임감사)=지난 6월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준칙위원회 위원에 위촉됨.

행사·출간

▲林光洙(52년 工大卒·임광토건 회장·충북 협회장·工大同窓會長)=지난 6월 2일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충북협회(충북도민회) 정기총회 및 충북출신 영전 인사 축하회를 개최했으며, 도내 효자효부에 대한 표창식을 가짐.

▲李榮德(52년 師大卒·월드컵



문화시민중앙협의회 회장)=지난 6월 19~20일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2002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일 축구 저널리스트 세미나」를 가짐.

▲柳致松(53년 商大卒·대한민국 헌정회장)=지난 6월 19일 재향군인회관에서 「한반도 통일과 안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柳正烈(52년 文理大入·한국외대 명예교수)=지난 5월 15~18일 영국 KENT에 있는 LEED CASTLE에서 Oxford대학이 「걸프와 아시아(The Gulf and Asia)」를 주제로 개최한 비공개 원탁토론회에 참석함.

▲李相玉(57년 文理大卒·유엔 한국협회장)=지난 6월 28~30일 부산 동의대에서 남북한 유엔 가입 10주년 기념 전국 대학생 모의 유엔총회를 개최함.

▲申允植(59년 文理大卒·하나로통신 사장)=지난 6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 정보통신 summit 2001 제1회 Mid Year Forum」에 참석,

▲李相圭(69년 文理大卒·LG화학 부사장·한국발포스티렌 재활용협회장)=지난 6월 28일 서울 힐리데이인호텔에서 스티로폼 포장재의 분리수거-재활용 우수지자체 시상식을 가짐.

▲金承國(60년 文理大卒·단국대 총장)=지난 6월 25일 자매대학인 몽골국립대에서 5만 달러 상당의 치과 기자재 및 설비를 투입한 「몽골단국치과병원」개원식을 가짐.

▲孫京植(61년 法大卒·제일제당 회장·本會副會長)=지난 6월 26일 한국 식품개발연구원에서 「21세기 식품산업의 전망과 식품기술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許 陞(62년 文理大卒·한국 소비자보호원장)=지난 6월 7일 소보원 세미나실에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와 소비자보호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徐丙喆(63년 文理大卒·통일연구원장)=지난 6월 18~19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한반도의 변화와 유럽」이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가짐.

▲康容植(63년 法大卒·21세기 방송연구소 이사장)=지난 6월 22일 한국 방송회관에서 「위성방송 출범과 매체간 공존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柳莊熙(63년 商大卒·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지난 6월 9일 웨라톤워커히에서 「세계화의 도전, 기회와 한국경제의 개방」을 주제로 하계 정책세미나를 가짐.

▲金重雄(64년 法大卒·현대경제연구원장)=지난 6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제조업의 서비스컴퍼니화 전략」과 「가계 조사에 나타난 민간 소비심리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12회 새천년 경영전략세미나를 가짐.

▲金明子(66년 文理大卒·환경부 장관)=지난 7월 4일 중국 북경을 방문, 「한국환경산업·기술 상설전시관」개관식 행사를 개최하고, 시에젠화 환경장관과 양국간 환경산업기술교류방안에 대한 회담을 가짐. 또 6일 독일 베를린을 방문, 트리튼 환경장관과 제1차 한·독 환경장관회의를 갖고 환경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함.

▲郭柄善(70년 師大卒·한국교육개발원장)=지난 6월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교육 위기의 해부-실체와 원인 진단」을 주제로 교육정책포럼을 가짐.

▲李景台(70년 商大卒·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지난 6월 28일 홍콩 매리어트호텔에서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짐.

▲羅素善(71년 藥大卒·한국과학재단 전문위원)=지난 6월 9일 서울중앙병원에서 「여성생명과학기술 포럼」창립총회를 가짐.

▲金龍文(72년 文理大卒·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장)=지난 6월 10일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활동의 일환으로 의정부시 의정부1동 동서병원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며,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의 일환으로 의정부시 호원동 「통일안국사」를 방문하여 병장고, 분유, 기저귀 등을 전달함.

▲鄭用德(73년 農大卒·모교행대원 교수·한국행정학회 회장)=지난 6월 22~23일 용인 삼성생명휴먼센터에서 「지방자치와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가짐.

▲柳貞順(73년 家政大卒·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지난 6월

23일 명동성당 카톨릭회관 강당에서 한국빈곤문제연구소(부설 빈민상담센터) 창립총회 겸 공청회를 가짐.

▲李根京(75년 商大卒·기술진흥보증기금 이사장)=지난 6월 26일 부산 기술정보 본점 회의실에서 (주)인츠커뮤니티 등 벤처기업 대표들을 초청, 간담회를 가짐.

▲金貳煥(75년 新大院卒·아남반도체 부사장·한국광고주협회 부회장)=지난 5월 28일 성균관대,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국가 신인도와 기업IR 전략」에 관해 특강함.

▲曹興植(76년 社會大卒·모교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회장)=지난 6월 8일 서울 YWCA 대강당에서 「학교 붕괴의 실상과 사회복지적 대응」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가짐.

▲許 埴(85년 美大卒·전남대학교 교수)=지난 6월 12~25일 서울 금산갤러리, 7월 2~8일 광주 신세계 갤러리에서 「익명인간에 대한 역사적 탐구」라는 주제로 제7회 개인전을 가짐.

▲裴恩美(88년 美大卒·서양화가)=지난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 관훈동 썬&문 갤러리에서 제4회 개인전을 가짐.

▲卞弟男(89년 音大卒·이화여대 강사·대금정악 전수자)=지난 6월 8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대금 독주회를 개최, 대금독주곡 「時用別曲」「꿈」「回想」과 대금 산조(한주환류) 등을 선보임.

▲金泳淑(93년 音大卒·피아니스트)=지난 6월 9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흐, 멘델스존, 베토벤, 라흐마니노프 등의 작품으로 일시 귀국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李昭殷(93년 音大卒·모교 강사)=지난 7월 2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모차르트, 슈만, 리스트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정리=安興燮기자)

모교 崔滿麟 명예교수

회고전서 조각·드로잉 작품 선보여

한국 추상조각의 1세대 작가인 모교 崔滿麟(58년 美大卒) 명예교수(사진)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서울 순화동 호암갤러리에서 45년간의 작품세계를 되돌아 보는 회고전을 가졌다.

대표작인 「태」시리즈, 「점」시리즈, 「O」시리즈 등 조각 90여 점과 드로잉 30여 점 등 총 1백20여 점을 선보였다.

50~60년대 품미했던 추상표현주의 운동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국적인 미를 조각으로 표현해온 崔교수는 자연과 우주의 조화, 그리고 그 근원을 형상으로 드러내는 등 동양정신의 구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60년대 초반 한자의 획에서 드러나는 표상 이미지를 형상화한 「천, 지, 현, 황」시리즈와 장승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일, 월」시리즈를 통해 서구 미술의 극복과 우리 것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보여줬다.

70년대 신체 장기의 일부를



연상케 하거나 모태에서 느껴지는 생명 이미지를 조형화한 「태」시리즈, 80년대 이후 서로 다른 기운의 상생과 합일을 강조하는 태극의 형태를 띤 「O」시리즈 등이 대표작이다.

80년대 후반부터 환경조형물 제작에 적극 나서 국내 환경조각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8회 대한민국 환경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회고전에서는 야외 설치된 환경조형물들을 슬라이드에 담아 한 눈에 감상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모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한 崔교수는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월 미대를 정년 퇴임했다.



회고전서 조각·드로잉 작품을 주제로 하계 정책세미나를 가짐.

▲金明子(66년 文理大卒·환경부 장관)=지난 7월 4일 중국 북경을 방문, 「한국환경산업·기술 상설전시관」개관식 행사를 개최하고, 시에젠화 환경장관과 양국간 환경산업기술교류방안에 대한 회담을 가짐. 또 6일 독일 베를린을 방문, 트리튼 환경장관과 제1차 한·독 환경장관회의를 갖고 환경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함.

▲鄭用德(73년 農大卒·모교행대원 교수·한국행정학회 회장)=지난 6월 22~23일 용인 삼성생명휴먼센터에서 「지방자치와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가짐.


▲柳貞順(73년 家政大卒·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지난 6월



23일 명동성당 카톨릭회관 강당에서 한국빈곤문제연구소(부설 빈민상담센터) 창립총회 겸 공청회를 가짐.

▲李昭殷(93년 音大卒·모교 강사)=지난 7월 2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모차르트, 슈만, 리스트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정리=安興燮기자)



華 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김상일(94년 農生大卒)군·설향양=7월 15일 15시.

모교소식

외국인교수 매년 1백명씩 총원

전체 교수정원의 20% 늘릴 방침

모교가 외국인 교수를 내년부터 매년 1백명씩 총원, 3백명선까지 늘리기로 하고 정부와 예산지원 등 구체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모교 李基俊총장은 대학 사회에 지적 자극 등 새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교수를 연간 1백명 정도씩 유치하고 향후 전체 교수정원(1천5백여 명)의 20%선(3백여 명)까지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모교의 정식 외국인 교수는 단 3명이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IT)분야의 경우 외국인 교수 1인당 1억원씩 대응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의해옴에 따라 모교는 내국인 교수와의 형평성을 고려, 정보통신부 지원자금은 외국인 교수의 초기 연구자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1인당 10만 달러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우수한 외국 연구인력의 초빙작업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후보추천위

孔大植·金一燮·朴聖姬 동문 위촉



孔大植



金一燮



朴聖姬

모교 교수로만 구성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후보추천위원회」에 금년부터 동문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모교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후보추천위원으로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동문 3명을 추천해 달라고 본회에 의뢰해왔다.

이에 따라 본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한테크시스템 孔大植(60년 工大卒)대표, 한국회계연구원 金一燮(69년 商大卒)

원장, 한국경제신문 朴聖姬(77년 家政大卒)논설위원 등 3명을 모교에 추천했으며, 지난 6월 18일 2년 임기의 후보추천위원회에 위촉됐다.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선임위원(총 17명 이내)으로 나뉘며, 당연직 위원은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기획실장, 기획부실장이며, 선임위원에는 인문·사회계 교수 3명, 자연계 교수 4명, 예능계 교수 1명, 동문 3명이 포함돼 있다.

연합전공 이수규정 제정

모교는 내년 1학기부터 학사과정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합전공제 이수규정을 최근 제정했다.

모교는 전공주임이 결정되는 다음 학기부터 이수교과목을 정하고 교과목을 조직, 개발하는 등 교과과정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신설을 준비중인 전공은 PPE(철학·정치·경제), 한국학, 도시학, 기술경영학, 생명학 등 모두 5개다.

연합전공제는 2개 이상의 기존전공을 연합해 만드는 새로운 전공분야로 복수전공과는 달리 졸업시 하나의 학위를 받게 된다. 4학기 이상 6학기 이하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연합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재학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초기에는 각 연합전공에 참여하는 학과 소속 학생만이 연합전공에 지원 가능하며, 2000학번만을 대상으로 하되 99학번 이상도 자격이 있다면 참여가 가능하다.

연세대와 세부학술교류

모교는 지난해 10월 25일 체결한 학술교류에 관한 협정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간의 세부 학술교류에 관한 협정서」를 지난 5월 30일 연세대에서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교는 공동 수서 등 도서관 업무의 협력과 자료의 교류, 슈퍼컴퓨터 공동 이용 등 전산시스템 자원의 교류, 학술교류를 위한 추가대상을 발굴하고 세부적인 교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생활과학대학 부속 어린이집

여름캠프 및 토요일작교실 실시

모교 생활과학대학 부속 어린이집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직원, 동문 자녀 및 관악구민의 자녀를 위한 제3회 여름캠프 및 토요일작교실을 8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모교 관악캠퍼스와 주변환경을 활용하여 교내 전문대에서 별자리 관찰, 캠프파이어, 관악산 등반(이상 여름캠프), 과학교실, 공작교실, 글짓기교실 및

견학(이상 토요일작교실)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문의: 880-5766, 5767)

■여름 캠프 △대상: 초등학교 100명 △일시: 2001년 8월 18일 오후 2시부터 8월 19일 오후 5시까지 △비용: 5만원

■토요일작교실 △대상: 초등학생 60명 △일시: 2001년 8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용: 4만원

대학원 석·박사과정 후기모집

인문·사회 기초학문 분야 미달

모교가 학생 충원을 위해 올해부터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대해 후기모집에 나섰으나 인문·사회대 등 기초학문 분야 박사과정은 정원을 못 채웠다.

그러나 전문대학원과 법대·경영대 등 실용학문 분야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 6월 23일 대학원 후기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4백71명을 모집한 석사과정에 8백96명이 지원해 평균 1.90대

1, 1백59명을 뽑는 박사과정에 2백35명이 접수해 1.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19명을 뽑기로 한 사회대 박사과정에 3명만 지원해 0.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자연대(1.4대 1)와 사범대(1.2대 1), 농생대(1.4대 1) 등도 정원을 겨우 넘었다. 이에 반해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은 각각 6대 1, 4대 1, 법대와 경영대는 각각 5대 1, 3대 1의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燮)

제11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후보 추천

서울대인의 영예이며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의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매년 개교기념일에 발표되는 수상자는 모교에서 학위(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한 분이거나 모교에 장기간 봉직한 분으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이 대상이 됩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 각계 동문들께서 알맞는 후보 인물을 추천해주시길 바랍니다.

8월 5일까지 모교 기획담당관실(전화: 880-5081, 5589)로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소개하는 글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祝 發 展

在美서울大同窓會報의 發展을 祝賀하며, 모든 同門들은 새로운 會報를 기다립니다.

워싱턴 지역 동창회

회 장: 황수택 평 의 원: 양용관

<백만불 기금회원>

<2000. 7. 1 ~ 2001.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2001. 7. 1 ~ 2002. 6. 30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부 음

金正璣 동문 (문리대 61년 입학) 별세

지난 6월 15일 김정기 동문이 근무지인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얻은 풍토병으로 2여년간 투병 끝에 순직하였다.

김정기 동문은 문리과대학 外交學科를 61년도 입학하였고 외무부 아주국장, 주시카고 총영사, 주미 공사 및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역임하였고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중견 외교관으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던 분이였다.

김 동문의 별세에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돌샘)

閔錫泓 동문 (문리대 47년 졸) 별세

모교의 서양사학과에서 1948년부터 90년도까지 교수로 재직하고, 서울대 명예교수이며 학술원회원인 민석홍 동문께서 7월 22일 서울시 동작구 상도 4동 자택에서 숙환으로 향년 76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 고인은 192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문리대 사학과를 졸업하여 모교에 재직하였으며, 1958년 한국 서양사 학회의 창립을 주도하였으며, 서양사학의 권위자로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국가 공로 훈장을 받기도 했다.

유가족으로 閔同錫씨등 1남 1녀를 두셨다. 재미 총동창회는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박상엽옹(박경민, 의과대학 53년 입학, 재미총동창회 평의원의 부친) 별세

박경민 동문의 부친이신 박상엽옹께서 지난 8월 2일 92세의 연세를 일기로 他界하시였다.

재미 총동창회는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장례식에 아낌없는 성원을 하시고 유가족을 위로하신 뉴 잉글랜드지역 동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상주이신 박경민 동문께서는 “한해에 두 번씩이나 치르게 된 장례식(2월에 모친께서 별세하셨음)을 몰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준 여러 동문들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표한다” 고 전하면서 “아직도 너무나 허탈한 심정이어서 지금은 일일이 답례를 못 보내고 있다”고 여러 동문들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투고자 : 윤상래기자 >

玉仁子 동문 (음대 74년 졸) 별세

LA지역 동창회 소속 동문이며, 재미 총동창회 3대 집행부의 사무총장으로 수고하신 김성희(상대 67년 입학) 동문의 부인께서 지난 8월 2일 숙환으로 별세하셨다. 재미총동창회는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장례식에 참여하셔서 유가족을 위로하신 LA지역 동창회의 동문들께 감사를 드린다. <투고자 : 성주경 동문 >

주성은 女士(1909년 12월 12일 ~ 2001년 8월 2일)

정동빈 동문(치과대학 55년 추)의 모친이신 주성은 여사(故 정보라박사의 부인)가 8월 2일에 93세를 일기로 시카고에서 별세하셨다.

주女士는 평양에서 독실한 기독교도의 집안에서 父親 주공삼 목사와 모친 양진沈씨의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한국 문학계에서는 큰 활동을 하신 주요한(오빠)씨와 주요섭(동생)씨도 그의 형제이시다.

8세에 평양의 송현 여학교에 입학하여 16세에 졸업하였고, 16세 때에 日本 코오베 高女에 수학하였고, 18세에는 서울의 이화여전에 입학하여 영문학으로 21세에 졸업하셨다.

1933년부터 3년간 송현여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셨다. 1931년 故 정보라 박사(치과대학 32년 졸업)와 평양에서 결혼하였으며, 슬하에 3남 3녀를 두었고, 14명의 자손과 4명의 증손을 두셨다.

주여사께서는 생전에 “미시간 호수”, “인생의 봄”, “당신을 사랑한다오” 등의 훌륭한 맑은 時를 남기셨다. (편집마감일 관계로, 다음 호에 미시간 호수 게재예정) 유가족이신 정동빈 동문 가정에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투고자 : 소진문 동문 >

동문투고요청

재미동창회보는 10월호에 인간복제와 생명공학에 관한 동문들의 글을 모아 특집을 계획하오니, 많은 일반 및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동문들의 투고를 바랍니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서양의 자연과학이 드디어 인간생명체를 조작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stem cell 과 cloning의 자연과학기술의 연구와 그에 부수되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재미 동창회보는 이를 깊이 있게 다루고자 일반동문들과 이 분야를 전공하는 전문가 동문들의 투고를 요청하는 바이다. 아래에 옮기는 뉴욕타임즈의 사실(2001. 08. 04)은 이 문제에 대한 토론에 대하여 좋은 단서를 제공한다고 생각됨. <편집자주>

From Cloning to Cures

In a backlash against the onrush of biomedical research into areas that raise moral and ethical issues,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passed a bill this week that would ban all human cloning and subject anyone who violates the ban to criminal penalties and huge civil judgments. Unfortunately, in their zeal to legislate morality and cover their flanks from the religious right, the legislators may put a crimp in research that has promising medical benefits. Once the nature of the work is understood, most citizens would accept the very limited form of cloning involved as a useful scientific tool.

Congress seems to have been spooked by an exaggerated fear that science is going too far too fast. The summer started with President Bush Wrestling with an issue that seems, by contrast, relatively simple- whether to allow federal funding of research on stem cells derived from very early stage embryos, called blastocysts, that are produced in surplus at fertility clinics. This issue raises moral and ethical questions because religious conservatives consider the blastocysts an early form of human life, potentially capable of growing into a fetus and ultimately a newborn child. Others, including this page, consider the blastocysts to be microscopic balls of cells that have no chance of becoming human in a petri dish outside the womb. They are fit subjects for research on therapies that could benefit all humankind.

Many legislators found this research easy to accept because it involves gaining medical benefit from surplus embryos that would be destroyed by the fertility clinics in any event. Then came word that scientists in Virginia had

created their own blastocysts from scratch, and that a small biotechnology company in Massachusetts planned to clone them from adult cells. The House dug in its heels quickly, frightened by visions of Dolly the cloned sheep and boasts by fringe groups that somehow, somewhere, they intend to clone a human being.

The legislators were overreacting. The cloning would be used only to create a clump of cells for research to devise cures for devastating diseases. The company had no intention of implanting the blastocysts in a womb in a misguided attempt to produce a cloned child - an area where Congressional intervention would be appropriate.

The Human Cloning Prohibition Act of 2001 passed the House by a hefty 265-to-165 margin. If the Senate concurs, it would make human cloning a criminal offense carrying penalties of up to 10 years in jail and would impose civil penalties, if pecuniary gain is involved, of at least \$1 million, even if the cloning was for therapeutic purposes. That would be a shame, given the nature of the work proposed.

The Massachusetts company simply wants to remove the nucleus from a female donor's egg, insert a cell from the skin of another donor, and then stimulate the egg to reprogram the genes of the skin cell to start growing into a blastocyst. The company would then derive stem cells from the blastocyst and try to coax them into becoming virtually any kind of cell needed to repair the human body, potentially providing treatments for a wide range of ailments, from Alzheimer's to heart disease.

The cloning approach has one tremendous advantage over using stem cells from surplus embryos at fertility clinics - the resulting therapeutic cells would be genetically matched to the patient who provided the skin cell, making any treatment far more likely to work. This is an area of research that should not be foreclosed simply because some people regard the blastocyst as sacrosanct or because they fear a slippery slope toward reproductive cloning of humans. President Bush opposes all human cloning. But the Senate needs to take a more discriminating approach that would allow therapeutic cloning and simply ban reproductive cloning, which is too dangerous to attempt now and which most legislators find abhorrent.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백만달러 기금
납입 현황**

(2001년 7월 1일~8월15일)

Ankor-Donor (2만달러 이상:약정)

방은호 (워싱턴 DC. 약 42입)

윤정옥 (뉴욕. 약 50입)

김영덕 (뉴욕. 공 53입)

이병준 (남가주. 상 55입)

김병수 (뉴욕. 상 55입)

최수용 (뉴욕. 상 55입)

유창남 (뉴욕. 의 58입)

오인석 (뉴욕. 법 58입)

이전구 (뉴욕. 농 60입)

임낙균 (남가주. 약 64입)

3,000달러이상

방은호 (약대 42입) \$5,000

1,000달러이상

이용락 (공대 48입) \$1,000

300달러이상

정정수(의대 56입) \$500

조영재 (상대 68입) \$300

300달러이하

정인환 (법대 60졸) \$200

이규섭 (상대 68입) \$150

권길상 (음대 46입) \$100

1백만불 기금 지부별 입금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계
01	남가주(CA)	정인환(200)권길상(100)	2	300
03	샌프란시스코			
04	뉴욕(NY,NJ,PA일부,CT)			
05	시카고(IL,IN,WI,MO,MI,OH)	이용락(1,000) 조영재(300)	2	1,300
06	워싱턴 DC(MD, VA)	방은호(5,000) 이규섭(150)	2	5,150
07	워싱턴주(WA)			
08	휴스턴(HOUSTON, TX)			
09	달라스(DALLAS, TX)			
10	미네소타(MN)			
11	조지아(GA)			
12	아리조나(AZ)			
13	유타(UT)			
14	하와이(HI)			
15	오레곤(OR)			
16	기타(서부)			
17	기타(중부)			
18	기타(동부&캐나다)			
19	필라델피아(PHILADELPHIA, PA)	정정수(500)	1	500
20	뉴잉글랜드(MA)			
21	하트랜드			
22	펜실바니아			
	총 계		7	7,250

약정하신 동문들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계
현금 약정			
기타			

총 합 계	7명	7,250
--------------	-----------	--------------

미주관악후원회 이사회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 계
01	남가주	이병준(3,000) 정인환(200)	2	3,200
03	샌프란시스코			
04	뉴욕(NY, NJ, PA 일부 CT)	이재덕(200)	1	200
05	시카고(IL, IN, WI, MO, MI, OH)	이용락(5,000)지역동창(4,000)송순영(1,000) 한재은(1,000)구경희(800) 조중행(500) 박영규(300) 전현일(200) 김현옥(200)	9	13,000
06	워싱턴 DC (MD, VA)	박윤수(1,000)	1	1,000
07	워싱턴주			
08	휴스턴			
09	달라스			
10	미네소타			
11	조지아			
12	아리조나			
13	유타			
14	하와이			
15	오래곤	조충훈(200)	1	200
16	기타1(서부)			
17	기타2(중부)			
18	기타3(동부 & 캐나다)			
19	필라델피아	정정수(200)	1	200
20	뉴잉글랜드	변화경(300)	1	300
21	하트랜드			
22	중부펜실바니아			
일반 이사 합계			15	\$15,100
종신 이사 합계			1	\$ 3,000
총 계			16명	\$18,100



미주관악 후원금 납입현황

(2001년 7월 1일~8월15일)

종신이사

강영빈, 박경민, 박병기
방은호, 서영석, 심상은
오인석, 오홍조, 윤선홍
이교락, 이기영, 이병준
이세락, 이전구, 이청광
정태

- 이용락(공대 48입) \$5,000
- 시카고지역동창 \$4,000
- 이병준(상대 55입) \$3,000
- 박윤수(문리대 48입) \$1,000
- 송순영(문리대 52입) \$1,000
- 한재은(의대 59입) \$1,000
- 구경희(의대 59입) \$800
- 조중행(의대 63입) \$500
- 박영규(농대 57입) \$300
- 변화경(음대 66입) \$300

300달러이하

- 정인환(법대 60졸) \$200
- 이재덕(법대 60입) \$200
- 전현일(농대 62입) \$200
- 김현옥(문리대 67입) \$200
- 조충훈(공대 70입) \$200
- 정정수(의대 56입) \$200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1백만달러 기금 납입 현황

(2001년 7월 1일~8월15일)

방은호 (약대 42입)	\$5,000
이용락 (공대 48입)	\$1,000
정정수 (의대 56입)	\$500
조영재 (상대 68입)	\$300
정인환 (법대 60입)	\$200
이규섭 (상대 68입)	\$150
권길상 (음대 46입)	\$100

관악후원금

이용락 (공대 48입)	\$5,000
시카고 지역동창회	\$4,000
이병준 (상대 55입)	\$3,000
박윤수 (문리대 48입)	\$1,000
송순영 (문리대 52입)	\$1,000
한재은 (의대 59입)	\$1,000
구경희 (의대 59입)	\$800
조중행 (의대 63입)	\$500
박영규 (농대 57입)	\$300
변화경 (음대 66입)	\$300
정인환 (법대 60입)	\$200
이재덕 (법대 60입)	\$200
전현일 (농대 62입)	\$200
김현욱 (문리대 67입)	\$200
조충훈 (공대 70입)	\$200
정정수 (의대 56입)	\$200

회보구독료

임이섭 (미술대 54입)	\$100
이규호 (문리대 59입)	\$50
신정자 (사범대 63입)	\$50
권길상 (음대 46입)	\$50
김용삼 (음대 49입)	\$50
윤진수 (의대 57입)	\$50
장동석 (문리대 66입)	\$50
전동희 (공대 58입)	\$50
김광은 (음대 56입)	\$50
김원경 (약대 59입)	\$50
정 황 (공대 64입)	\$50
최숙규 (간호대 65입)	\$50
김석구 (공대 66입)	\$50
주성문 (의대 58입)	\$50
이찬서 (자연대 82입)	\$50
곽선섭 (공대 61입)	\$50
조중행 (의대 63입)	\$50
조영재 (상대 68입)	\$50
김봉주 (사대 72입)	\$50
차광순 (사대 70입)	\$50
최동규 (법대 79입)	\$50
이용락 (공대 48입)	\$50
이승자 (사범대 60입)	\$50
손기용 (의대 55입)	\$50
이규섭 (상대 68입)	\$50
김장태 (문리대 53입)	\$50
김인호 (공대 47입)	\$50
왕규현 (의대 56입)	\$50
주한수 (농대 62입)	\$50
이태호 (문리대 61입)	\$50
이종진 (공대 55입)	\$50
김순규 (문리대 53입)	\$50

지역 번호	지부명		명 단
01	남가주	12	이규호(문리대 59입) 신정자(사범대 63입) 권길상(음대 46입) 김용삼(음대 49입) 윤진수(의대 57입) 장동석(문리대 66입) 전동희(공대 58입) 김광은(음대 56입) 김원경(약대 59 입) 정 황(공대 64입) 최숙규(간호대 65입) 김석구(공대 66입)
03	샌프란시스코		
04	뉴욕(NY, NJ, PA일부CT)	3	주성문(의과대 58입) 이찬서(자연대 82입) 곽선섭(공대 61입)
05	시카고(IL, IN, WI, MO, MI, OH)	9	조중행(의대 63입) 조영재(상대 68입) 김봉주(사대 72입) 차광순(사대 70입) 최동규(법대 79입) 이용락(공대 48입) 임이섭(\$100, 미술대 54입) 이승자(사범대 60) 손기용(의대 68입)
06	워싱턴 DC (MD, VA)	1	이규섭(상대 68입)
07	워싱턴주 (WA)	1	김장태(문리대 53입)
08	휴스턴 (HOUSTON, TX)		
09	달라스 (DOLLAS, TX)	1	김인호(공대 47입)
10	미네소타 (MN)	2	왕규현(의대 56입) 주한수(농대 62입)
11	조지아 (GA)		
12	아리조나 (AZ)		
13	유타 (VT)		
14	하와이 (HI)		
15	오레곤* (OR)	1	이태호(문리대 61입)
16	기타 (중부)		
17	기타 (중부)		
18	기타 (동부 & 캐나다)	1	이종진(공대 55입)
19	필라델피아 (PA)		
20	뉴잉글랜드 (MA)	1	김순규(문리 53입)
21	하트랜드		
22	펜실바니아		
	계	32	1650

동창회 본부와 각 지역동창회와의 전산망 설치를 위한 설문서 (#1)

동창회 본부와 각 지역 동창회간 신속한 전산망을 구축해 통신의 신속원활을 기하고, 동창회보 기사 취재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___ 지역 동창회

<지역 회장님>

성명(한글, 한문, 영문)/전공학과
주소:
전화 (주택, 직장, Hand Phone)
e-mail :
Fax :

<지역동창회 총무님> (또는 지역동창회보 간행물 담당동문)

성명 :
주소 :
e-mail :
Fax :

재미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한 동문독자 여론조사 설문서(#2)

이번 8월부터 이곳 시카고에서 발간할, 재미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문으로 독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잠깐 시간을 내셔서 설문에 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회송하여 주십시오

VI) 동창회보가 각 분야에 종사하시는 동창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쓰는 기획기사를 연재한다면, 어떤 분야의 주제가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야를 쓰셔도 좋고 가능한 자세하게 기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I) 지금까지 동창회보를 우편으로 받으신 후 (택일)

1)

- 1) 그냥 받아두고 잘 읽지 않는다()
- 2) 눈으로 일별하고 밀쳐둔다()
- 3) 흥미있는 기사가 있으면 즉시 읽어본다()
- 4) 시간상 당장 읽지 않더라도 보관했다가 꼭 다시 찾아 읽는다()
- 5) 시간 나는대로 게재내용을 거의 다 읽는다.()

2)

II) 동창회보를 읽으시는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분 ()시간 정도

VII) 현재 기획중인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분석기사를 동창회보에 게재하는 데에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표를 해 주십시오

- 1) 남북한 관계와 통일에 관한 국제 정세()
- 2) 한국교육문제에 장애와 서울대학교의 역할()
- 3) 기타 자연과학, 기술분야에 대한 읽고 싶으신 주제에 대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III) 어떤 내용의 기사를 유심히 읽어보십니까 (여러 항목에 표하여도 됩니다)

- 1) 동창회 사업계획 보도기사나 공지사항()
- 2) 본국 동창들의 동정, 소식()
- 3) 미국 내 동창들의 개인/지부 활동소식(소속지역)()
- 4) 타지역 동창회 소식()
- 5) 동문들이 투고한 기사 및 column()

VIII) 동창회보 편집위원회에서 집필의뢰를 하면 응하시겠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어째서 그러십니까? ()

IV) 일반 신문잡지에서 어떤 분야들에 관한 기사를 관심있게 읽으십니까?

IX) 미주동창회에서 동창회를 빛내는 업적을 성취하신 동문을 초청하여 지역을 순회하는 강연회를 개최하는(Distinguished Alumni Lecturership)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V) 지금까지 받으신 동창회보의 내용 구성에 대하여 (택일)

- 1) 만족한다()
- 2) 좀 부족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 3)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4) 내용이 실망적이어서 읽을 흥미가 없었다()

- 1) 예()
- 2) 아니오()

X)내용있고 수준있는 동창회보를 만들기 위하여 동문 개개인들이 크고 작은 소식이거나 의견을 수시로 보내주시면 알찬 동창회보 발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기타 충고의 말씀이 있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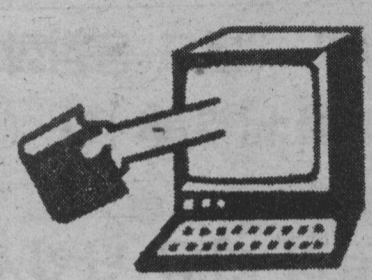
<작성 동문>

성명 :
주소 :
전화 :
e-mail :
Fax :

기타 의견란

Blank box for additional comments.

한국의 대형 서점을 내 방안에



25만여종 / 풍부한 서명 / 최고 40% 할인

AladdinUS.com Internet Korean Bookstore

T323.692.9888 • F323.692.9952 • 1888.338.8480 • 4282 Wilshire Blvd., 2fl. LA, CA 90010

AladdinUS.com 이형렬(국문 79입) 송명국(국사 81입) 윤장희(경영 83입) 최경희(사회 83입)

재미 총동창회 지부회장 / 동창회보 지국장 명단		
지부	회장	총무 / 동창회보 지국장
뉴욕	한창섭 B:212-594-0493 H:201-848-8665	한영우 B:718-463-9100 H:914-592-5448
남가주	이창광 B:626-795-7988 H:818-888-9772	김지영 B:213-532-3600 H:818-952-5606
샌프란시스코	김은종 B:510-567-8800 H:925-736-5516	임승배 B:415-777-1133 H:510-537-5369
시카고	조대현 B:630-972-4595 H:630-920-2201	장영수 B:630-252-4076 H:630-357-6275
뉴잉글랜드	이재신 B:508-577-9424 H:508-923-0031	윤상래 B:978-343-3049 H:978-386-7230
조지아	김재철 B:770-944-2775 H:770-579-5615	김만복 B:770-446-3737 H:770-232-1255
미네소타	김필주 B:651-730-6203 H:651-436-5642	남세현 B:651-733-7287 H:651-768-8939
워싱턴 DC	문성길 B:703-914-2000 H:703-893-0855	송상희 B:703-974-7194 H:703-503-0864
워싱턴주	황수택 B:253-627-8680 H:253-927-8668	고희선 B:425-673-7258 H:425-787-0292
휴스턴	이욱배 B:281-491-8972 H:281-265-2822	변중무 B:713-743-9301 H:713-783-3178
달라스	최근자 B:214-665-8345 H:972-403-1269	강성호 B:972-570-0234 H:214-496-9393
아리조나	최은근 B:480-967-9461 H:602-502-9988	권형욱 B:520-624-8254 H:520-624-8254
하와이	정재훈 B:808-951-7242 H:808-926-6089	정광수 B:808-956-7653 H:808-395-1678
유타	한성양 B:801-272-7444 H:801-485-2065	황선종 B:801-582-1695 H:801-582-1695
오레곤	박창성 B:503-692-6747 H:503-579-8492	정규병 B:610-509-7858 H:610-660-9339
필라델피아	강영배 B:610-623-8560 H:610-651-7834	배규영 B:816-524-7414 H:913-345-2396
하트랜드	김호원 B:913-451-4999 H:913-897-5365	이 옥 B:814-862-0494
중부펜실베이니아	이수경 B:814-833-1587 H:814-234-5529	정순교 B:416-512-1833 H:905-884-4306
캐나다/온타리오	이이병 B:416-385-0107 H:416-250-6908	최승선 B:604-584-5067
캐나다/밴쿠버	엄승용 B:604-542-0595	
캐나다/에드먼튼	정기진 B:780-437-7669	

동문 사업제 안내

<p>강관</p> <p>Pusan Pipe America 이병준 (상 55입) (562) 692-0600 Sant Fe Springs, CA</p> <p>골프용품</p> <p>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 60입) (212) 564-2255 New York, NY</p> <p>공인회계사</p> <p>Young Sik Oh Cpa 오영식 (법 72입) (201) 569-1177 Englewood Cliff, NJ</p> <p>이범선 (상 48입) 이경림 (상 64입) (212) 768-9144 New York, NY</p> <p>Young Tail Choi EA 최영태 (문 67입) (212) 695-0206 New York, NY</p> <p>Delloitte & Touche LLP 김낙구 (상 67입) (213) 688-5585 Los Angeles, CA</p> <p>Wesley Y Chung 정일화 (상 55입) (212) 736-6590 New York, NY</p> <p>이규섭 (상 68입) CPA, CFA (703) 642-2900 Annandale, VA</p> <p>공회상담</p> <p>IBECONS INT L 김재철 (공대 58입) (212) 460-2815 New York, NY</p> <p>교회</p> <p>진리교회 김태철목사 (공대 76입) (718) 225-1000 New Hyde Park, NY (L.I.E. Exit 33 South)</p>	<p>국제금융</p> <p>Sit/Kim International Investment Associate 김병수 (상 55입) (212) 750-7215 New York, NY</p> <p>PTC International 이태영 (법대 60입) (410) 962-8409 Baltimore, MD</p> <p>금고</p> <p>Alco Lock & Safe 정민식 (상 58입) (212) 867-3377 New York, NY</p> <p>금융/투자</p> <p>Liberty Bank of New York 우상영 (상대 55입) (201) 695-5757 New York, NY</p> <p>외환은행 브로드웨이 지점 이홍일 (상대 70입) (212) 736-6575 New York, NY</p> <p>무역</p> <p>Nina America Inc. 강석권 (법 61입) (212) 683-6462 New York, NY</p> <p>EAC Trading Inc. 윤정옥 (약 50입) (516) 466-5678 Great Neck, NY</p> <p>Oregon Hide Co. 조형원 (수 55입) (503) 620-1001 Lake Oswego, OR</p> <p>G. A. Marketing Company 지인수 (상 59입) (310) 216-7929 Los Angeles, CA</p> <p>변호사</p> <p>최형무 변호사 최형무 (법대 69입) (718) 463-3500 Flushing, NY</p>	<p>김용화 변호사 김용화 (법대 69입) (212) 619-1770 New York, NY</p> <p>병원 내과</p> <p>Joon J Bang, MD 방준재 (의 63입) (718) 768-1264 Brooklyn, NY</p> <p>병원 수의과(동물병원)</p> <p>Charles H. Sung, DVM DVM 성홍환 (수의 75입) (330) 534-8383 Hubbard, OH</p> <p>병원 신경외과</p> <p>Rim and Sul, MDPC 임준수 (의 57입) (313) 882-2922 Grosse Pointe, M</p> <p>병원 신경정신과</p> <p>Kenneth Song 송관호 (의 58입) (212) 423-4817 New York, NY</p> <p>병원 위장내과</p> <p>Chang Ho Suk 석창호 (의 66입) (718) 461-6212 Flushing, NY</p> <p>병원 치과</p> <p>Sung Bo Hong, DMD 홍성보 (치 63입) (201) 871-0007 Tenafly, NJ</p> <p>보석</p> <p>Gold Plus 서재숙 (음 65입) (212) 354-8988 New York, NY</p> <p>보험</p> <p>KOI 종합보험 김성희 (상 67입) 성주경 (상 68입) (310) 387-5252 Los Angeles, CA</p>	<p>한미종합보험 박일순 (상 59입) (718) 458-3551 Jackson Hts, NY</p> <p>한영종합보험 한영우 (공 59입) (718) 463-9100 Flushing, NY</p> <p>부동산</p> <p>Cosmo Realty 이재택 (법 60입) (201) 944-4949 Palisades Park, NJ</p> <p>C-21 Infinity 이재원 (법 60입) (201) 944-5353 Palisades Park, NJ</p> <p>REMAX (회망부동산) 최 호 (문 61입) (201) 461-3525 Palisades Park, NJ</p> <p>Gateway Title Co. 박인수 (농 64입) (213) 388-3333 Los Angeles, CA</p> <p>ERA Premier Properties 변만식 (사대 49입) (703) 750-0000 Annandale, VA</p> <p>로망 부동산 엄무광 (문 65입) (800) 474-0200 SKOKIE, IL</p> <p>Pacific Hotel Motel Specialists, Inc. (HMBA American Hotel Broker) 김동호 (농대 58입) (206) 972-3675 Everett, WA</p> <p>설계</p> <p>NKP Architectures 남신우 (공 61입) (908) 636-4800 Woodbridge, NJ</p> <p>JND Engineering, Co 박진득 (농 67입) (310) 404-1848 Cerritos, CA</p>	<p>Booming World Design & Engineering 김상익 (공 49입) (310) 539-7760 Court Lomita, CA</p> <p>Queens Plumbing Supply 김승호 (공대 71입) (718) 392-0111 L.I.C, NY</p> <p>연식</p> <p>Care Tax Industries, Inc. 강봉창 (약 50입) (562) 602-6567 South Gate, CA</p> <p>운송통관</p> <p>S. Y. Shipping 김종표 (법대 58입) (592) 467-5455 Artesia, CA</p> <p>용지</p> <p>Equitable Financia Service 원영배 (미 74입) (213) 368-5705 Los Angeles, CA</p> <p>Hanin Federal Credit Union 이영일 (문리 57입) (213) 368-9000 Los Angeles, CA</p> <p>의료기구</p> <p>MASH 심상은 (상 54입) (213) 487-5695 Los Angeles, CA</p> <p>의류</p> <p>Jeffrey Allen Corp. 이기영 (농 70입) (201) 863-5160 Secacus, NJ</p> <p>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 (상 61입) (201) 440-8500 Moonachie, NJ</p> <p>인터넷 사업</p> <p>KS E biz 장세완 (농 69입) (201) 722-4796 River Vale, NJ</p>	<p>인터넷 서점</p> <p>Aladdin USA 이형렬 (문 79입) (323) 692-9888 LA, CA</p> <p>저장지 부품</p> <p>Knox-Seeman Whse. Inc. 서동영 (사대 60입) (310) 327-1006 Gardena, CA</p> <p>집지</p> <p>Amkor Anam 정홍택 (상 61입) (214) 580-1879 Philadelphia, PA</p> <p>주류상</p> <p>Smithtown Wines & Spirits 이지현 (문리 73입) (613) 265-1121 Smithtown, NY</p> <p>학원</p> <p>Kumon Educational Institute 김형택 (상 57입) (718) 358-0538 Flushing, NY</p> <p>한의원</p> <p>Joong-Ang Medical Center 이수호 (보건대학원 71입) (718) 353-6207 Flushing, NY</p> <p>브로스 약국/시호 한의원 박경룡 (약대 63입) (718) 733-1399 Bronx, NY</p> <p>화장품</p> <p>Revici (레비키) 신경택 (약대 52입 · 화장품, 약품개발) (973) 994-1421 Short Hill, NJ</p> <p>화원</p> <p>Flowers On Lexington 박상원 (음 65입) (800) 252-5way New York, NY</p> <p>Seward Florist 김수향 (간호 72입) (626) 287-6161 San Gabriel, CA</p>
---	---	---	---	---	---

새 회계년도입니다. 응답 꼭 보내주세요.

※재미동창회는 전 동문의 네트워크를 위해 Data Base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동문은 이 설문지를 기입한 후 오려서 동창회 사무실로 우송바랍니다.

재미 동문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설문 및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공개 여부 설문 2001. 7 ~ 2002. 6. 회보 구독료 납입서

재미 서울대 전 동문들의 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모교 지원사업 및 동문 지원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문에 간단히 답하시어 동봉의 반송봉투를 이용 설문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창회보를 받지 않는 주변 동문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본 설문지 여백에 적어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성명 : 한글 _____ 영문 _____
2. 모교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3. 졸업전공 : _____ 대학 _____ 학과 _____
4. E-mail address : _____
5. New home adress : _____
6. New home Tel. No. _____
7. 직장이름 : _____
8. 직장주소 : Tel. _____ Fax. _____
9.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에 공개 무방 (), 가급적 동문들에게만 공개 원함 () .
10. 사업 종류 (다음 해당되는 항목 또는 복수항목에 서클하여 주십시오.)

가정주부, 가정복지 자문, 간호원, 감정사, 경영간부, 경찰, 수사관, 사설탐정, 공무원, 공인회계사, 군인, 금융자문, 은행원, 기업인, 대학교수, 학교 선생님, 학원강사, 디자이너, 미술가, 서예가, 음악가, 연예인, 작가, 기타 예술인, 검사, 판사, 변호사, 법률보조, 법의학, 보험, 부동산 중개사, 실험실요원, 언론인, 엔지니어, 연구원, 요리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의료보조, 은퇴, 장의사, 종교인, 투자자문, 재정자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기타 컴퓨터 관련업, 통관사, 체육인, 학생, 건설 건축 관련업, 국제무역, 농업, 수산업, 제조, 통신업, 도매업, 소매업, 건설업, 광고업, 여행업, 인쇄업, 운송업, 기타 서비스 소매, 기타 직업.

11. 위의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취급하시는 분야 또는 전문분야를 간단하게 아래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의사의 경우) "정신과" : (변호사의 경우) "가정법" : (교수의 경우) "물리학" : (언론인의 경우) "일간신문기자" : (도매업) "의류" 등등

12. 동창회보 일년 구독료 \$ 50은 동창회보 발간 사업 뿐 아니라 모교지원을 위한 업무 및 재미 동문 지원사업을 위하여 긴요한 재원입니다. 재미 총동창회 집행부는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더욱 재고하여 나가겠습니다.

본인은 2001. 7 ~ 2002. 6 구독료 \$50을 함께 우송합니다.
Yes. () No. ()

※미주 관악후원이사에게는 동창회보 구독료 면제합니다.
수표에 Payable to 'SNUAA in the USA' 그리고 '2001년 구독료' 라고 명기바랍니다.

1
2001. 7 ~ 2002. 6년도 동창회회보
구독료 \$50.00을 납부합니다. ()

2
1백만 달러 기금 납입서
본인은 영원한 서울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교와 동창회 돕기 1백만달러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금을 낼 것을 동의합니다.
◎총액(금액명기 \$ _____)
①일시불 (_____)
②3년 분할 납입 (_____)
(\$ _____)씩 (_____)회 분납
▷이 기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미 총동창회는 재산을 이 1백만달러 기금에 남겨주실 유언 (A Will) Program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3
**미주 관악후원회
3차년도 후원금 납입서**
본인은 재미 총동창회의 활동재원 확보와 미주동창회보의 지속적인 월간 발행을 후원하기 위하여 결성된 "미주관악후원회" 회원임을 명예스럽게 생각하며, 제 3차년도 관악후원회비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매년 불입 후원이사
년 \$ 200이상 (금액명기 \$ _____)
년 \$ 500이상 (금액명기 \$ _____)
년 \$ 1,000이상 (금액명기 \$ _____)
◎일시불 종신후원이사
\$ 3,000이상 (금액명기 \$ _____)
▷이 후원금은 세금 보고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후원금에 대한 세금보고용 영수증은 별도로 송부하겠습니다.
: \$ 250 이상만)

Check Payable to :

SNUAA in the USA

Check 보내실 곳 :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ynlee@htrdLtd.com